

인문학적 성서읽기(1)
빌립보서

땅과 하늘

차례

머리말.....

서론.....

1장

1. 평화지향적 공동체(1-2).....
 - 우연에서 필연으로
 - 두 세계관의 충돌
 - 지역 교회
 - 은총으로서의 삶
 - 평화의 토대
2. 교회의 교회다움을 위하여(3-11)
 - 교회론의 근거
 - 사랑, 인식, 경험
 - 시간의 신비
 - 무엇이 “옳음”인가?
3. 복음 전파의 비밀(12-18).....
 - 고난의 이면
 - “다름”을 극복하는 길
4. 죽음과 삶의 경계에서(19-26).....
 - 현안을 넘어서 절대적 세계로
 - 삶과 죽음
 - 허무주의와 욕망을 넘어서
5. 복음의 전투적 성격(27-30).....
 - 경건성과 윤리의 한계
 - 복음 지향적 구조

2장

6. 코이노니아의 원리(1-4).....
 - 대화의 물꼬 트기
 - 권위의식으로부터의 해방
 - 타자를 위한 존재

7. 초대 교회의 그리스도 찬양(5-11).....
 - 그리스도의 선재성
 - 그리스도의 낮춤
 - 그리스도의 성육신
 - 그리스도의 높임
 - 그리스도의 왕권
8. 구원의 깊이(12-13).....
 - 복종과 항거
 - 구원의 길
 - 일상의 내면에서
9. 기쁨의 심연(14-18).....
 - 세상의 빛
 - 원망과 시비의 뿌리
 - 무엇을 위한 희생인가?
 - 기쁨의 근원
 - 순교의 현대적 의미
 - 삶의 긍정으로서의 기쁨
10. 믿음의 연대성(19-30).....
 - 믿음의 아들 디모데
 - 교회의 자기연민
 - 믿음의 형제 에바브로디도
 - 나눔의 현실화를 위해서

3장

11. 율법과 복음(1-9).....
 - 종교적 기득권
 - 자기 신뢰의 허상
 - 인식의 토대
 - 무위이무불위
12. 부활, 하나님 안에 은폐된 미래의 생명 (10,11)
 - 존재망각, 하나님 망각
 - 단힌 생명이해
 - 욕망으로서의 생명이해
 - 영혼은 불멸하는가?
 - 미래로 열린 생명이해
13. 완전과 불완전 사이에서 (12-16).....
 - 완전함에 대한 욕망
 - 기독교적인 삶의 긴장

	신앙의 집중력
14. 몸이 변하리라(17-21).....	
	땅
	하늘
	영광

4장

15. 분열과 일치(1-3).....	
	삶의 토대
	유오디아와 순두개
	일치
	협력
16. 파루시아(4-7).....	
	기쁨
	관용
	영적 현존
	염려로부터의 해방
	하나님의 평화
17. 보편적 가치(8-9).....	
	기독교 윤리의 보편적 지평
	그리스도와 문화
18. 삶의 새로운 차원(10-20).....	
	주는 교회, 받는 교회
	소유와 무소유
	자기초월
19. 성도는 성자다(21-22).....	
	호칭의 존재론적 의미
	인사의 진정성
	성도
	성자
20. 영적인 삶을 향하여(23).....	

머리말

빌립보서의 주제는 일반적으로 기쁨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바울이 감옥 안에서 쓴 편지인데도 불구하고 기쁨을 주제로 삼았다는 점에서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신앙적인 감화를 많이 주는 서신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기쁨이 자신의 종교적 성취감에 근거하거나 아니면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주관적 신앙에 근거했다기보다는 훨씬 근원적이고 구체적인 그 어떤 것에 놓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그의 신앙고백은 개인의 실존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우주론적 차원에까지 도달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 공부의 제목을 <땅과 하늘>이라고 달았습니다. 사실은 인간이 살고 죽는 모든 것이 이 땅과 하늘의 문제이니까 유독 빌립보서만의 주제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하늘의 시민권(빌 3:20)이라는 표현에도 잘 나타나 있듯이 이 땅을 초월하는 기독교 신앙이 이 빌립보서에 명확하게 묘사되어 있기 때문에 땅과 하늘이라는 제목을 달만 하다고 봅니다. 바울은 여기서 땅의 일을 하늘의 일과 대립적인 것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땅에서 성취될 수 있는 일만 생각하지만, 기독교인은 그것을 뛰어넘는 하늘의 영광과 부활의 세계를 바라보고 산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조금 더 넓은 차원에서 생각하면 이 땅의 문제도 역시 하늘(우주)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이 두 차원이 늘 대립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바울의 생각도 근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우선 지난 2천년이라는 세월을 견뎌온 기독교 신앙이 하늘을 어떻게 표상했는지, 또한 그것으로 인해서 기독교를 향한 비판이 어떻게 가해졌는지 그 주변 상황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처음부터 하늘에 대한 관심이 아주 컸습니다. 예수님도 직접 하늘에 대한 어떤 사실적인 설명은 하지 않았으나 간접적인, 혹은 비유적인 언급을 적지 않게 하셨습니다. 우선 주기도문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가리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요 6:41)이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초기 기독교는 예수님이 부활 후 40일 만에 구름을 타고 승천했으며, 이 세상의 마지막 날에는 그 모양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믿었습니다. 기독교 예배가 드려질 때마다 암송되는 사도신경에도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지난 2천년 동안 기독교는 사람들에게 이 땅에 미련을 두지 말고 죽은 다음에 가게 될 하늘나라에 희망을 두라는 가르침을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토대로 삼았습니다. 이런 초월적이고 탈(脫)역사적인 신앙에 근거해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현실적인 시련이나 고통을 인내할 수 있었고, 그런 힘에 근거해서 유럽의 역사를 끌어왔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땅과 하늘에 대한 이런 이원론적인 관점은 기독교인들의 삶에서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했습니다. 이 땅의 삶에 대해서는 매우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는 말입니다. 악하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세상과는 거리를 두고 사는 게 좋다는 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말하는 하늘을 아주 혹독하게 비판한 몇몇 사상가들이 출현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신은 죽었다는 유명한 명제로 그 동안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원성의 대상이 되었던 니체(F. Nietzsche, 1844-1900)는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에서 하늘에 대한 희망을 선포하는 성직자들의 말을 듣지 말고 땅에 충실하라고 외쳤습니다. 또한 <도덕 계보학>에서는 인간을 노예로 만드는 죄의식으로부터 인간을 해방시키기 위해서라도 무신론이 옳다고 주장했습니다. 니체는 기독교의 하늘이 아니라 철저하게 땅에서 이루어지는 인간의 생명을 강조함으로써 반(反)기독교 운동의 선봉에 섰습니다. 그 이외에도 포이어바흐, 프로이트, 마르크스 같은 이들도 역시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기독교의 하늘이 인간의 삶을 왜곡시킨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들의 주장이 비록 기독교를 부분적으로만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의 신앙에 현상하고 있는 추상적이고 이원론적인 흔적을 적나라하게 밝혀주고 있다는 점에서 진지하게 숙고해 볼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비판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질문해야 합니다. 성서가 말하는 하늘이 매우 불확실하다면, 니체 같은 이들이 말하는 땅은 확실합니까? 인간이 이 땅에서 초인적 힘을 발휘해서 달성한 결과는 구체적이며 영원한 가치가 있습니까? 하늘로부터 해방된 인간이 땅을 경작함으로써 참된 자유와 평화를 얻었습니까? 인간의 계몽과 진보는, 특히 현대의 생산성은 외면상 풍요로운 생명을 제공해주고 있는 것 같지만 내면적으로는 그 이전의 시대에 비해서 털끝만큼도 나아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해방된 인간은 인간이 만든 피조물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갈 뿐입니다. 그것이 정치 이념이었던, 자본주의였던, 세계 혁명이었던 상관없이 인간이 만든 것은 결국 인간을 노예로 삼습니다. 그들이 비판하는 것처럼 기독교의 하늘이 공허하다면, 인간의 땅은 더욱 황폐하고 허무합니다.

물론 조직체로서의 기독교는 기독교 비판가들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에서 의심받을만한 일을 적지 않게 저질렀습니다. 신앙적으로는 하늘을 기다리라고 하면서 실제적인 삶에서는 매우 영악하게 땅의 질서만 따라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의 모습은 철저하게 초월적이면서 철저하게 세속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면에서 하늘은 니체나 프로이트, 혹은 포이어바흐가 비판하듯이 인간 삶을 왜곡시키고 소외시키는 요설이 아니라, 오히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삶을 추상적인 데 묶어두지 않고 참된 리얼리티와 연결시키는 영적인 실체입니다. 또한 하늘은 이

땅과 대립하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일치합니다. 땅은 현실이고 하늘은 관념이지만 결국은 동일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용어를 빌리면, 땅은 생명의 질료이며, 하늘은 생명의 형상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이 두 세계가 온전한 생명을 이루어냅니다.

우리는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하늘과 부활과 영광에 대해 매우 분명한 어조로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과연 바울은 어떤 근거에서 하늘과 영광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걸까요? 2천 년 전 매우 불확실한, 혹은 유치한 우주론에 근거해서 하늘을 말하고 있는 바울의 주장이 상당히 많은 우주론적 정보가 알려져 있는 이 시점에서도 여전히 타당합니까? 일반적으로 기독교인들은 자신들이 알고 있는 우주 물리학적 정보와 성서의 가르침이 어긋나 있기 때문에 곤혹스러워 하거나 무관심한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물론 성서는 과학서가 아니라 신앙에 관한 가르침이기 때문에 성서의 내용을 그저 믿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 기독교는 2천 년 전 시작할 때 그랬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기독교가 진리라는 사실을 변증할 준비를 게을리 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에서 땅의 생명과 하늘의 생명이 어떻게 결합되는지 교회 밖의 사람들도 알아듣도록 설명해야 합니다. 우리의 짧은 지식으로 세상의 인문학자들이나 자연과학자들과 경쟁을 벌이자는 뜻이 아니라 그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기독교가 보편적인 진리로서 손색이 없다는 사실을 납득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빌립보서 공부를 통해서 부분적이거나 이런 작업이 수행되리라 기대됩니다.

1. 평화지향적 공동체

1:1,2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찌어다.

모든 일반적인 편지 형식에서 볼 수 있는 대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공동체에 보내는 이 편지를 간단한 인사로 시작합니다.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찌어다.’ 바울은 간단한 축복의 인사를 이 빌립보서의 머리말로 삼았습니다. 아마 그 당시의 사람들은 대개 이런 식으로 편지를 썼을 것입니다. 자기가 섬기는 신의 이름으로 축원 인사를 건네고, 구체적인 내용을 거론한 다음에, 다시 신의 이름으로 축복을 기원하는 방식 말입니다. 바울도 이런 일반적인 형식에 따라서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습니다.

우연에서 필연으로

우선 이런 질문으로부터 시작해봅시다. 바울이라는 사람이 우연한 기회에 보낸 이 편지가 기독교의 경전으로 채택되었다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바울 스스로는 이 편지가 때가 되면 기독교의 경전이 되리라고는, 더구나 2천년 후에 한국 사람들도 읽게 되리라는 건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단순히 개인적인 필요에 따라서 보낸 편지에 불과했는데도 이런 결과에 이르게 된 역사적 흐름을 단순히 하나님의 섭리라고 접어버리면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이런 역사적 과정에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빌립보서가 기독교의 경전으로 결정된 사연은 대충 이렇게 보면 됩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서 한 통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역사 비평가들의 주장에 따르면 빌립보서는 원래 두 통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는 바울이 에베소의 옥에 갇혀 있을 때인 55/56년경에 쓴 것이며, 다른 하나는 옥에 풀려 나와 고린도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을 때인 56/57년경에 쓴 것인데, 이 두 편지가 오늘 우리의 성경인 빌립보서에서 하나로 편집되었다고 합니다. 그날카). 그들은 자신들과 특별한 관계에 있었던 바울이 보낸 편지이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들은 이 편지를 몇 번 읽은 다음에 폐기해버린 게 아니라 소중히 간직해두고 기회가 닿을 때마다 돌아가면서 읽었습니다. 파피루스에 기록된 이 편지는 세월이 흐르면서 손상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필사본을 만들어서 이 편지의 내용을 계속 보존해나갔습니다. 이런 소문이 다른 지역의 교회에게도 퍼지게 되어 아마 여러

편의 필사본이 회람되었을 것입니다. 백년, 이백년이 지나면서 이 편지는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더욱 큰 영적인 권위를 얻게 되다가, 결국 4세기 후반에 경전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바울이 개인적으로 우연한 기회에 기록한 이 편지가 오늘날 기독교 안에서 아주 중요한 경전 중의 하나가 된 이유와 근거를 우리는 두 가지로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첫째, 이 편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독특한 신앙을 담고 있습니다. 만약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안부를 묻는 것으로 끝냈다면, 또는 교회 내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충고로 끝냈다면 그저 한번 읽는 것으로 족했겠지요. 그러나 바울은 빌립보서 전체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로 채웠습니다. 몇몇 구체적인 사안이 거론되고 있지만 그것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역사라는 구도에서 설명되고 있을 뿐이지 그것 자체가 주제는 아니었습니다.

둘째, 이 편지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원 역사가 아무런 보편적인 근거도 없이 일방적으로 강요되거나 선전되는 게 아니라 충분한 이유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우리의 주(主)인지, 우리가 어떻게 구원에 참여하는지에 대한 문제를 설득력 있게 설명한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들은 그저 어느 한 순간에 하늘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아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삶에 대한 깊은 이해 가운데서 얻어지는 근원적 인식일 것입니다. 아마 빌립보서의 이런 보편적 근거들은 바울이 인간 구원 문제에 얼마나 오랫동안 치열하게 천착해 왔는가, 하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런 노력이 있었기에 아주 개인적인 동기에 의해 기록된 이 말씀이 수많은 인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연이 필연으로 변화하는 순간(카이로스)이 거기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런 원리는 우리의 삶에서도 타당합니다. 우선 우리는 일상적인 것과 우연한 것들을 통해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영을 눈여겨볼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국가나 세계의 정치, 경제 같은 크게 보이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아주 사소해서 우리가 놓쳐버리기 쉬운 일상에서 일어납니다. 아침 이슬, 저녁노을, 장보기, 가족끼리 둘러앉은 저녁 식탁, 친구와의 대화, 출산 같은 일상에서 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이런 일상의 소중함을 상실하고, 모두가 국가 경제, 아이 엠 에프, 대통령 선거, 남북통일에만 관심을 두며 살아가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일상적인 것들이 소중하고 그것들이 언젠가는 결정적인 의미를 획득한다는 말이 옳기는 하지만 여기에는 그 무언인가가 전제됩니다. 빌립보서의 내용이 그렇듯이 우리의 일상이 보편적이고 우주적인 차원과 연결되어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아침과 저녁의 식탁, 책상 위의 꽃 한 송이, 바람, 직장생활, 인간관계가 하나님의 구원론적 섭리와 결합되어 있어야 합니다. 많은 경우에 이런 일상의 것들이 구원의 지평으로 승화되지 못하는 이유는 인간이 그 일상에 집착해버리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가까워져야 하는데 그 일상 자체에 묶여서 그 이상의 것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일상의 일들이 자기를 확대시키고 남을 지배하기 수단에 머물러 있다면 그런 것들은 우리를 황폐화시킬 뿐입니다. 우연한 기회에 쓴 빌립보서가 우연하게 성서가 된 게 아니듯이 우연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이 구원론적 지평에 속하려면 구원의 사실들과 끊임없이 연관되어야만 합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의 성서 공부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예배는 기독교인으로서는 당연히 수행해야 할 구원의 과정이며 수행의 길입니다.

두 세계관의 충돌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바울과 디모데의 이름이 함께 거론되었다고 해서 이 편지가 공동의 이름으로 보내진 것은 아닙니다. 아마 이 편지를 쓸 당시에 디모데가 바울을 도와주고 있었고, 빌립보 교회가 디모데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단순히 인사치레로 이름이 들어갔을 것입니다. 디모데에 관한 내용은 뒤에(2:19-30) 다시 거론되니까 여기서는 접어두겠습니다.

바울은 자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서신에서는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 표현입니다. 일반적으로 바울은 자신을 사도로 칭했습니다. 예를 들어 고린도전서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이라고 했습니다. 로마서에서는 종과 사도라는 단어가 동시에 사용되는데, 그것도 매우 드문 경우입니다. 그 이외의 거의 모든 서신이 사도의 권위로 기록됩니다. 빌립보서처럼 자신을 단순히 종으로 표현한 예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에서 사도성을 강조하지 않고 종이라고 자칭한 이유는 빌립보 교회에서는 이미 그의 사도적 권위가 인정되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 있긴 하지만 그것이 그렇게 결정적인 이유는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바울이 회심 이후로도 교회의 주류에 편입되지 못했고, 상당히 여러 곳에서 신앙적이고 신학적인 충돌을 빚었기 때문에 사도로서의 입지가 흔들릴 수 있긴 했습니다만, 그러한 이유 때문에만 자기를 표현할 때 종이나 사도 중에서 양자택일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빌립보서의 전체 주제와 연결시켜서 생각해 보는 게 옳습니다. 물론 기쁨이 빌립보서의 주제이지만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강조되고 있는 개념이 있습니다. 낮춤입니다. 소위 케노시스라고 일컬어지는 말씀(빌 2:5-11)이 가리키고 있듯이 빌립보서는 그리스도의 낮춤을 매우 중요한 신학적 토대로 삼고 있습니다.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충고

하는(2:3) 바울의 생각을 진지한 것으로 여긴다면 바울이 왜 자기를 사도로 칭하지 않고 종으로 칭했는지 이해할 만합니다.

오늘 우리보다는 바울 시대의 사람들에게 종이라는 단어가 주는 인상이 훨씬 각별했을 것입니다. 신약성서가 형성되던 1세기는 근본적으로 로마 제국이 로마의 평화(팍스 로마나)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주변 나라를 식민지로 만들고 전쟁의 수확으로 얻어진 노예의 노동력을 통해 로마 문명을 찬란하게 이룩해가던 때이니까 말입니다. 이집트도 그렇고 로마도 그렇고 고대 문명은 대개가 노예들에 의해서 발전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피라미드나 콜로세움을 건설할 수 있었겠습니까? 물론 일반 백성들도 돈을 주고 일을 시키거나 특별법을 제정해서 이런 대규모 건축 현장으로 불러내기도 했겠지만, 천문학적 재정과 시간이 소요되는 거대 공사는 그런 합법적 노동력으로만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아주 값싼 비용만으로도 훨씬 많은 생산성을 올릴 수 있다는 점에서 고대 제국들은 끊임없이 노예를 확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어떤 제국보다도 로마는 훨씬 많은 노예들을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여력으로 인류 역사상 최고의 문명을 구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그들의 계획대로만 굴러가지 않았습니다. 영원히 계속될 것 같았던 로마 문명은 전혀 예측하지 못한 방식으로 끝나버렸습니다. 노예를 부리면서 예술과 오락과 취미생활에 빠져들던 로마 시민들은 인간의 욕망을 해결하지 못하고 자기들 내부로부터 허물어지고 말았습니다. 로마의 힘이 막강한 기세로 뻗어가던 그 시기에 스스로 종처럼 섬기려왔다는 예수님의 새로운 복음이 싹을 틔우고 있었습니다. 역사는 노예를 부리며 기고만장하던 로마를 해체시키고 노예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널리 확산시켰습니다. 역사의 반전입니다.

로마 문명과 기독교는 서로 상반된 세계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세계관적 충돌은 로마 이후의 모든 문명을 통해서도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노예를 부리는 힘의 세계관과 노예처럼 섬기는 사랑의 세계관입니다. 로마 제국은 겉으로는 관용과 용기를 고귀한 가치로 여기지만 그런 덕들이 거의 자기 입장에서만 강조되고 있을 뿐입니다. 자신들의 체제를 위협하는 대상으로 판단되기만 하면 그 정당성 여부에 상관없이 강한 군사력으로 초토화시켜버리는 일 이외에는 아무런 선택도 없는 제국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늘 낮은 자리에 앉으라고,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의 시대정신에 위배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로마의 정치에서만이 아니라 유대의 종교에서도 받아들여질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노예보다도 훨씬 낮은 자리를 의미하는 십자가 처형을 당했다는 사실은 이런 세계관적 충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오직 경제적인 힘만이 구원인 것처럼 선포되는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 기독교인들은 종처럼 섬기

는 사람으로 살아 가야한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합니다. 외형적으로 자기를 지켜주던 로마의 노예 문명을 포기하고 자기 스스로 예수님의 노예가 되기로 했던 바울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간다는 말은 사실 두려운 표현입니다. 종은 원래 자기의 의지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주인의 의지대로만 움직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의지를 버린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우선 말 그대로 자기의 모든 생각, 모든 가치관, 모든 경험을 버린다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빌 3:8) 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배운 것은 자기의 생각을 확고하게 만드는 길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자기 나름의 생각을 키워나가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교육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교육을 통해서 남보다 공부도 잘하고 처세술도 좋아야 이 세상에서 버텨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후천적인 교육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더 근본적으로 인간은 자기를 성취하고자 하는 욕망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서로 충돌하며 살아갑니다. 그런 욕망이 정치와 문화와 예술의 옷을 입고 등장하기도 합니다만 그런 욕망으로 인간이 구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말에 충실하다면 이렇듯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요령에 의지할 게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만을 추구해야합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 마음의 혁명적인 변화가 없다면 가능하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첫 말씀이 회개하라는 것이었나 봅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경험에 의하면 우리의 의지와 생각과 감정이 얼마나 예민하게 자기중심적으로 돌아가는지 알 수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끊임없이 우리는 자기에게 유익한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머리를 굴립니다. 어떤 큰 문제에서만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일에서도 그런 손익계산서가 작동됩니다. 심지어는 신앙생활에서조차 우리는 자기의 생각과 의지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쩌다가 신앙적으로 뜨거워진 경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의 의지가 완전히 무력화되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지배하는 변화가 한 두 번의 신앙체험으로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론적으로도 그렇고 실제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우리의 도덕적, 인격적 노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와와의 일치에서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만큼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접어두고 그의 뜻을 따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종됨이라는 말은 기독교 신앙의 어떤 한 특성을 가리킨다기보다는 그 신앙의 존재론적 기초를 가리킨다고 보아야 합니다.

지역 교회

바울이 쓴 빌립보서의 수신자는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는 감독들과 집사들입니다. 이런 표현은 이미 그 당시에 감독과 집사들이 빌립보 교회에 있었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런 직분에 대해서는 접어두기로 하고 그들 모두를 일괄해서 빌립보에 사는 성도들로 묶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교회의 이름을 모두 지역 이름에서 따왔습니다. 물론 그 당시의 교회 상황은 오늘 우리의 상황과 전혀 달랐기 때문에 그렇게 단순한 이름으로 불러질 수 있었습니다.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들이 바로 교회였으며, 로마에 사는 성도들이 교회였습니다. 에베소에 사는 성도들의 무리, 골로새에 사는 성도들의 무리, 고린도에 사는 성도들의 무리가 교회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서울에 사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교회이며, 부산에 사는 성도들의 무리가, 광주에 사는 성도들의 무리가 교회입니다. 원칙적으로 말해서 그리스도의 교회는 오직 하나입니다. 로마 가톨릭교인, 장로교인, 감리교인, 성결교인이라는 말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저지른 역사적 부끄러움의 결과이지 그렇게 자랑스러운 이름은 아닙니다. 기독교 교회가 일치하지 못하면서 세상을 향해서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만약 기독교인, 혹은 성도라는 이름이 얼마나 절대적이고 철저한가를 조금이라도 진지하게 생각한다면 기독교의 분열을 치유하려는 노력이 교회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로 대두될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의 설립 과정은 사도행전(16:11-40)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소위 제2차 선교여행 중에 빌립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1차 선교여행 시에 동행했던 바나바와 헤어진 후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우선 소아시아(지금의 터키)를 순방했습니다. 그곳에는 1차 여행 때 조직된 공동체가 조금씩 제 모습을 갖추어가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대충 일을 마친 다음 비잔티움으로 가려고 했으나 여의치 않았습다. 그는 드로아 항구에서 밤중에 한 환상을 봅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도와달라는 호소를 들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한 바울은 결국 배를 타고 마게도냐의 관문인 빌립보에 들어갑니다. 그것이 갈릴리에서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20년 만에 최초로 유럽에 전파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대략 기원 후 50년경입니다.

바울이 유럽에 복음을 전한다는 원대한 꿈을 안고 첫 발을 내디딘 빌립보 성(城)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12절). 성서학자들이 설명하는 바에 따르면 빌립보는 원래 작은 우물이라는 뜻의 크레니데스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었는데, 필립 2세가 그 마을을 식민지로 만들고 기원전 356년에 자기 이름을 따서 새롭게 이름을 붙이면서 크게 발전되었다고 합니다. 바울이 활동하던 시기에는 동서 문화의 거점으로

서 상거래도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지던 도시였습니다. 바울은 주로 이런 중요 도시를 거점으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아마 오지를 돌아다니기에는 교통수단도 마땅하지가 않았을 것이며, 더욱이 실제적인 면에서 그의 선교 정책은 그래야만 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에서 며칠 동안 기본적인 생활 수단을 구하기도 하고 지리도 익히다가 안식일이 되자 유대인들의 기도처를 찾기 위해서 강가로 나갔습니다(행 16:13). 그 당시는 요즘과 같은 주일 개념이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아직 기독교의 정체성이 확립되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의 전통대로 안식일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정기적으로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상당한 세월이 지나서, 결정적으로는 4세기에 이르러서야 정착되었습니다. 바울은 강가에서 기도 모임을 갖고 있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의 설교를 들은 이들 중에 특히 루디아라는 여자는 모든 식구들과 함께 세례를 받고 바울의 선교 사역을 적극적으로 도움으로써 초대 교회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루디아는 자주색 물감을 매매하는 일을 했는데, 그 일은 그 당시에 매우 고급스러운 사업이었습니다. 비교적 큰 사업을 꾸리고 있었기 때문에 루디아는 경제적으로 상당한 여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최소한 실라와 디모데, 그리고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를 비롯해서 바울의 선교 활동에 참여한 여러 사람의 숙식을 떠맡는다는 것은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었겠지만 루디아는 기꺼이 이들을 자기 집에 머무르게 했습니다. 원래 소위 자비량 선교 원칙을 고수하고 있던 바울은 루디아의 강권(15절)을 물리치지 못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이런 루디아의 도움은 빌립보 교회의 전통이 되어 바울의 전도활동을 계속적으로 뒷받침해 줍니다. 어떻게 보면 이 결과로 인해서 이 귀중한 빌립보서가 기록되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기도처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던 어느 날 점을 치는 여자가 바울에게 시비를 겁니다. 그녀는 바울 일행의 뒤를 따라오면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행 16:17)고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고 몇 날에 걸쳐 이런 소란이 계속되자 바울은 그 일로 무척 괴로워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 들린 그 여자의 병을 고쳤습니다. 바울 일행을 가리켜 하나님의 종 운운하는 이 여자의 고함 소리를 듣고 바울이 왜 괴로워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말이 실제로는 바울을 조롱하고 있기 때문인지, 아니면 좋은 말도 한 두 번이지 너무 반복되니까 귀찮아졌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지 주인집에 고용되어 점이나 치던 이 여자가 바울에 의해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점쟁이 여자 사건으로 인해서 바울은 어려운 처지로 내몰립니다. 이 여자의 주인들이 이제 점치는 일을 통해서 더 이상 돈을 벌어들일 수 없게 되자 바울을 고

발합니다. 이상한 유대인들이 이 도시에 들어 와서 로마 사람들이 따를 수 없는 풍습을 전하고 이 도시를 소란하게 한다는 비난이었습니다. 로마 관리는 바울 일행을 때리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감옥 안에서 한밤중에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감옥 문이 열리고 죄수들의 몸도 자유로워졌습니다. 감옥을 지키던 간수는 죄수들이 달아난 줄로 생각하고 자결을 시도합니다. 그 당시의 로마법에 의하면 죄수들이 도망갈 경우에 이를 지키던 간수가 모든 책임을 졌습니다. 그러나 바울 일행이 그대로 감옥 안에 남아있는 걸 확인한 이 간수는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을 보고 바울에게서 구원받을 길을 제시해 달라고 간청합니다. 이 간수에게 한 바울의 말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31절). 이 간수는 모든 식구들과 함께 세례를 받고 빌립보 교회의 설립멤버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 후에 바울 일행은 빌립보를 떠나 데살로니가로 떠나가는 것으로 빌립보에서의 선교활동이 끝납니다.

빌립보 공동체의 출발이 매우 극적이고 감동적으로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삶의 매 순간이, 또한 신앙적 활동의 매 순간이 이와 똑같습니다. 만약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 운동이 은폐의 방식으로 살아 움직이는지 알아챌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에는 이러한 빌립보 공동체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또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우리의 일상에 내재된 이런 거룩하고 영적인 일을 인식하고 체험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은총으로서의 삶

바울은 이렇게 인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서 은혜와 평화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2절).’

일반적으로 은혜, 혹은 은총(카리스)은 하나님이 값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신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비슷한 뜻으로 사용되는 은사(카리스마)라는 단어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긴 하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주는 게 아니라 개인에 따라서 특별하게 베풀어주는 것을 가리킵니다. 말하자면 구원과 영생은 은혜이지만 예술적 기능과 지적인 능력은 은사입니다. 어쨌든지 바울이 여기서 다시 한번 역설하고 있는 이 은혜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능력의 원천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안에 거할 때만 기독교인다운 삶의 능력이 솟아날 수 있습니다.

잠시만 생각해봐도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인간이 자기의 능력으로 생산해 내는 게 아니라 모두가 값없이 선물로 주어진다는 사실이 명확합니다. 땅과 하늘과 공기와 물, 태양과 달과 별은 우리 인간의 생존 조건에서

가장 우선적인 것인데, 그냥 주어집니다. 이런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라 사랑과 평화와 기쁨 같은 것들도 사실 우리의 마음이 열리기만 하면 그냥 주어지는 것이지 돈으로 매매할 수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철저히 깨닫기만 한다면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은 완전히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인간 사회가 만들어놓은 질서는 모든 삶의 조건들을 값으로 매깁니다. 인간의 능력과 품위마저 돈으로 계산하려고 합니다. 이러다 보니 은총에 대한 이해는 사라졌습니다. 모든 게 자기의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마당에 누구에게 감사할 마음이 생길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질서에서는 구원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은총이 없으면 사랑도 구원도 없습니다.

은혜(은총)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내뱉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과연 삶을 은총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하는 점은 안타깝게도 별로 명확하지 않습니다. 은총을 은총으로 안다면 기독교인다운 삶의 능력들이 나타나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평생을 교회에 다녔어도 여전히 불만과 욕망의 불길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건 결코 은총을 아는 사람의 모습이라 할 수 없습니다. 기독교인 개개인만이 아니라 앞서 말한 대로 이렇게 많은 교파가 분열되어 있는 현상은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은혜로운 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렇듯 은총을 은총으로 여기지 못하게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삶의 목표가 잘못 설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인간적인 욕망을 채우는 것으로 삶의 목표를 삼고 있는 사람은 그것을 채우는 것에만 마음을 두기 때문에 더 온전한 것을 보지 못합니다. 예컨대 50평짜리 아파트 장만하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세운 사람은 자기가 숨 쉬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감격할 수 없습니다. 그런 집을 손에 넣어야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겠죠. 물론 거처할 집이 생긴다는 것도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은혜이긴 합니다만 그것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에서 은혜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철저히 깨닫기 위해서는, 혹은 그런 은혜를 깨닫게 된다면 살아가는 목표가 근본적으로 달라질 것입니다. 존재하는 것에 마음을 둔다고 할는지, 생명에 참여하는 것에 마음을 둔다고 할는지, 하여튼지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소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하나님의 궁극적 생명과 관련된 것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당신 하는 말은 너무나 이상에 치우쳐 있다고 말하고 싶은 분이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좋지만 우리 인간이 열심히 노력해서 일단 생산을 많이 해야 가난한 사람도 골고루 먹고살지 않겠느냐,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는 말씀이 있듯이 우리는 힘닿는 데까지 열심히 일을 해야 하지 않느냐고 말입니다. 일하기 싫어한다는 것과 하나님의 은혜에 존재론적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노동과 그 생산

성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은 다릅니다. 노동 자체가 어떤 면에서 구원론적 의미가 있지만, 오늘 우리의 삶이 노동을 통해서 자유로워지는 게 아니라 억압당한다는 데에 심각성이 있습니다. 생산성 제고에만 삶의 목표를 두지 말고, 다르게 살아가는 방식을 배워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은총의 왜곡 현상을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 안에서 볼 수 있는 은총 편의주의입니다.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견뎌내야 할 삶의 무게를 너무나 쉽게 은총에 기대어 벗어버리는 삶의 태도를 말합니다. 본회퍼가 말하는 대로 값싼 은혜입니다. 다른 하나는 이 세상에서 볼 수 있는 은총 무용론입니다. 이들은 오직 자신의 업적으로 자기 자신을 확인하려고만 하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은총을 업신여깁니다. 이 결과는 인간이 시지푸스 신화 이야기처럼 자신이 짊어져야 할 운명의 무게에 짓눌려 삶을 소진시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현대인들이 노동과 오락 사이를 오가며 살아가듯이 말입니다. 이런 점에서 기독교는 은총의 참 의미를 이 세상에 올곧게 되살려내야 할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좀더 노골적으로 질문해 봅시다. 은총의 질서는 실질적인가요? 아니면 단순히 종교적 수사(修辭)에 불과한가요?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을 부지하고 살아가는 데는, 이 땅에 존재하는 데는 그렇게 많은 수고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런 토대를 만들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혹은 우리의 돈으로 다르게 할 수 있는 것은 약간 씩 좋은 음식이나 환경을 만들거나, 약간 좋은 자동차를 타고 다닐 수 있다는 것뿐입니다. 만약 우리가 살아있는 것 자체에 중심을 두고 살아가기만 한다면 그렇게 지나게 수고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소로우는 <월든>에서 그런 경험을 토로한 적이 있습니다. 자기의 실제 경험에 의하면 한 사람이 먹고사는 데 필요한 땅은 겨우 2, 30평이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물론 자식들이 먹을 것도 있어야 하고, 병이 들었을 때 먹을 것도 비축해야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많은 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을 가볍게(자유롭게) 여기고 살아간다면 매 순간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겨지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평화의 토대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인사하면서 사용한 평화(에이레네, 샬롬)라는 단어는 성서 안에서만이 아니라 온 인류의 역사에서 인간이 추구한 가장 완전한 삶의 상태를 가리킵니다. 인류의 역사는 전쟁과 다툼의 연속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화려한 문명을 일구어낸 사회라 하더라도 완전한 평화를 이룩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에릭 프롬이 <인간은 파괴적인 동물인가?>라는 책에서 밝혀주고 있듯

이 문명이 발달할수록 평화로운 게 아니라 더욱 파괴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위에서 거론한 로마 문명은 전형적인 군사 문명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안녕을 위한 모든 군사적 행동을 세계 평화의 이름으로 합리화했습니다. 이집트의 피라미드는 평화의 상징입니까? 아프리카와 남북 아메리카를 식민지로 점령한 유럽의 문명은 평화에 토대를 두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의 세계는 평화의 질서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을까요? 더욱이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있는 기독교는 참으로 평화 지향적이었을까요?

오늘 우리의 실존적인 삶에서도 평화는 요원합니다. 온갖 평화라는 평화는 모두 소유한 것 같은 오늘의 삶에서 오히려 분쟁과 불안이 더욱 팽창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좋은 면에서나 나쁜 면에서 어느 한 순간도 경쟁 심리에서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무한한 경쟁 구도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평화를 경험한다는 것은 아예 근원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만약 평화를 경험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자기 성취에서 오는 아주 짝막한 만족감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평화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참된 평화는 영적인 차원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어집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누가복음의 보도에 따르면 천사들을 통해서 이 소식을 제일 먼저 접한 이들은 목동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전달된 다음에 하늘에서 천군 천사의 합창이 울렸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눅 2:14). 예수님의 오심은 곧 복된 소식, 기쁜 소식, 즉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아는 사람들에게 평화가 임한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빌립보서의 주제라 할 참된 기쁨을 아는 사람만이 참된 평화를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평화는 역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서는 하나님과 평화를 누려야 한다고 누누이 강조합니다.

하나님과의 평화라는 말은 우리의 죄로 인해서 나뉘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는 뜻입니다. 다시 회복되는 길은 죄가 해결되는 데에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해결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며,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죄를 용서받게 됩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용서받고 구원받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기쁜 소식은 없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복음입니다. 이런 복음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고 모든 사람들과도 평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론의 대강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진부하게 들릴지도, 혹은 그 실질적인 의미를 깨닫지 못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선 죄라는 문제에

만 한정해서 생각해봅시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평화가 깨어졌으며, 그로 인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불안하게 살아간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키에르케고르가 <죽음에 이르는 병>에서 명쾌하게 설명하고 있지만, 우리 인간이 실존적으로 불안하게 살아가는 이유는 죄의식입니다. 현대의 심층심리학도 이런 사실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는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죄 문제와는 상관이 없다고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죄라는 것은 우리의 행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행위는 오히려 작은 부분이며 어떤 뿌리에 근거한 결과입니다. 우리의 마음 속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이기심, 자기 집착, 욕망을 생각해보면 아무도 죄와 관계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기회를 이용해서 자신을 성취하려고 애를 쓰다보니까 아주 쉽게 상대방을 파괴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범죄 행위를 감행하지 않는 것은 어떤 실정법이나 교양과 윤리 같은 질서나 관습들이 우리를 억지로 지탱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그 토대가 너무나 빈약해서 순식간에 우리를 허약하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에 근거해서 살아갈 수는 도저히 없습니다.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평화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의 이 인사말을 통해서 기독교가 근본적으로 평화지향적 공동체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교회의 교회다움을 위하여

1:3-11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인사를 끝낸 바울은 이제 여기 3절부터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시작합니다. 우선 빌립보 교회를 칭찬하면서 그들의 신앙이 더욱 풍요롭게 되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교회의 교회다움이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가 하는 점을 배울 수 있습니다.

교회론의 근거

바울은 빌립보 교우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항상 기쁨으로 빌립보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어떤 교회와 그 신자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었다는 것은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특별한 관계에 기인하기도 한 것이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빌립보 교회가 실제로 바울의 가르침인 복음에 잘 따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5절 말씀을 개역 성서는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고 번역했으며, 마틴 루터는 당신들이 첫날부터 오늘까지 복음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감사한다고 번역했습니다. 이 문장에서 핵심적으로 거론된 “복음”(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는 기독교 교회가 선포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가장 특징적으로 설명해주는 단어입니다. 이 낱말의 의미는 일반적으로 기쁜 소리, 참된 소리입니다만 교회에서는 그런 단어에 영적으로 풍요로운 내용과 의미를 담았습니다. 무미건조한 언어에 생명이 담기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런 일들은 기독교 역사에서 계속적으로 일어났으며,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복음은 바로 예수님의 사건인 그의 오심, 그의 가르침과 행위, 그의 십자가와 부활, 재림 약속 등이 그것입니다. 이런 초보적 도그마에 대해서는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만, 정작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는

이것이 복음이라는 사실을 어떤 근거에 의해서 주장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그렇다고 말하니까 그저 그러려니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 믿고 있는지 아닌지, 그럴만한 이유를 알고 있는지 아닌지가 중요합니다. 만약 교회에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단순히 교회의 질서에 잘 적응해서 어떤 종교적인 위로를 받거나 종교적인 교양을 쌓으려는 게 아니라면, 우리의 실존 전체가 근거하고 있는 그 어떤 절대적인 세계를 추구하는 자세는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무엇을 복음으로 생각하는가, 또한 그것에 대한 충분한 대답을 갖고 있는가 하는 점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우선 간단한 이야기로 시작합시다. 인간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구원받을 수 있다는 소식입니다. 굳이 쉬운 예를 들자면, 사형수에게 특별 사면령이 떨어졌다고 합시다. 그 사람에게 이것보다 더 기쁜 소식이 있을까요? 어떤 남자가 오랜 세월동안 짝사랑을 하던 여자에게서 사랑의 응답을 받았다면 이보다 더 큰 기쁨은 없을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많습니다. 그만큼 인간은 구원받아야 할 상황 속에서 살아간다는 뜻일 것입니다. 어떤 한 사람에게 무엇이 복음인지를 알려면 그가 기다리고 있는 구원이 무엇인지 알면 됩니다. 그 이외의 문제들은 그 사람에게 시시한 것이니까 말입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오늘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그의 모든 행위와 가르침을 복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구원이 예수님의 일과 상관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제는 당연한 것 같기도 하고, 또는 반대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생각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기독교의 복음을 이해하려고 할 때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입니다. 조금 더 이야기 해 봅시다.

대개의 사람들은 자기의 눈에 익숙한 것을 성취하는 것으로 자기의 삶을 소비합니다. 사회적인 신분을 높이는 일, 사업을 늘리는 일, 오락과 취미활동을 재미나게 꾸려 가는 일, 자식을 출세시키는 일에 목숨을 걸어둡니다. 정치인들이 국민들에게 약속하는 내용도 거의 한결같이 이렇습니다. 그런 일들 중에는 사회적으로 소외된 이들을 돕는다거나 남북통일이나 실직자를 돕는 것 같이 그런 대로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의미 있는 일 조차도 그것 자체로는 그 어떤 궁극적인 의미를 획득하지 못합니다. 이미 1990년10월3일에 통일을 이룬 독일의 경우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것이었습니다만, 동서독의 통일이 독일 국민들에게 어떤 결정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까? 통일된 독일이 분리된 독일보다는 훨씬 강력한 힘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고, 낙후된 동독 지역을 서독 수준에 걸맞도록 발전시켰으며, 더 이상 베를린 장벽으로 인한 비극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통일 이전보다 지금이 훨씬 행복하다고

볼 수 있나요? 부분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궁극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2천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의 정치, 사회적 상황이 우리와 매우 달랐지만 인간들이 겪는 갈등은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합니다. 우리가 계획해놓은 일들을 기다리면서 우리 인생을 보내기에는 우리 인생이 너무나 짧은 뿐만 아니라, 그런 일들 자체로서는 거의 무의미합니다. 즉 우리 인간들이 최선을 다해 이룩해보려는 이런 정치 구조와 사회 제도의 변혁은 우리가 수행해야할 당연한 과업입니다만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 목표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위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복음은 바로 이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진정한 “기쁜 소식”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과연 신약성서가 말하는 복음을 복음으로 이해하고 믿고 있을까요? 복음이 과연 우리의 인생 전체를 걸어들 만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까? 모든 재산을 팔아서라도 보물이 묻힌 밭을 산 어떤 사람처럼, 가장 값진 진주를 발견하고 자기 재산을 모두 팔아 그 진주를 손에 넣은 사람처럼 우리는 복음을 우리 삶의 절대적인 근거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오늘의 말씀에 의하면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서 전도 받은 첫날부터 지금까지 이 복음과 연합해 있었습니다. 우리는 빌립보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 그 세세한 내용을 모두 알 수는 없습디만, 바울의 이 말에 의하면 매우 건실하게 복음과 그 일에 집중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복음과 연합해 있는 것이야말로 교회론적 근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꿔 말하자면, 교회는 바로 복음 공동체라는 뜻입니다. 물론 각각의 기독교인들도 복음에 연합해 있어야하지만, 가시적 질서를 가진 공동체에게는 이 문제가 더욱 절실합니다. 집단은 개인보다 훨씬 비복음적 힘에 이끌려갈 염려가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나간 기독교의 역사에서 숏하게 경험한 이런 비복음적인 일들은 과거의 역사일 뿐만 아니라 현재의 일이기도 하고, 불쾌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미래의 일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복음에 진력하는 게 아니라 비복음적인 일에 몰두해 버린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비복음적인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복음과의 연합을 일반적으로 교회를 세운다거나 예배를 드린다거나 기도를 열심히 하는 정도의 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무언가 가시적인 교회 활동을 원활하게 만들고, 그것을 강화시킴으로써 우리가 복음적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들이 필요하기는 합니다만 그것 자체가 복음은 아닙니다. 그것은 복음에 연합한 자들이 형편에 따라 행해야할 우리의 과업이며, 일종의 율법입니다. 율법은 율법 나름의 근거와 이유가 있습니다만 복음 자체는 아닙니다. 인간의 업적과 행위인 율법은 상대적인 범주 안에 있는 것이면서도 불구하고 그것이 교회 안에서 절대화 되다보니 교회가 복음과 위배되는 일들을 서

숨지 않고 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우리 한국 교회에서 시급히 정리되어야 할 가르침은 교회론의 토대가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가르침과 그의 행위와 그의 십자가와 부활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과 그 생명의 세계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교회는 오직 이런 일에서만 존재의 의미가 있지 교회 자체를 위해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복음이 우리의 삶에, 우리 교회의 전 영역에 충만하게 작용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 이외의 것들은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되는, 흡사 성탄절의 장식품과 같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중요하지 동방박사의 예물이 중요한 게 아니듯이 교회를 교회답게 유지시키는 근원과 목표는 오직 복음이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저는 기왕에 복음 문제를 언급했으니까 그 복음을 선포하는 설교가 어떤 자리에 있어야 하는지 잠시 한 마디 지적할까 합니다. 설교는, 특히 주일 대예배의 설교는 복음적이어야 합니다. 이 복음적이라는 말을 반동적인 보수로 돌아가라는 뜻으로, 혹은 편협한 전통으로 돌아가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이 말에 대한 모욕입니다. 이 말은 위에서 밝혔듯이 인간 구원을 선포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교회 강단에서 외쳐지는 설교가 많은 경우에 종교적인 잔소리에 머물러 버리거나, 아니면 교회에 대한 열심을 부추기거나, 혹은 윤리와 도덕 문제를 장황하게 늘어놓습니다. 그런 설교를 듣는 신자들은 결국 종교적인 부담을 느끼고 귀를 막아버리든지, 아니면 아주 비현실적인 자기 도취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오!”라는 말을 짜증스럽게 반복하는 게 설교라는 말은 더더욱 아닙니다. 참된 구원의 기쁨을, 참된 생명의 세계에 대한 희망을 실질적으로 전해야 합니다. 이 일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기독교의 성서와 전통에 확실하게 서야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말하려는 구원의 현실성들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하고, 그것을 오늘 이 시대의 언어로 되살려내야 하는, 매우 고단한 작업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설교자들은 위대한 예술가들이 자기 생명을 걸어두고 작곡을 하고 그림을 그렸듯이 구원과 그 생명 세계의 본질을 파헤치고 설명하는 일에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사랑, 인식, 경험

복음에 연합해 있는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바울은 여전히 기도합니다(9-11). 어딘가 부족한 것이 채워지기를 원해서가 아니라, 신뢰할 수 있고 자랑스러운 교회이지만 복음의 더욱 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렇듯 다른 이를 위한 기도야말로 성숙한 기도의 자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판넨베르크는 “기도에 대해서”라는 설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올바른 간구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며, 또한 이기적인 마음으로 자기 소원에만 맴돌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실에서 볼 때 이런 간구에는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관계가 포함됩니다. 올바른 기도는 역시 중보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를 드릴 때 ‘우리의’ 일용할 양식과 ‘우리의’ 죄에 대한 용서를 간구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일반적인 기도는 거의 우리의 희망 사항을 나열하기에 정신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가 이루어지고, 우리 모든 인류 공동체의 구원을 위한 내용은 구색 맞추기에 불과하고 거의 대부분의 내용은, 특별히 힘을 주어 드리는 기도의 내용은 나와 우리 교회에 대한 것들입니다. 좋은 교회당을 허락해 달라는 기도, 빈자리를 채워달라는 기도를 십자가에 달리셨으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이런 현상은 곧 우리의 기도가 자기의 관심사에 빠져있을 뿐이지 정작 우리의 관심사보다 우위에 있으면서 이것을 선하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관심사에 모아지지 않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우리는 바울의 기도에서 기도의 태도를 배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드린 기도의 첫 구절은 사랑에 대한 것입니다.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곧 인간의 인식과 경험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바울이 그냥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기도하지 않고 인식과 경험에서 그렇게 되기를 기도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문제는 결국 사랑에 대한 성격 규정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우선 인식의 차원에서 풍요로워져야 합니다. 사랑은 우리가 감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어떤 구체적인 형태를 가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식론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개념의 성격을 가졌습니다. 만약 책상이나 자동차처럼 사랑이 일종의 사물이라면 모든 사람이 사랑 안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만, 사랑은 사물이 아니라 어떤 관계에서 발생하는, 혹은 그 관계에서 작용하는 힘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마음먹은 대로 사랑 안에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즉 사랑은 소유의 차원이 아니라 존재의 차원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사랑은 인간의 단순한 감정이나 기분에 속한 게 아니라, 우리의 정신, 즉 영(Geist)에 관계되는 힘입니다. 우리의 사랑이 풍요로워지려면 결국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인식이 깊어져야 합니다. 그런 노력 없이 우리 자신을 기분에 따라 움직이게 내버려두면 사랑과는 점점 더 거리가 멀어질 것입니다.

과연 인식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사랑이 풍요로워지려면 공부를 많이 해야 하고 반드시 지성적이어야만 한다는 말입니까? 만약 그렇다면 사랑보다 쉬운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런 지성이라는 것은 우리의 작은 노력으로도 얼마든지 손에 넣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식은 단순히 지성적인 능력이 아니라 더 근본적인 것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사회 심리학, 재료공학, 컴퓨터 공학, 경제학, 고고학에 능통하다는 것과 근본에 대해서 깨닫는 것과고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비록 그런 지식 일반에 대해서 별로 아는 바가 없더라도 삶의 궁극적 의미, 그 미래, 구원의 세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것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습니다. 깊은 산골에서 평생 동안 농사만 짓고 살던 노인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삶의 근본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는 대학교 선생들보다 훨씬 앞설 수 있습니다. 혹시 관심이 있는 분들은 전우익 선생의 <혼자만 잘 살면 무슨 재민겨>(현암사)를 읽어보십시오. 스스로 무식하다고 생각하는 노인인데, 세상살이에 대한 통찰이 날카롭습니다. 이렇게 근본에 대한 인식 능력이 있어야 사랑도 역시 풍부해집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한국 사회에 가장 시급히 요구되는 문제는 이 근본에 대한 인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성과 정보는 넘쳐나고 삶에 대한 요령은 넘쳐나고 있지만 근본에 대해서 알아보려는 노력은 너무나 미미합니다. 언제부터인가 많은 대학에서 철학 과목이 교양 필수에서 선택으로 바뀌고, 대신에 영어회화와 컴퓨터가 필수 과목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근본보다는 주변적인 것들을 통해서 빠른 시간 안에 어떤 수확을 올려보자는 약삭빠른 전략인 것 같습니다. 이런 전반적인 흐름이 결국에는 우리 사회의 기초를 총체적으로 부실하게 만드는 원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의 사랑이 인식론적인 차원에서 풍성해지기를 원한다는 바울의 기도는, 그가 의식했는지 아닌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우리에게 좀더 심원한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에서, 그리고 여러 다른 곳에서 언급되어 있듯이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사실에 근거해서 볼 때 하나님은 인식론적인 차원에서 풍요로워져야 한다는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믿으면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식에서 하나님이 설명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이 기록한 신약성서의 모든 내용들은 그것이 아무리 신비하고 개인적인 체험이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그럴만한 근거를 제시합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보편성을 획득하는 작업인데, 교부들과 중세기 스콜라 철학자들도 이런 일에 적지 않은 노력을 기울였고, 그런 노력의 결과로 기독교의 보편성을 획득하는 데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계몽주의 이후로 신학은 완전히 인간론으로 떨어지든지 아니면 인식론적 근거를 무시하는 폐쇄적인 정통주의로 돌아섰습니다. 세상은 인간론적 신학을 불신하며 정통주의 신학을 무시합니다. 전자는 인간 역사의 매 경우마다 변화무쌍하게 달라지기 때문이며, 후자는 절대적인 교의에 묶여서 그 내용이 매우 공허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

시 기독교 진리의 보편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차원에서라도 모든 생명의 근거와 미래인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보편적 인식론 안에서 설명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 변증이고, 선교이며, 설교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사랑이 인식에서만 아니라 경험에서도 풍요로워지기를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인식과 경험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인식은 홀로 기도하면서, 홀로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깊어질 수 있지만 경험은 세상과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만나야만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인식이 책상머리의 작업이라면 경험은 시장 바닥의 일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사랑은 인식에서만 아니라 우리의 실제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그 내용이 검증 받아야 한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의 사랑은 세상과의 분리가 아니라 일치에서 성숙되어야 합니다. 간혹 어떤 이들은 썩어질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그 말이 이원론적인 세계관에 근거해서 세상의 삶을 부정하거나 무시하는 뜻이라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신앙과 사랑은 아주 구체적인 삶의 한 복판에서 풍요로워져야 합니다.

오늘 바울이 기도의 제목으로 삼은 사랑은 오늘 우리에게도 역시 절박한 문제입니다. 사랑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힘주어 역설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진실한 사랑의 본을 보인다고 믿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이 말은 곧 하나님의 능력이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에게 더 많이 작용하는 게 아니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오늘 바울의 기도에 따르면 우리의 사랑이 인식에서나 경험에서 별로 풍요롭지 않다는 말이 될 것입니다. 사랑은 사랑하자고 큰 소리로 외치거나 그런 내용의 찬송가를 아름답게 부른다고 해서 실제로 이루어지거나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를 인식하는 것만큼, 우리의 구체적인 삶이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라 할 사랑도 역시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역시 바울처럼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사랑이 인식과 경험에서 풍성해지기를 말입니다.

시간의 신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의 사랑을 위해서 기도한 이유는 그들이 그리스도의 날(11절)에 온전해지기를 바라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미 앞서서도 바울은 선한 일을 이루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날(6절)까지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 일을 이루실 것을

확신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언급된 “그리스도의 날”은 기독교인의 삶이 지향해나가야 할 목표를 가리키는데, 바울만이 아니라 신구약성서 전체는 이러한 분명한 때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는 곧 기독교가 세상을 이해하는 데 시간 개념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암시이기도 합니다.

기독교 사상의 뿌리라 할 수 있는 구약의 묵시사상은 세상을 시간적인 의미가 담긴 “에온”이라고 이해했습니다. 세상은 시작과 끝이 있으며 그 사이에서 인간과 모든 생명체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때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누누이 강조했습니다. 이런 시간 개념이 묵시사상에서 결정적인 의미를 획득하게 되었는데, 악한 에온은 곧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되며 새로운 에온이 시작될 것이라고 선포되었습니다. 이에 반해 헬라 사상은 세상을 공간적인 의미가 담긴 “코스모스”로 이해했습니다. 우주라는 공간 안에서 시작도 끝도 없이 흘러가는 것이 바로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역사와 시간이 히브리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때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라면 헬라인들에게는 그 자리에서 돌고 도는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은 세계를 시간적으로 이해하고, 헬라인들은 공간적으로 이해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 히브리 민족은 우리가 구약성서를 통해서 익히 알고 있는 바처럼 뿌리를 내릴 곳이 마땅하지 않아서 이곳 저곳을 떠돌아 다녔으며,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로도 여러 부족들과의 전쟁이나 주변 제국들의 강압에 의해서 끊임없이 불안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어떤 공간적 보금자리를 생각할 겨를이 없었을 것입니다. 반면에 헬라인들은 막강한 해상력을 기반으로 주변의 많은 부족들을 자신들의 세력 안에 굴복시켰으며, 이런 힘에 근거해서 아테네를 중심으로 여러 곳에 찬란한 고대 문명을 가시적으로 건설함으로써 공간으로서의 세계를 마음껏 그려나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신에 대한 표상을 보더라도 히브리인들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처럼 히브리인들의 민족 이동과 더불어서 기동하는 신으로 생각했다면, 헬라인들은 올림포스 안에 거주하는 신으로 생각했습니다. 어쨌든지 이들 두 고대 민족은 세계를 시간적으로, 혹은 공간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함으로써 서양 문명이라는 마차에서 두 바퀴 역할을 했습니다.

히브리인들이 세계를 시간적으로 이해했다고 했는데, 과연 시간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태초와 종말 사이에 있는 시간은 무엇입니까? 태초 이전에는, 그리고 종말 이후에는 시간이 사라지는 겁니까? 시간이라는 것은 실재하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의 인식일 뿐일까요? 오늘 이 지상의 삶에서 우리의 삶을 규정하는 모든 기준은 시간입니다. 학교를 졸업할 때, 결혼할 때, 아플 때, 사업이 성공했을 때, 죽을 때가 있으니까 우리는 살아있다는 느낌을 갖는 것이지 그런 때를 초월해버린다면 우리가 살아있는지 아닌지 확인하기가 힘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글을 쓰

거나 말하는 현재라는 시간은 동시에 과거가 되어버리며, 내일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은 동시에 현재가 되었다가 다시 과거가 되어버립니다. 물론 실제로 살아가는 현실에서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엄격하게 구별됩니다만 100억 년이라는 우주의 시간에 준해서 우리 한 인생을 비추어본다면 과거와 미래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또한 미래에 우리가 절대속도인 빛의 속도를 뛰어넘어서 시간을 여행할 수 있게 된다면 시간 개념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아직 어떤 철학자도, 어떤 물리학자도 이 시간의 실체에 대해서 완벽하게 해명하지 못했으며, 사실은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물리학자들이 시간과 공간의 관계를 파헤쳐 보려고 여러 이론들을 세워 보았지만 (예를 들어 통일장 이론), 제가 아는 한 여전히 영원히 풀리지 않을 숙제로 남아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신비이듯이 결국 시간은 신비로 남아 있을 겁니다.

이런 마당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날”에 대해서 언급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혹은 어떤 사실을 말하는 겁니까?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리스도의 날은 구원이 완성되는 때라고 말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우주의 어느 공간으로 옮기게 된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알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이루 시게 될 그 구원의 미래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게 될 나라가 그 때 시작합니다. 우리가 아직 인식하지 못하는 우주론적인 구원이 완성되는 때입니다. 현재 우리의 삶은 그 때까지만 유효한 잠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도 역시 그 때까지만 유효합니다. 그리스도의 날은 완전히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빛나게 되는 때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신비주의자들입니다. 궁극적인 생명은 신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생명이 완성되는 그 때를 신비하게 기다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신비의 세계를 희망하는 사람은 현재의 잠정적인 삶에 매달리지 않고 그 생명의 세계를 향해서 끊임없이 초월해 가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흡사 애벌레가 나비가 되어 비상하는 꿈을 꾸듯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유한한 현재의 삶과 완전하고 신비한 미래의 생명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단적으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한 우리들은 미래로부터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그리스도의 날에 이미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무엇이 “옳음”인가?

앞서 본대로 9절부터 11절까지는 빌립보 교회를 위한 바울의 기도입니다. 사랑이 풍성하게 되고, 선한 것을 분별할 줄 알고, 그리스도의 날까지 진실하기를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이제 그는 끝으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의의 열매는 과연 무엇일까요? 바울이 구약의 가르침(암 6:12, 잠언 11:30)과 연관해서 인간의 어떤 선한 행위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구약이 말하는 선한 행위를 직접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복음이 아니겠지요. 단순히 의로운 열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의의 열매라는 표현에서 우리는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선 옳음(義)의 문제로부터 생각해 봅시다.

신약성서에 들어와 있는 바울의 서신을 읽어보면 의 문제가 대단히 중요하게 취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로마서 같은 서신은 인간이 어떻게 의로운 상태에 도달할 수 있는가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그 이외의 모든 서신도 역시 이 의 문제가 그 배경을 이루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의를 기독교 신앙의 중심 주제로 삼은 이유는 아마 그의 종교적 바탕이라 할 유대교적 전통과 세속적 삶의 바탕이라 할 로마의 법 전통에 영향을 받은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유대인들이 다른 민족들과 대립하게 된 역사적 근거는 의와 불의 문제에 그 뿌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악과 불법에서 떠나라고 부단히 강권하고 명령하십니다. 이는 곧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곧 의로운 분, 의를 행하시는 분으로 인식되었다는 뜻입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도 인용한 말씀인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유대인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과 유대인들과의 관계는 이 의에 의해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유대의 모든 율법에서 떠났다고는 하지만 율법의 근본 정신마저 버린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는 인간의 의로움에 대한 문제를 기독교 신앙의 본질적 요소로 다루게 된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출생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자였으며 당시에 최고의 지성적 훈련을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로마법의 영향을 적지 않게 받았을 것입니다. 모든 서양 문명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로마는 대단히 난폭하고 부도덕하게 보이는 경우가 적지 않지만 사실은 매우 합리적이고 도덕적인 정당성도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런 저런 내부의 문제가 적지 않았겠지만 그래도 그런 정도로 입헌적인 사회 질서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문명에 비해 탁월한 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탁월한 힘의 결정적인 요소는 바로 법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그렇게 오랫동안 대제국으로 살아남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현대의 모든 서양 정신과 문화의 물줄기는 로마에 그 근원을 두고 있습니다. 현대법의 모태라고 할 수 있는 로마법은 기본적으로 “옳음”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무엇을 옳음으로 판

단했는가 하는 점은 또 다른 자리에서 논의되어야 하겠지만 사회 질서를 어느 한 두 사람의 전횡에 맡겨두지 않고 최소한 합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유지하려고 했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바울은 실제로 로마법이 자신을 지켜준다고 생각했기 때문인지, 다른 경우에서도 편지를 쓰면서 법을 지키라는 의미의 말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만큼 로마법의 공정성을 믿었다는 것이겠지요. 어쨌든지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로서 의로운가, 불의한가에 대한 의식이 아주 투철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바울은 유대의 종교적 전통이나 로마의 법적 전통에 근거해서 이 의 문제를 기독교의 신앙적 사유에서 일종의 화두로 삼은 셈입니다.

인간이 과연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더 근본적으로는 인간이 과연 실제로 의로워질 수는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먼저 질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비슷한 질문이면서 또한 구별됩니다. 우선 뒤의 질문으로부터 시작하는 게 좋겠습니다.

인간은 도대체 의로워질 수 있습니까? 의에 대한 기준이나 인식이 객관적으로 완벽하게 주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물음에 대한 대답은 쉽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일단 두 가지 차원에서 설명될 수 있습니다. 우선 삼강오륜을 의라고 생각하던 시대와 오늘 우리의 시대에 의에 대한 기준이 같을 수 없는 것처럼 의는 시대에 따라 다르게 정의될 수 있다는 것이 하나의 차원이며, 의 문제가 인간의 행위에만 해당되는가, 아니면 양심에까지 해당되는가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이 또 하나의 다른 차원입니다. 윤리적 지평의 질문이라 할 수 있는 “옳음”에 대한 질문을 이러한 다층적 관점 없이 대답하려고 한다면 일방적인 도그마에 빠지게 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다시 묻습니다. 인간은 도대체 의로워질 수 있습니까? 유대교의 율법은 인간의 노력에 따라서 의를 성취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서기관들은 인간이 의로워질 수 있는 방법론을 찾는 일에 종사했고,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실제 생활에서 실행해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인간의 완전한 의를 이루어보려고 온갖 수고를 아끼지 않은 이들에 의해서 유대인들의 율법 종교가 완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뼈를 깎는 수고로 이룩한 의의 세계가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회칠한 무덤이었으며, 낙타는 삼키고 하루살이는 걸어내는 이중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의를 완성해보려고 했던 이들의 수고가 헛수고인 이유는 인간 스스로는 결코 이룩할 수 없는 세계를 억지로 성취하려고 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불가능한 일에 집착하려고 고집을 부리다 보니 자신을 과장하게 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되고 자신의 노력에 대한 반대급부를 바라게 된 것입니다. 아마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런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칭찬 받을만한 일을 하면서도 인정받지 못하면 어쩌나 하는 염려에 사로잡히는 경험 말

입니다. 그러다 보면 욕심이 생기고 괴로워지고 위선적인 인간이 되어갑니다. 인간 행위와 성취감이 안고 있는 한계를 알면서도 우리가 늘 그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은 그것이 우리에게 매력적인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즉 자기 만족이라는 매력입니다. 그러나 그런 자기만족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궁극적인 가치를 생산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장자는 이런 인간의 윤리와 도덕을 근본적으로 부정합니다. 온갖 도덕적인 가르침과 선한 것을 규정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이것을 성취하라고 말하는 소위 현자들이 없어야만 큰 도둑이 없게 된다고까지 말합니다. 무엇인가를 성취하려는 인간의 의도가 벌써 그 무엇인가의 본질을 훼손하기 때문에 그런 노력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 인간의 작위(作爲)를 없애버리고 도에 자신을 맡길 때 참된 인간성이 성취된다는 이런 장자의 가르침은 경우에 따라서 너무 극단적이어서 현실과는 관계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근본적으로는 옳습니다. 특히 하나님과의 절대적인 관계에서만 인간의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그의 사상이 그 어떤 사상 보다 훨씬 도움이 됩니다. 믿음과 무위는 비슷한 시각을 갖고 있다는 말입니다(본서 149쪽 이하 참조).

저는 개신교 목사이기 때문이라기보다는 한 지성인으로서, 아니 평범한 한 인간으로서 살아온 경험에 의해서도 역시 인간 스스로 의로운 존재가 될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실제적으로도 어떤 의로운 행위를 실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로운 행위를 강조하는 율법은 우리를 교양인으로 만들어 줄 수는 있으며, 한 나라의 실정법은, 혹은 어떤 윤리관은 우리를 약간 세련된 사람으로 보이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러한 요구들은 이 사회의 틀을 어느 정도 이끌어 나갈 수 있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그렇게 보이게 할 뿐이지 근본적으로는 전혀 의롭지 않습니다. 의롭지 않은데 의로운 것처럼 보이려고 하다보니까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불거집니다. 위선과 교만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고, 이런 현상이 반복되면서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인간과 인간 사이를 벌어지게 만듭니다. 이런 되풀이되는 과정을 우리가 과연 의로운 세계라고 할 수 있을까요? 구원의 세계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인간다운 세계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인간은 의로워질 수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스스로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뿐이라고 말입니다. 이게 바로 로마서를 쓴 바울과 종교개혁자들의 가르침이었습니다. 루터가 말한 “오직 믿음”이라는 슬로건은 바로 이 사실을 가리킵니다. 인간이 의로워지는 길은 온갖 종교적 수행을 통해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이 명제에 바로 우리 개신교의 칭의론이 토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본문에서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바란다는 바울의 기도는 빌립보 교인들이 윤리적으로 모범이 되기를 바란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의의 열매는 말 그대로 열매일 뿐입니다. 그런 열매는 그것을 맺을 수 있는 나무에서만 기대할 수 있는 것이지 나무가 “그게 아니올시다”이면 그런 열매는 맺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좋은 나무이어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명제가 우선해야 합니다. 좋은 나무가 되면 열매는 자동적으로 좋게 맺습니다. 결국 우리 기독교의 윤리는 인간의 구체적인 행위를 문제삼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근거해서 논의되어야 합니다. 좋은 믿음이면 좋은 윤리가 나온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건전하면 그의 행동도 역시 건전하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성서는 우상을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믿으라고 했으며, 신약성서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장 우선적인 것으로 강조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의의 열매라 할 수 있는 행위가 우리의 삶에서 별 의미가 없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윤리가 목표는 아니지만 마땅한 결과로서 기독교 신앙을 분별할 수 있는 징표가 될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믿음과 행위는 구별해서 설명할 수는 있지만 이원론적으로 분리해버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 관계를 이렇게 규정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행위의 존재론적 근거이고 행위는 믿음의 인식론적 바탕이라고 말입니다.

바울은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간구한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의의 열매는 한 기독교인을 위해서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를 위해서 기독교인들이 감당해야 할 삶의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단순히 마음으로만 하나님을 믿는 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의의 세계가 확대되는 데에 있습니다. 이런 세계는 현실적으로 요원하긴 합니다만 우리 기독교인들이 추구해야 할 목표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의 노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질 그 의의 세계가 임하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결국 무엇이 옳음이나 하는 질문은 인간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그 답이 주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복음 전파의 비밀

1:12-18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위대 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하므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명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저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전치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빌립보 교회를 향한 따뜻한 인사와 간절한 기도를 드린 후 이제 바울은 자신이 처한 형편을 약간 씩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소위 옥중서신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바울은 지금 감옥 속에 있습니다. 12절의 나의 당한 일은 바로 이 사실을 가리킵니다. 이미 7절에서도 나의 매임이라는 말로 이 사실을 암시하고 있으며, 14절에서 다시 나의 매임이라고 썼습니다. 바울은 세 번에 걸친 선교 여행 중에 여러 번 투옥된 경험이 있습니다. 이미 ㉠빌립보에서도 한 번 투옥되었으며(행 16장), 결정적으로는 3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들어갔다가 유대인들의 무고로 로마 정부에 의해 투옥 당했습니다(행 21장 이하). ㉢예루살렘에 임시로 며칠 간 감금당했다가 유대 총독의 관저가 있는 ㉣가이사랴로 호송되어 2년 간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그 사이에 그는 여러 번 심문을 당하고 유대 근본주의자들에 의해 살해당할 위기에 몰리기도 했습니다만 그 모든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변상의 위기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그는 마침내 로마 황제에게 상소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자들은 로마 황제들에게 상소할 특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역사의 아이러니입니다만 만약 바울이 상소하지 않았다면 십중팔구는 가이사랴에서 석방되었을 것입니다. 어쨌든지 황제의 직접 심문을 원한 탓에 그는 로마까지 압송 당했습니다. 지중해를 통해 아프리카와 이탈리아를 오가는 무역선을 타고 항해하는 바울의 이야기는 사도행전에 매우 상세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로마에 도착한 바울이 어느 정도 자유로운 감옥생활을 하는 것으로 사도행전이 보도하고 있는 바울의 이야기는 끝납니다. 사도행전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바울이 ㉥에베소에서도 투옥되었다는 게 일반적인 사실입니다. 바울에 관한 그 뒷 이야기는 없습니다. 어쩌면 자기의 소원대로 스페인까지 가서 선교했을 수도 있습니다. 빌립보서를 쓸 당시에 어떤 감옥에 있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일단 로마일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는데, 학자들에 따라서는 에베소라고도 합니다.

고난의 이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방해하던 바울이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방향을 전환한 이후로 당한 고난은 이루 말할 수도 없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고백은 신앙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어리석은 사람처럼 기탄 없이 한 번 말하는 것이라는 단서를 달고 고백했습니다. 상당히 걱정적인 상태이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그의 삶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고백입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 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사십에 하나 감한 매를 다섯 번 맞았으며 세 번 태장으로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세 번 파선하였는데 일 주야를 깊은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주리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고후 11:23-28).

우리는 바울이 당한 고난에 대해서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역시 바울은 위대한 사람이라는 생각일까요? 아니면 뭐 그렇게 미련스럽게 살았을까 하는 연민일까요? 혹은 이런 일이 나에게 닥치지 않았으니 천만다행이라는 안도의 한숨일까요? 바울에 비해서 내가 너무나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미안한 마음과 불안한 마음을 갖는 걸까요? 모든 사람이 바울과 같을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바울의 고난에 똑같이 참여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렇게 불안해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기독교의 신앙과 고난의 관계에 대해서만은 분명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신앙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매 순간마다 기억했으며, 기독교 역사는 영예와 부러움이기보다는 오히려 이런 십자가와 고난으로 이어져 왔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한 신학적 해명을 알고 싶은 분들은 몰트만의 저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대한기독교서회, 1990)을 참조하십시오.

기독교 신앙이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예수님이, 즉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고전1:23)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적 전통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비위에 거슬리고 철학적인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어 보이는 것을 우리 삶의 토대로 삼고 있으니 그 사이에서 갈등이 없을 수 없습니다. 갈등이 없다면 우리 기독교 신앙의 참된 능력을 잃어버린 경우이거나 아니면 세상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완전히 받아들인 경우에 해당될 텐데, 후자의 경우는 종말에서나 이루어질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세상과의 갈등과, 그것으로 인해 벌어지는 고난을 다음과 같은 경우로 생각합니다. 교회당을 건축하려는데 그 동네 사람들이 방해한다거나, 아니면 교회 문제를 세상의 매스컴에서 비판적으로 다루는 것을 기독교의 고난으로 생각합니다. 혹은 시어머니나 남편의 방해로 교회에 나갈 수 없는 며느리, 부모님의 반대로 교회에 나가지 못하는 자녀들의 경우를 그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고난도 역시 고난이기는 하고, 세상과의 갈등이긴 하지만, 이런 것들은 약간의 지혜와 인내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우리는 정작 도전적으로 판단해야 할 부분에서는 항상 뒤로 물러나고 어느 정도 양보해도 될 문제에서만은 끝까지 투쟁한다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예컨대 경제적 가치만을 우선적으로 여기는 이 시대 정신과의 투쟁에서는 너무나도 유연한데 반해서 교회의 이해타산이 걸린 사안에서는 너무나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교회 이기주의 때문에 벌어지는 갈등을 고난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독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아직 완료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지평에 근거해서 생각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인간의 고집으로 점철되는 이 세상과 투쟁하며, 이로 인해서 비난과 고난을 받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의 모든 정치, 경제 구조에 일일이 간섭하자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표징들을 내보임으로써 인간의 힘을 과시하려는 모든 세력들이 전횡을 일삼지 못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이 참여하고 있는 각각의 삶에서 이렇게 살다보면 결국 감수해야 할 고난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경제적인 불이익이나 사회적인 고립감 같은 것들이 우리를 압박할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당한 일이 오히려 복음을 촉진시키는 기회가 되었다는 사실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설명합니다. 아마 바울이 감옥에 갇힘으로써 여러 사람들이 더욱 용기를 내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런 설명은 아주 사실적으로 들립니다. 모두들 사태 추이를 관망하고 있는 차에 바울이 투옥되었다는 소식은 분명히 강력한 자극이 되었을 것입니다. 큰 고난이 현실로 나타나면 작은 고난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법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당한 일과 복음의 촉진을 연결시켜서 바라볼 수 있었다는 데에 위대한 점이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입장에서만 사물을 바라보기 때문에 감정에 치우치거나 이해타산에 기울어지기 마련입니다만, 바울에게는 복음의 일이 자기의 개인적인 일보다 더 중요했습니다. 이는 그가 오직 복음을 전하는 일에만 집중해서 살았다는 말인데, 기독교 신앙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자신에게서 일어나는 일을 통해서 복음이 어떻게 촉진되고 있는지 눈

여겨볼 수 있도록 자신을 초월하는 힘입니다. 이럴 경우에만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본능적으로 자기 중심에 묶여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우리 인간이 과연 자기를 초월해서 복음의 일에 우선권을 두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이 실제로 가능합니까? 단순히 종교적이고 윤리적인 요설에 불과한 것은 아닐까요? 물론 이런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일에 온전히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마 6:33).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 연관되지 않는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은 너무나 미미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아무 것도 성취할 수 없습니다. 인생 전체를 소비하면서 이룩한 일이라고 해도 바닷가의 모래 한 알만도 못합니다. 그것이 비록 엄청난 과학적 발견이었든지, 세계 정치사적 사건이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 이후의 부활을 선포하는 기독교의 복음이 아니라면 어떤 사건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바울은 이런 부활의 희망 안에서 자기가 당한 고난을 오히려 복음이 촉진되는 계기로 보았습니다. 즉 그에게는 고난의 이면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다름”을 극복하는 길

15절-17절의 내용은 약간 의아하게 들립니다. 바울의 입장이 아주 미묘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바울이 투옥됨으로써 복음이 촉진되는 계기가 된 것만은 분명한데, 바울에 대해서 호의적이었던 이들과 적대적이었던 이들이 서로 제 각각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15절) 그리스도를 전파했다고 합니다. 투기와 분쟁으로 일하는 이들은 투옥된 바울을 괴롭히고자 했으며(17절), 착한 뜻으로 일하는 이들은 바울의 권위를 세워 주기 위해서 했다고 합니다(16절). 우리가 볼 때 그렇게 위대했던 바울에게도 기독교 내에서조차 적지 않는 적대자들이 있었다는 것은 참으로 역설적이면서도, 또한 당연한 일입니다. 진리라고 해서 늘 어디서나 인정받는 게 아닙니다. 그게 바로 인간 세상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일반론적 시각은 일단 접어두기로 하고, 바울의 다른 서신에서도 종종 언급되고 있듯이 좋은 뜻이건 나쁜 뜻이건 적지 않은 이들이 바울을 대적하게 된 구체적인 요인이 무엇인가를 잠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첫째,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반대하게 된 요인의 하나는 그의 급격한 변신입니다. 바울은 원래 유대교에 철저한 사람이었습니다. 거의 근본주의에 가까울 정도로 유대교에 열성적이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변신했다는 사실은 그의 주변에서 직,간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던 사람들을 당혹스럽게 했을 것입니다. 특히 바울과 함께 기독교를 박해하던 이들은 심한 배신감을 느꼈을 것입니

다. 그의 변신은 유대교 측 인사들만이 아니라 사실은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도 상당히 오랫동안 그를 경계의 대상으로 여기게 했습니다. 그가 다메섹 회심 사건을 통해서 기독교로 개종한 다음에 사도들이 중심으로 이루어진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했을 때 별로 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가 고향인 다소로 돌아가서 은거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감안해본다면 오히려 냉대를 받았을 가능성이 몹시 큼니다. 사실 우리의 상식적인 관점에서 보면 바울의 변신은 그렇게 수궁이 갈만한 일은 못됩니다. 나이가 어린 사람도 아니고 이미 장년이 된 사람으로서 다메섹 도상에서 환상 중에 부활한 예수님을 보았다는 한 가지 근거로 자기의 삶을 완전히 뒤바꾼다는 것은 그를 신뢰하기 힘든 사람으로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다는 자신의 전력 때문에 다른 사도들에 비해 훨씬 어려운 상황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둘째, 사도 바울의 신학적 극단성이 주변에 많은 적대자들을 만들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거의 유대인들로 구성되어 있던 초대 기독교의 기독교인들은 비록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라는 신앙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난날 그들의 종교적 기반이었던 율법을 신앙 생활의 중요한 요소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철저히 반율법적인 입장에 섰습니다. 이런 율법 문제에서 바울은 베드로를 책망할 정도로 극단적으로 대립했습니다.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던 중에 할례자들이 그 자리에 오자 그들을 의식해서 자리를 떴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를 나무랐습니다(갈 2:11 이하). 예수님의 수제자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명실상부하게 일인자였던 베드로를 책망할 정도였으니 다른 사람들에게야 오죽 했겠습니까? 율법을 통한 경건 생활은 누가 보아도 아름다운 신앙적 전통이었기 때문에 초대 교회 당시에 논란이 된 율법 문제는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한 다음에 사도들은 여전히 성전을 드나들며 기도 시간을 지켰으며 여전히 율법을 충실히 지켰습니다. 사실 바울도 경우에 따라서는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하기도 하고 다른 제자들에게 정결 예식을 실행하게 했습니다. 바울이 주장하는 바는 유대파 기독교인들의 율법 준수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이방인 기독교인들에게만큼은 그런 부담을 덜어주자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책망할 때도 역시 그런 논리를 폈습니다. 어쨌든지 이렇게 미묘한 사안이었기 때문에 초대 교회의 지도자들은 공연히 문제를 일으키고 싶어하지 않았지만, 바울은 일관되게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강요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방인 기독교인들의 율법 문제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다루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 유명한 예루살렘 종교회의(행 15장)입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촉발된 이방인 기독교인의 율법 문제는 예루살렘 종교회의에서 이렇게 매듭이 났습니다.

이방인 기독교인들은 우상의 제물, 피, 목매어 죽인 것, 음행, 이상의 네 가지만 멀리하면 그 이외의 율법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말입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 기독교 안에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던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누가 하라 말라 말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들과 바울 사이에 율법으로 인한 갈등이 끊임없었다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분명합니다. 어쨌든지 평생 동안 이런 율법주의와의 투쟁에 몸을 바친 바울 덕분에 오늘 우리 이방인 기독교인들은 율법의 강제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굳이 트집을 잡기 위해서 극단적으로 행동할 필요까지는 없겠지만 복음의 본질을 수호한다는 점에서는 비록 적대자들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철저하게 행동하는 게 옳습니다.

자기를 반대하는 이들의 복음 전파를 바울은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어떤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기뻐하고 기뻐한다. 바울의 투옥은 그를 반대하는 이들의 입장을 보장해 주는 단서가 되기에 충분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생각했겠지요. 보라. 잘난 척 하던 바울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옳았다는 사실이 증명된 게 아니냐? 그러니 우리는 이 기회에 더욱 열심히 그리스도를 전하자. 물론 우리는 바울과 적대적이었던 이들과의 갈등이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지 자세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기독교 복음의 근본에 대한 갈등이기보다는 인간적인 대립 정도가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바울은 언젠가 2차 선교여행을 떠나면서 믿음의 동지인 바나바와 아주 사소한 문제로 다투다가 결국 각자 제 갈 길로 간 적이 있습니다. 바나바는 1차 때 동행했던 마가를 이번에도 데리고 가고 싶어 한 반면에 바울은 그가 성실하지 못한 젊은이라는 이유로 제외시키자고 주장하다가 각각의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헤어진 것입니다(행15:36-41). 아무리 신앙적으로 돈독하더라도 인간은 역시 이런 자기 한계를 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나바와 바울은 복음의 본질 때문에 대립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전하는 방식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 교회의 일치라는 점에서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본문의 경우도 이런 정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외모로 복음을 전파하는 이들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니까 기뻐한다는 바울의 자세는 오늘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외모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일은 그런 방식으로 일어난다는 바울의 가르침은 오늘 우리가 어떤 자세로 예수 그리스도의 일에 참여해야 하는가에 대한 시금석입니다. 즉 복음 전파의 비밀을 전제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복음 전파는 우리의 방식, 우리의 계획대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진행되는 사실을 말입니다. 만약 이런 비밀을 전제하지 않는

다면 기독교 교회는 자기들 뜻에 맞는 사람들만, 저 잘난 사람들끼리만 서로 몰려다니면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일을 독차지하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게 될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눈에 외모로 일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가 참견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격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 그분의 방식으로 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뿐이기 때문에 남을 판단하는 일은 아주 조심스러워야 합니다. 자기와의 친소 관계로 상대방의 행동을 재단하지 말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일을 중심으로 판단할 때 우리는 이런 인간적 “다름”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4. 죽음과 삶의 경계에서

1:19-26

이것이 너희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대 무엇을 가릴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였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인하여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현안을 넘어서 절대적 삶으로

우리가 19절 말씀부터 선택했습니다만, 좀더 정확하게 나누려면 18절 후반 절부터 19절로 이어지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닐카의 주석에 따르면 18절 전반 절의 동사 카이레인(기뻐하다)가 18절 후반 절에 거듭해서 사용되고 있는데, 이 두 번째의 카이레인은 19절 말씀과 연결됩니다. 이렇게 번역될 수 있습니다. 18a 그러나 어떻습니까? 하여간에 구실로 하든지 진정으로 하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점에 대해 나는 기뻐합니다. 18b 그러나 나는 앞으로도 기뻐할 것입니다. 19 왜냐하면 여러분의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지원으로 이것이 내게 구원이 되리라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때의 기쁨은 앞서의 기쁨보다 훨씬 강화된 것입니다. 그닐카는 그 부분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이 때뿐만이 아니고 나는 또한 미래에도, 그때에야말로 한층 더 기뻐할 것입니다.(국제성서주석, 한국신학연구소, 124,125).

앞에서 바울이 자신의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반대자들의 활동을 인정할 수 있었던 힘은 자신에 대한 관심보다는 하나님의 일에 대한 관심이 더 컸기 때문이라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그저 단순히 그의 희생정신이나 양보의 미덕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더 근본적인 것에 대한 관심을 의미합니다. 그는 자신에게 임한 곤란한 상황들이 결국 구원받는 길이라는 점을 확신했습니다. 이것이 ...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압니다. 바울이 여기서 옅기서 13:16을 인용해서 “내 구원”이라고 말한 것이 단순히 감옥에서 석방되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는 이미 살든지 죽든지(20절)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초월했습니다. 그는 자기의 삶을 구원에 이르는 과정으로 보았기 때문에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넉넉한 데나 부족한

데나 아무 상관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빌 4:12). 그가 바라보고 있는 구원(소테리아)는 마지막 심판에서 경험하게 되는 최종적인 구원입니다. 사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은 이런 마지막 심판을 통해서 완성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세계가 곧 하늘이지요. 어떤 분들은 그런 심판 표상은 기독교인들의 사후 보상 심리가 기재로 사용되어 발생하게 된 결과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건 당연한 이치가 아닌가요? 물론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가 생각하듯이 기계적으로, 인과응보 식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모르는 방식으로 우리의 생명을 완성시키는 하나님의 고유한 행위입니다. 바울은 지금 그런 구원을 내다보면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저 막연하게 구원에 이른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렇게 된다고 했습니다. 지금 바울은 어떤 생각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빌립보 교인들의 기도를 통해서 그에게 구원이 임하게 된다는 기대입니까? 우선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변경시킬 수 없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드림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일조를 하게됩니다. 특히 바울의 경우에는 빌립보 교우들과의 신앙적인 관계가 매우 중요했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의 기도는 곧 바울의 생각과 행동에 큰 밑받침이 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기도는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지 몰라서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할 지 모를 때 성령이 말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해 주신다는 사실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기도는 결국 성령론으로 집중됩니다. 우리가 거룩한 영, 생명의 영을 하나님으로 믿고 있다면 영적인 일을 위하여 영적인 자세로 기도 드려야 합니다. 그런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활동하시며,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구원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렇듯이 바울은 자신이 처한 어려운 상황 앞에서 당황하지 않고 “내 구원”에 이르는 길로 이해하고 받아들인 반면에 우리들은 일반적으로 당면한 문제에만 급급한 채 살아갈 뿐입니다. 그 일을 해결하는 것이 자신에게 궁극적으로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판단하지도 않고 무조건 그런 현안에만 매달려 삽니다. 우리가 바울에게서 배워야 하는 신앙적 자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기가 살아가는 인생 길을 여러 개의 현안이 아니라 하나의 궁극적인 목표로 집중시키고 있다는 것 말입니다. 그는 꺾대를 향하여(빌 3:14)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자세가 아니면 우리는 결코 기독교적인 신앙을 유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우리의 현실을 직관할 수 있다면 바울의 가르침이 상식적인 차

원에서도 역시 참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매 순간에 닥치는 일들은 그것 자체로 좋거나 나쁜 게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자세에 따라서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사물과 사태는 양면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우리의 현재적 삶을 지배하고 있는 돈만 해도 그렇습니다. 돈을 많이 가져야만 행복하다는 명제는 전혀 설득력이 없으며, 역으로 돈이 없으면 불행하다는 명제도 역시 전혀 설득력이 없습니다. 대개의 경우에 많은 돈은 우리의 소비욕을 증가시킬 뿐입니다. 물론 돈이 있어야 자녀들의 교육도 가능하고, 큰 병이 들었을 때 치료를 받을 수도 있고,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만, 분명한 사실은 온갖 취미생활을 즐긴다고 해서 행복이 보장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로마의 콜로세움 경기장에서 환호성을 지르던 로마 귀족들이 그것으로 충분히 만족하지 못한 것처럼 오늘날도 프로 스포츠나 문화활동에 열광한다고 해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처음 얼마간은 재미가 있겠지만 그 기간이 지나면 지루해서 못 견디고, 또 다른 것을 찾아 나섭니다. 사실상 참된 행복과 기쁨은 그렇게 많은 돈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 행복과 기쁨은 우리가 어디에 삶의 무게를 놓고 살아가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바울의 경우에는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었습니다. 곧 부활의 세계이며, 생명의 세계이며, 기쁨과 평화의 세계였습니다. 지금 우리도 바울처럼 그런 세계를 희망하고 기다립니다. 이런 기다림과 희망이 있다면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삶의 과정에 연연해하지 않고 오히려 구원에 이르는 길로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삶과 죽음

자기가 처한 상황을 구원에 이르는 길로 여긴 바울은 이제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만을 생각한다고 했습니다(20절). 그리스도가 바로 자기의 생명이라면 지금 죽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이 바로 생명을 얻는 것이기 때문입니다(21절). 우리와 같은 보통 사람들은 하루 하루의 삶에 매달린 채 여하한 방법을 빌려서라도 자기가 확인할 수 있는 생명 현상을 풍요롭게 만들고 연장시키려고 하는데, 바울은 삶과 죽음을 어떻게 인식했기에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는지 놀랍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가 바로 자기의 생명이라고 했는데, 어떤 사람이 살아 있다는 것은 심장과 뇌의 활동이 정상적으로 움직인다는 것을 의미한다면 바울의 이 말은 약간 다른 차원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더라도 죽어 가는 사람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할 수는 없는 일이니까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우리의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의 메시아적 사명이 기독교인들에 의해 계속된다면 그리

스도가 항상 살아있는 셈이 되니까 말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생각해 보아도 바울이 그런 뜻으로 그리스도가 자기의 생명이라고 말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은 정치가나 예술가들의 활동에 어울리는 말입니다. 바울은 아주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생각했으며, 이에 근거해서 인간의 보편적인 부활까지를 내다보면서 그리스도가 자기의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세계는 곧 예수님이 약속한 아버지의 집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상에서 경험하는 모든 생명 현상을 뛰어넘는 궁극적 생명의 세계입니다. 이런 희망에 근거해서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만을 원한다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궁극적 생명의 세계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을 그릴 수는 없다 하더라도 그런 세계가 있다는 가능성의 근거들은 설명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기독교의 가르침은 주변을 설득시키지도 못하는 자기 확신에 불과할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만 설득력이 있는 이런 독백에 귀를 기울일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근거들을 안타깝지만 적극적인 방식이 아니라 소극적인 방식으로 찾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의 방식으로 설명하셨듯이 우리도 역시 간접적인 방식으로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이런 설명을 변명하는 차원에서 일단 다음과 같은 논의로부터 시작합시다. 사물에 대해서 적극적인 방식으로 연구하고 설명하는 과학자들이라 하더라도 생명 자체에 대해서는 별로 말할 게 없습니다. 심장이 피를 돌려야만 인간의 생명이 유지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증명할 수 있지만 왜 그래야만 하는지는 말할 수 없습니다. 심장 활동이 없이도 생명이 가능한 곤충들이 있고, 피가 없이도 살아가는 단세포 생명체들이 있다는 사실을 보면, 결국 심장과 피가 바로 생명 자체는 아니라는 말이 됩니다. 이 지상에 가득 찬 생명 현상들은 왜 이런 모습과 이런 원리들을 갖게 되었을까요? 이런 방식이 아닌 다른 생명 방식은 가능하지 않을까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생명은 과학적으로, 실증적으로 설명이 가능하지 않은 신비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명을 신비라고 부른 것은 시간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예측을 벗어난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지구 안에서 살아가는 생명체들이 일 억 년 후에 어떻게 변화되어 있을지 전혀 예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우리의 척도로 측량할 수 없듯이 생명의 미래를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현재의 모든 존재가 그 참된 모습을 완전히 드러내게 될 생명의 세계는 미래라는 시간 속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그 미래의 세계에 우리가 참여할 때만 우리는 영원한 것과 관계될 수 있습니다. 이런 사건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종말에 이루어질 생명의 세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일어났다고 믿습니다. 그의 부활은 이런 궁극적 생명의 선취라고 말입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생명이라고 진술하는 바울의 고백은 설득력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

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리고 부활한 예수님을 경험한 바울의 고백에 근거해서 이 사실을 믿고 희망합니다.

이런 부활과 궁극적 생명의 세계에 대한 희망이 없다면 지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비록 위대한 능력을 보일 수 있는 사람이라도 아주 짧은 시간 안에서만 잠시 있다가 사라질 뿐입니다. 45억년 전에 생긴 지구 자체도 얼마간의 시간이 흐르면 태양과 함께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주에 있는 모든 별들도 그런 유한한 시간 속에 있습니다. 이렇게 무상하고 잠정적인 일에만 우리의 삶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이 세상에서 의미 있게 할 일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저 배불리 먹고 즐겁게 노는 것 이외에는 아무 것도 할 일이 없습니다. 어쩌면 그것 자체도 부질없는 일에 불과하겠지만 말입니다. 근본적으로 이 땅에서 끝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세계가 아니라면 시간의 흐름과 함께 모든 것이 사라지고 만다는 점에서 허무주의에 빠지는 게 당연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이런 것과는 결정적으로 다른 세계를 희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취적으로 다가오게 된 부활의 세계가 그것입니다.

부활의 생명 세계를 희망한다는 것은 곧 죽음을 진지하게 생각한다는 사실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부활과 생명은 곧 죽음과 반대개념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처음부터 죽음을 신앙의 초석으로 삼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의 밀 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죽음과 생명의 관계를 확실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 스스로 지상적인 삶을 십자가에서 끝맺으심으로써 부활의 생명을 얻으셨습니다. 초대 교회 때부터 기독교 신자들은 세례를 통해서 죽음을 경험했고, 성례전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피를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순교도 많이 당했습니다. 이렇게 죽음과 연관된 일련의 사건과 표징들은 기독교가 어떤 방식으로 생명의 세계를 지향하는지 분명하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죽음으로서 생명을 얻는다고 말입니다.

이런 점에서 기독교는 생명과 죽음에 대해서 이 세상의 생각과는 정반대로 생각합니다. 살려고 하는 자는 죽고, 죽으려 하는 자는 살게 될 것입니다. 부활의 희망 안에서 모든 지상적인 죽음의 세력들과 대결합니다. 인간의 계획과 의도를 거슬러서 발생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기독교 교회가 생명을 얻는 길은 그리스도는 내 생명입니다라는 바울의 고백에 있습니다. 현재 지상에서 교회의 힘을 확장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미래로부터 우리에게 다가오는 궁극적 생명의 선취라 할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을 의지하는 방식에서 교회는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감추어진 방식으로, 미래로부터, 현재를 초월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그리스도의 생명에 참여하는 길 이외에는 어디에도

참된 생명에 이르는 길이 없습니다. 이런 자세를 견지한다면 오늘 우리 교회는 살든지 죽든지 진리와 생명을 향해서 정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허무주의와 욕망을 넘어서

바울은 어떤 면에서 이미 삶과 죽음을 초월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만을 생각한다면 하루라도 빨리 지상의 삶을 끝장내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영광의 삶을 택하고 싶지만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 여전히 살아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앞의 선택은 자신에게 좋은 길이며, 뒤의 선택은 다른 사람에게 유익한 길이었습니다. 바울은 어떤 생각에서 이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고 했을까요? 그는 허무주의자인가요? 심각한 염세주의자인가요? 생명의 환희와 자유를 알지 못하는, 무언가 정신 치료를 필요로 하는 피해망상가인가? 만약 그가 이렇게 부정적인 의미에서 공격적인 사람이었다면 어떤 사이비종파의 교주처럼 함께 죽자고 주변 사람들을 부추겼을 텐데, 그는 한번도 그런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보다 가치 있는 삶을 이루어가도록 가르쳤습니다. 바울이 현재의 삶을 떠나서 다른 생명 세계에 있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이 좋다고 말한 이유는 그가 보다 궁극적인 생명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이런 고백이 어느 정도나 타당성이 있는지 잠깐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사실 우리의 인생살이를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하는 일들이 매일 똑같습니다. 매일 먹고, 마시고, 배설하고, 그리고 자기의 계획을 성취하고, 취미생활을 열성적으로 합니다. 판넨베르크의 표현대로 사람들은 노동과 오락 사이를 다람쥐 쳇바퀴 돌 듯이 오가며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분과 초를 아껴가며 일을 하고 그것으로 인해 얻어진 힘으로 살림살이를 늘리고, 여행을 하고 자녀들을 교육시킵니다. 이것 자체로는 상당히 지루한 인생살이입니다. 이런 일들은 십 년 정도 하면 끝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일 년이면 더 이상 필요없는 일들도 많습니다. 칠, 팔십 년 평생 동안 똑같은 일을 되풀이하며 산다는 것은 매우 피곤한 일입니다. 인간의 가장 고급스러운 행위라 할 학문, 예술, 봉사활동이라는 것들도 우리를 완전히 만족시켜주지 못합니다. 나름대로 성취감을 줄뿐이지 인간 실존의 지루함을 근본적으로 해결시키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지루함을 피해보려고 온갖 노력을 다 합니다만 그런 것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흡사 어린아이였을 때 그렇게도 재미있던 소꿉놀이나 인형놀이가 나이가 들면 시들해지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우리는 지금 나이만 들었지 정신적으로는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세상살이에 그렇게 열을 올리고 있는지도 모르죠. 태양 아래서 이루어지는 인간의 모든 행위가 헛되다고

말한 전도서의 주장은 우리가 현실을 좀더 냉정하게 들여다본다면 오늘도 여전히 틀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인간의 삶에는 허무주의가 자리잡을 공간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허무주의는 삶의 욕망이 강하면 강할수록 훨씬 강렬하게 작용합니다. 삶의 의지가 훨씬 강화된 현대에 이르러서 허무주의의 열매가 풍성해졌다는 사실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허무주의를 극복하려면 우선 삶에 대한 지나친 욕망이 극복되어야 합니다. 삶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지 않고 자기를 확대하는 것에서 채워가려는 이 욕망은 생명력을 강화시켜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허무하게 만들뿐입니다. 예컨대 남녀의 성행위를 생각해보십시오. 그것은 매우 강렬한 욕망으로 작용합니다만 그 욕망이 자기를 만족시키는 데에만 사용되었을 때 대개는 허무합니다. 식욕은 어떻습니까? 그것 자체는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만, 그것이 남을 파괴하고 획득되어지는 경우에는 아무런 기쁨이 없습니다. 스포츠의 경우에도 똑같습니다. 시합에서 승리할 경우에 느끼는 기쁨은 아주 짧습니다. 더욱 큰 승리를 향해서 자기를 힘들게 하고 그것이 달성되지 않는다는 두려움 때문에 초조하게 되고, 그것이 달성된다고 해도 역시 허무함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합니다.

비록 삶의 내용이 허무하기는 하지만 육체의 삶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을 택하고 싶다는 바울의 말이 허무주의적인 발상에서 나온 것은 아닙니다. 허무주의라고 한다면 그가 빌립보서에서 기쁨을 말할 까닭이 없습니다. 그는 생명을 우리가 이 땅에서 성취해 가는 그것보다 훨씬 거대한 차원에서 생각했습니다. 지상에서의 삶으로 끝장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초월하는 생명으로 말입니다. 그에게는 그리스도가 그의 생명이었기 때문에 죽는 것도 역시 유익하다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21절). 이렇듯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희망에서만 예수님의 행위와 사건은 의미가 있으며, 순교자적인 기독교의 전통도 역시 의미가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육체 안에 거하는 것이나 그것을 떠나는 것이 작은 문제였기 때문에 비록 하루 빨리 부활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을 원했지만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육체 안에 거하는 길을 기꺼이 택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유익한 길이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복음 안에서 교제를 나눔으로써 서로가 생명의 세계에 깊이 들어갈 수 있다면 살아 있는 게 참으로 유익합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여전히 이렇게 질문하고 싶으실 것입니다. 사는 게 작은 문제라고 생각하는 건 무언가 잘못된 게 아닐까? 실제로 두 발을 땅에 딛고 사는 구체적인 삶이 있어야 그것을 초월할 수 있는 하늘 나라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육체로 사는 삶을 소중히 여겨야 하며, 또한 바울처럼 영적으로 심원한 차원에 도달해 있지 않은 대개의 사람들에게 이해

되지 않는 생명을 말한다는 것은 무의미한 게 아닐까?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긴 합니다만 우리가 기독교 신앙으로 살기를 결단했다면 아무리 현실의 삶이 절실하다고 하더라도 그 삶이 나아가야 할, 더 정확히 말해서 현실의 삶을 결정하는 하나님의 거대한 생명의 세계를 인식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만 합니다. 그 하늘 나라, 그 하늘의 생명을 향한 총체적 노력이 바로 기독교 공동체의 토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지 죽음과 삶의 경계에서 바울은 아직은 육체로 살아가는 이 삶을 선택합니다. 비록 유한하고 잠정적이지만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이 지상적 삶 안에 남기로 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도 역시 자기가 원하는 것만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필요한 것을 택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사회 생활에서도 그렇습니다만 교회 생활에서 이런 선택은 아주 중요합니다. 어떤 것이 자기의 마음에 드는 것인가의 기준이 아니라 어떤 것이 교회의 덕을 위해서 필요한 것인가의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들끼리 모여있다고 하더라도 자기의 마음에 드는 것만을 기준으로 판단하게되면 서로의 성격이나 인격이 다르기 때문 서로 상처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서로간에 다른 사람에게 유익한 것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면 그리스도의 덕이 드러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5. 복음의 전투적 성격

1:27-30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병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병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칭찬만 하거나 위로만 하지 않고, 오히려 복음으로 권면하고 도전했습니다. 칭찬과 위로는 듣기 좋은 말이지만 강력한 권면은 부담스러운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른 길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그는 고난과 싸움이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바울의 경우에 기독교인의 삶은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고난이며 싸움이었습니다. 그의 생각은 전적으로 옳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통치가 세상에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미래로부터 다가오는 하나님의 통치에 근거해서 살아가는 기독교인의 삶은 이 세상에서 갈등을 겪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건성과 윤리의 한계

기독교인의 본질이 싸움이라고 해서 사사건건 문제를 만들고, 공연히 트집을 잡는다는 말은 아닙니다. 오히려 분쟁이 있는 곳에서 화해를 일으키고 나누인 곳에서 일치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따라서 기독교인의 싸움이라는 것은 대단히 포괄적이면서도 동시에 아주 제한적인 의미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그 경계는 바로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의 싸움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들은 복음(유앙겔리온)에 합당한 삶을(본서 32쪽 이하 참조) 아래와 같이 두 가지로 생각합니다.

첫째는 완전한 경건생활입니다. 성수주일, 십일조, 기도생활, 전도, 교회봉사를 복음으로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이런 행위들은 물론 신앙생활에서 권장되어야 할 요소들이기는 하지만 기독교의 복음 자체는 아닙니다. 복음은 그야말로 인간의 어떤 능력이나 노력으로 가능하지 않은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소식이지 우리의 온갖 수고로 채워가야 할 어떤 목표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상당한 경우에 이런 경건 생활을 복음의 내용으로 간주하다보니 교회와 신앙생활에서 억지스러운

일들이 일어나며, 기쁨이 아니라 부담만 가중됩니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자들을 편히 쉬게 해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는데, 교회는 오히려 신자들에게 그런 짐을 무겁게 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복음의 왜곡입니다.

둘째는 완전한 도덕성입니다. 어느 정도 현대화되었다고 생각하거나 지성적이라고 생각하는 교회에서는 기독교인의 윤리적인 책임을 강조합니다만, 이런 윤리와 도덕도 역시 권장될 사항에 불과하지 복음 자체는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정말 복음이라면 도덕적이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당연히 타당해야 하는 게 아닐까요? 복음은 윤리를 뛰어넘는(metaethics) 문제라는 말입니다. 간음죄로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에게도 유효한 사건이며, 생존에 급급하여 고압한 윤리 문제와 무관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유효한 사건이어야 합니다. 이마누엘 칸트는 실천이성 비판에서 이런 윤리적 지평에서만 하나님의 존재가 당위성을 갖는다고 말했습니다만, 이는 아마 그가 기독교의 복음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기독교를 단순히 종교 일반의 차원에서 바라보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종교적 경건과 도덕적 실천에서 거의 완벽했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가장 첨예하게 대립했다는 사실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런 경건이나 도덕의 지평과 얼마나 근본적으로 다른지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바리새인들은 인간의 품위를 가장 고상하게 드러내주는 종교와 윤리에서 가장 모범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만 예수님이 볼 때 그런 행위는 인간의 자기 확신이었으며, 따라서 위선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경건과 도덕은 그것이 강화되면 될수록 인간으로 하여금 그것을 의지하게 할 뿐이지 인간과 생명을 사랑하게 하지는 못합니다. 이미 예수님에 의해서 이런 율법주의적인 패러다임이 극복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의 교회가 신자들을 이런 종교적 경건과 도덕적 실천에 머물게 한다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태도입니다.

사람들이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나서 너무나 쉽사리 경건성과 도덕성으로 떨어져 버리는 이유는 복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반면에 그것들은 너무나 분명하게 가시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자기 재산을 다 바쳐서 교회당을 짓는 일은 눈에 확연히 드러나며, 40일 금식 기도를 한 사람은 교회에서 주목받습니다. 정기적으로 고아원이나 양로원을 방문하는 일도 우리 손에 확실하게 잡힙니다. 원래부터 인간들은 눈에 보이는 이런 일을 가장 확실한 것으로 믿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모세는 십계명의 첫 머리에서 하나님을 위한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오늘의 세계가 외면적으로 여전히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힘들에 의해 지배받고 있다는 사실도 역시 이를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구원과 생명의 문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에서 해방되고 죽음에서 부활한다는 희망에 관한 사실입니다. 누가 더 잘 사는가, 누가 더

세련되었는가, 누가 더 아름답고 건강한가, 누가 더 착한가, 누가 더 기도를 잘하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하나님의 생명에 연합되어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임했다.”는 소식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가까이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기 위한 준비로서 오직 한 가지만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라가 가까이 임했오.(마 3:2, 막 1:15). 이 예수님의 요청은 너무나 간단했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명에는 너무나 가볍습니다. 그 당시에 무식했던 사람들, 경건하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이 말씀은 너무나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만, 반면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준비를 많이 한 사람들에게는 매우 불쾌한 소식이었습니다. 그저 회개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면 자신들이 평생에 걸쳐 쌓아놓은 모든 업적은 휴지가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의 명예와 부는 물론이고, 경건과 도덕, 종교와 사회 체제까지 물거품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이것이 밀지는 장사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기준이 다만 “회개”뿐이라는 가르침은 사실 쉬운 게 아니라 감당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회개라는 뜻의 헬라어 “메타노이아”는 삶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행한 몇 가지 부도덕한 행위를 뉘우치거나 교회생활을 등한히 한 것에 대해서 반성하는 일은 아주 쉽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삶의 방향을 바꾸는 일은 자기의 능력과 업적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한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기도 시간을 대폭적으로 늘릴 수는 있고, 헌금을 세상이 깜짝 놀라게 할 수도 있고, 봉사 생활을 뼈가 부서질 정도로 할 수는 있습니다만 자기의 업적과 능력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일은 근본적으로 회심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 협력하라(27후)고 말합니다. 우리 개역성경에는 일심으로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원래는 여러분이 한 영 안에 굳게 서서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서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능하게 하는 영적인 삶이 필요합니다. 이런 삶의 결과로 신자들은 같은 마음을 갖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규정되어야 한다는 말이 됩니다.

복음 지향적 구조

이런 점에서 기독교인의 삶은 바울이 정의하고 있는 대로 일종의 “싸움”입니다. 복음을 위한 싸움입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복음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의 삶이라는 말입니다. 복음을 율법의 범주로 격하시키는 이들과의 싸움에서

선봉에 선 바울은 자기만이 아니라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야 할 빌립보 교인들도 역시 이런 싸움에 나서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이 약간 격한 어조로 호소하고 있는 이 싸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내용이 무엇인지 어느 정도 이해할 수는 있지만 정서적으로는 충분하게 동감할 수 없습니다. 그가 처한 상황이 우리의 상황과는 너무나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마틴 루터가 처한 상황이 바로 바울과 같았던 게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의 칭의가 믿음으로만이 아니라 행위로 보충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대세를 이루고 있을 경우에 오직 믿음으로만 의로워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의 신앙적 실존을 “싸움”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전투적인 자세가 없으면 대세에 휘말려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대적하는 이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복음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지만 빌립보 교인들에게는 구원의 증거라고 웅변조로 강조합니다(28절).

비록 우리의 상황이 율법주의자들과 첨예하게 대립했던 바울의 상황에 비해서 훨씬 원만하다고 하더라도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야 한다는 명제를 우리 신앙의 초석으로 삼는다면 오늘도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싸운다는 자세로 살아야 합니다. 두 가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복음을 위하여 율법적인 가치에 의해서 작동되고 있는 세상과 싸워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문명이 발달할수록 바벨탑과 같은 인간의 업적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선진국은 선진국대로, 제3세계는 그들대로 한결같이 발전해야겠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특히 1990년 어간에 휘몰아친 현실 사회주의의 몰락으로 인해서 자본주의가 오늘의 메시아니즘으로 자리를 굳혀가고 있습니다. 경제와 과학 만능주의, 생산성 획일주의, 경쟁구조와 오락물이 인간 위에 군림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정신 속에서는 하나님은 고사하고 인간의 자유와 평화도 오히려 퇴보할 뿐입니다. 모든 개인과 모든 나라가 남보다 잘 살아야만 행복하다는 신념에 빠져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아무도 행복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의 사회 체제와 설계들이 사람들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만들어준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들은 어떤 이유로 자신들이 풍요롭게 살게되었는지 별로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고 현재의 조건만을 즐기려고 합니다. 독일 사람들이 정말 행복할까요? 아니면 스위스 사람들입니까? 물론 민주적인 사회 체제가 굳건한 나라에서는 그나마 인간의 인간다운 삶과 자연과의 일치가 어느 정도 배려되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역시 어느 한계 안에서만 타당할 뿐이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막1:15)는 복음의 기준에는 참으로 요원합니다. 일종의 혁명적 자기 변혁이라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방향을

바꾸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 한 그들의 경건과 도덕성은 자기 과시이고 자기 만족에 불과합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그럴듯하게 보일 수는 있지만 구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대안은 무엇일까요? 대안 없이 무조건 현실 체제를 비난하는 것으로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싸운다고 변명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물론 당장 이스라엘과 팔레스틴 해방기구 사이의 싸움을 해결할 수 있는 뾰족한 수가 우리에게 있는 건 아닙니다. 러시아와 체첸, 중국과 티베트 문제를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인이 어떤 사안에 접근하는 것은 정치나 경제적 논리나 아니면 사회 심리학적 분석이 아니라 성서적 전통과 신학적 해석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추상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세상의 미래와 종말에 대한 궁극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지 실용적인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니 당연하게 예언의 방식을 취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 예언에 근거해서 구체적인 대안은 담당자들이 모색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일종의 프로그래머로서가 아니라 예언자로서 이 세상과 경쟁하고 투쟁합니다. 참된 구원이 어디서 시작하는지, 인간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는지 복음에 근거해서 이 세상과 투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즉 인간의 구원은, 좀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인간의 기쁨과 평화와 자유는 인간의 능력이 나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추호도 흔들림 없이 선포해야 합니다.

둘째, 기독교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아무 주저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우선적으로 복음적인 구조로 갱신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의 복음화를 위해서 싸워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교회 자체가 복음인데 교회의 복음화를 위해서 싸운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앞서 말한 대로 복음적이라는 말이 인간의 가시적인 성과에 매어 달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는 신앙적 태도를 가리킨다고 할 때 우리의 교회가 여기서 과연 얼마나 자유롭겠습니까? 세상의 기업들처럼 우리 교회가 성장지상주의에 빠져 있다면 이는 곧 비복음적이라는 말이 됩니다.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을 중심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교회가 성장한다는 사실 자체는 매우 귀한 일입니다. 기독교 선교 1백여 년 만에 전 인구의 20% 가량이 신자가 된 한국 교회의 선교 역사는 2천년 기독교 역사상 전무후무하다고 합니다. 이런 저력으로 해외 선교, 신학자 배출, 사회 참여 등, 한국 교회는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양적인 성장 배후에는 그에 못지 않은 아픈 상처가 있습니다. 일백 여 개 이상으로 갈라진 교회 분열사는 접어두더라도 우리 교회에는 크고 작은 상처들이 많습니다. 최근에는 목회자의 세

습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자신이 평생 동안 키워온 교회를 자기 아들이나 사위에게 물려준다는 말입니다. 작게 보면 작은 일이지만 우리 교회의 진면목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그 무엇보다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대외명분으로는 교회의 발전을 말하지만 내심으로는 교회를 사유화하려는 태도입니다. 이런 사태 앞에서 교회는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만 존재한다는 사실을 좀 더 분명하게 목회의 명제로 삼아야만 교회의 복음적 정체성을 유지시켜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기왕에 말이 나온 차에 가장 우리 한국 교회의 현상 중에서 가장 비복음적이며, 따라서 모든 부정적인 문제들의 원인이라 할 교회성장 지상주의에 대해서 몇 마디 덧붙이고자 합니다. 물론 교회 성장의 당위성이나 긍정적인 요소들을 전제하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교회성장 지상주의는 실제로 기독교 교회 사이의 진정한 일치를 그 뿌리로부터 저해하고 있습니다. 교회 성장을 교회의 본질인 것처럼 생각하니 교회간의 일치가 부차적인 요소로 미루어지게 됩니다. 그것은 아주 당연한 이치입니다. 같은 지역에서 같은 대상을 놓고 서로 자신의 교회로 이끌어 오는 것만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교회끼리 경쟁을 펼치게 되고, 이런 경쟁은 상대방을 극복해야 할 대상으로 여기게 됩니다. 상생의 관계가 아니라 상극의 관계를 이루고 이쁜 셈입니다. 교회성장 지상주의는 목회자들 상호간에도 일치를 이루지 못하게 합니다. 큰 교회를 맡고 있는 목회자들은 어떤 모임에 참석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발언권을 갖지만, 작은 교회를 맡고 있는 목회자는 그의 생각이 아무리 정당하더라도 그만큼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큰 교회 목회자는 교만하게 되고 작은 교회 목회자들은 열등감에 빠집니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 모든 교회와 모든 목회자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그의 구원 사역을 선포하는 과업에서 일치감을 가질 수 있을까요? 사실 교회의 성장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볼 때 부차적인 요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히려 어떤 가시적인 힘이 아니라 그 힘의 본질이 무엇이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갈릴리 어부들에 의해서 시작된 예수님의 복음을 믿는다면 그 힘이 어떤 성격이어야 하는지 아주 분명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의 복음화는 모든 인간적인 설계와 염려를 접어두고, 비록 불확실한 것처럼 보이지만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 구원과 그 생명만을 집중적으로 추구하는 데에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개별 기독교인들과 교회가 전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데서 자신의 자리를 찾고자 한다면 결국 그것으로 인한 시련과 싸움까지 감당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공연히 시시비비에 휩쓸리는 일이라면 늘 물려서야겠지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한 투쟁이라면 그 어떤 시련이 기다리고 있더라도 기꺼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바울의 표현에 따르면 이것도 역시 하나님

의 은혜입니다.

6. 코이노니아의 원리

2:1-4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우리는 빌립보서 1장을 통해서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일반적인 형편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복음에 충실한 교회였다는 사실을 바울은 확신하고 있었으며, 앞으로 더욱 이 복음을 위한 싸움에 진력하라고 권면 했습니다. 이제 2장에서는 기독교인의 삶을 좀더 구체적으로 규정해주고 있습니다. 1-4절에 남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라는 충고가 있으며, 특히 5-11절에는 소위 “케노시스”(낮춤)라는 기독교의 근거가 되는 구절이 등장하고, 뒷 부분에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라는 두 명의 제자들이 소개됩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짐과 그것으로 인해 높아짐이라는 변증법적 구도 속에서 우리는 하늘 나라에서 낮은 자가 높아진다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게 됩니다. 과연 자기를 낮춤으로써 높아진다는 이 말이 타당합니까? 겸손함이 과연 기독교의 가치입니까?

바울은 1절에서 기독교인의 신앙적 특성을 네 가지 범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권면, 둘째는 사랑의 위로, 셋째는 성령의 친교, 넷째는 긍휼과 자비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의 구원을 통해서 서로 권면하며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의 구원보다 더 중요한 일이 우리 인간에게는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누구를 위로한다는 것은 사랑에서 출발하는 것이지 그 이외의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인의 삶은 근본적으로 성령과의 사귄(게마인샤프트)이라고 규정될 수 있습니다. 긍휼과 자비는 남을 향한 진실한 마음, 곧 열려진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화의 물꼬 트기

바울이 언급한 이러한 특성들은 결국 기독교인들의 일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으라(2절)고 했습니다. 다툼과 분열을 그 특징으로 하는 인간의 역사 안에서 기독교인이 구원론적 삶을 세상에 내보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표시는 아마 일치일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기독교인의 일치를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비록 하나의 복음 안에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교회였지만 여전히, 그리고 매우 확고하게 분열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늘 그런 싹을 키우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고린도 교회에서도 그랬습니다.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고전 1:12). 세상만이 아니라 교회도 역시 분열의 역사를 그 특징으로 하는 것을 보면 분열이 바로 인간의 어쩔 수 없는 숙명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창세기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바벨탑 사건은 우리에게 인간의 분열이 어떤 근원과 결과를 갖고 있는지 단적으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바벨탑을 쌓게 된 동기는 자신들의 능력으로 영원한 것을 건설해보자는 심사에 있었습니다. 결국 인간이 분열의 역사를 갖게 된 것은 자기집중, 자기만족, 자기확신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회 분열의 역사도 역시 이와 똑같습니다. 로마교회와 동방교회의 분열도 역시 서로간에 헤게모니를 잡기 위한 투쟁이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그런 자기집중이 없었다면 소위 “필리오 크베”로 일컬어지는 성령론에 대한 차이는 얼마든지 좁혀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과 루터 사이의 분열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우리 개신교의 입장에서 볼 때 루터를 파문한 교황청에게 분열의 모든 책임을 미루고 싶기는 합니다만, 그 이후 수 백년간에 걸쳐 우리가 보여준 교파분열을 감안한다면 그 책임에서 우리가 완전히 자유롭다고 확신할 수 없습니다.

창세기 4장의 보도에 따르면 바벨탑 사건의 결과는 인간들 사이에 이제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들의 능력을 만천하에 드러내 보이려 했던 이들은 그 능력은 커녕 오히려 산산이 흩어짐으로써 무력한 존재가 되어 버렸습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오순절의 방언 사건이 있기 전까지 모든 인류는 자신들의 생각을 서로 나눌 수가 없었습니다. 진정한 대화의 단절입니다. 대화의 단절은 힘의 대결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인류 역사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폭력적인 전쟁이 있었습니까? 그것은 오늘도 역시 이어지고 있으며, 내일도 역시 이런 운명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국가와 국가 사이는 물론이고, 같은 나라 안에서도 지방색에 따라서 대화가 단절되어 버렸습니다.

지난 9월11일에 있었던 뉴욕의 무역센터 테러 사건과 연관해서 벌어지는 행태는 인간 사이의 진정한 대화와 일치가 얼마나 요원한 일인지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수사했지만 아직 누가 범인인지 100% 확실하게 가려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마당에 비록 빈 라덴이 테러를 일으킨 장본인이라고 하더라도 그 한 사람, 혹은 그를 둘러싼 아프카니스탄의 텔레반 정부를 공격하기 위해서 수많은 민간인을 살상시킬 수밖에 없는 보복전쟁을 미국이 밀어붙인다는 것은 매우 무모하며 비지성적일뿐만 아니라 비신앙적입니다. 서로 신봉하는 종교가 다르고 이념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이 지구 안에 살아가고 있는 같은 인류라는 사실을 전제한다면 대화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마 어떤 분들은 그런 낭만적 사고방식이 테러리즘을 양산한다고 강변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테러의 발생 원인을 분석해 가면서 이 세상 사람들이 진정한 코이노니아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책임과 그 가능성이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훈련을 그렇게 많이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은 인간의 일치가 어디서 시작되어야 하는가를 암시해줍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과의 화해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인간의 분열과 대화단절이라는 것이 결국 인간의 자기집중에 기인하고 있다는 사실이 분명하다면 그 자기집중, 혹은 이기심과 교만을 해결하는 것이야말로 인간 사이에 진정한 일치를 이룰 수 있는 첩경일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서로 속내를 열어놓고 대화하지 못하는 이유는 자기가 피해를 보는 게 아닐까 하는 염려 때문입니다. 만약 자기의 마음이 진정한 평화와 기쁨으로 충만하다면 상대방을 적대적으로 생각하지도 않고 자기를 방어하려고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여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진정한 평화와 기쁨과 자유가 하나님과의 화해에서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인간적인 프로그램에 매달릴 게 아니라, 혹은 어떤 심리요법에 기댈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의 나라에 집중해야만 합니다. 거기서 인간의 진정한 일치가 가능하며, 그럴 경우에만 우리는 자기보다 남을 속마음에서 낫게 여길 수 있습니다.

언젠가 약간 보수적인 입장에 서 있는 목사님과 성서 영감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적이 습니다. 판넨베르크의 신학에 영향을 받은 저도 사실은 그 분보다 훨씬 근본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만, 그 분은 성서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씀하면서, 칼 바르트와 비록 자유주의 신학을 비판했지만 여전히 성서에 대한 역사 비평을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대화에서의 문제는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는 좀더 신학적으로, 혹은 신앙적으로 깊이 있게 대화를 하기보다는 자기가 이해한 범위 안에서 상대방을 예단해 버리기 때문에 대화가 안 되고 그저 자기 주장만 일방적으로 강요할 뿐입니다. 영감론이니, 근본주의니 하는 몇 가지 잣대로 판단하지 말고 어떤 사안을 객관적으로 접근해 들어가야만 대화가 가능합니다. 예컨대 성서에 오류가 없다고 믿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해야한다거나, 머리를 가려야 한다는 바울의 가르침을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성서는 오늘 우리와는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전혀 다른 세계관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보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거나 아니면 문화적인 차이로 인해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이런 난해한 문제들을 자기의 주관이나 감정이 아니라 사

실적인 차원에서 접근하게 된다면 최소한 대화의 물꼬는 트이리라고 생각합니다.

대화 단절의 문제는 반공 이데올로기에 사로 잡혀 있던 우리의 현대사에서도 매우 날카로운 특징으로 드러났습니다. 육이오 남북전쟁 때 굶주린 빨치산들에게 먹을 것을 주었다고 해서 그 사람을 빨갱이라고 단정해 버릴 수는 없습니다. 더구나 사람의 사상이라는 것을 어떤 틀로 찍어 맞출 수는 없습니다. 공산주의는 이런 점이 좋을 수도 있고 저런 점이 나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어떤 이념에 대해서 사실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지난 역사는 이런 사실적인 판단을 옹공주의라는 죄목으로 단죄해버렸습니다. 이런 전체주의적인 체제에서는 대화가 근본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마녀 사냥하듯이 어떤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전통과 습관에 근거해서 폭력을 휘두르기 때문에 분노와 분열만 깊어 갑니다. 남북한의 대립구도 속에서 기독교의 역할이 어떠했는지 알고 싶은 분은 김은국의 “순교자”와 황석영의 “손님”이라는 소설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에서 두 가지 예를 통해서 대화가 막히는 경우를 설명했습니다만, 이렇듯 어떤 전통이나 습관에 묶이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정직하게 바라보는 것은 곧 인간의 제도나 태도에 기울어지지 않고 하나님만을 직시하는 데서 가능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할 때만 우리의 경직된 마음은 성령에 의해서 자유로워지고, 따라서 상대방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진정한 대화의 숨통이 트입니다.

권위의식으로부터의 해방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다는 것은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노력과 성과가 상대적인 가치에 머물러야만 할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한다는 것은 자기의 수고와 노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총에 의지해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결국 우리가 진정한 의미에서 겸손해진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겸손에 근거하지 않는 한 우리의 모든 교양과 인간관계는 다만 다툼과 허영(3절)에 불과합니다.

바울은 여기서 다시 한번 율법주의자들의 근본적인 오류와 한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절대화하고 그것을 완벽하게 수행하는 데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율법주의자들의 모든 노력은 일종의 다툼과 허영이라는 말입니다. 이렇듯 경건의 모양에 치중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들과 다투게 됩니다. 그 다���은 곧 남에게 보이기를 위한 허영심의 본질입니다.

어거스틴이 인간의 원죄는 휘브리스(교만)이라고 했듯이 인간은 본성적으로 남

보다 앞서고 자기를 높이려고 하기 때문에 겸손하게 생각하고 행동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오늘 우리의 고급스러운 문화를 둘러보십시오. 모든 것이 자기를 드러내려는 시도입니다. 현대인들의 의식구조를 가장 강력하게 지배하고 있는 텔레비전의 방송 내용을 보십시오. 겸손이라는 가치는 그 어느 구석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공주병”이라는 유행어가 그냥 나온 것은 아니지요. 정치인들의 태도도 역시 겸손보다는 자기 과장이고 허영일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가끔 비치는 겸손한 태도도 역시 자기 자신과 시민들을 속이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가장 인간적인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육 현장은 어떻습니까? 흡사 기업처럼 경쟁력만을 가치 기준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인격적 결함의 문제라기보다는 인간이라는 종(種)에게 그림자처럼 따라붙은 숙명적 본질이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는 말이 됩니다.

이런 점에서 기독교인들은 자신의 도덕성이나 인격으로 겸손하게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존재론적 바탕에서 우러나오는 게 아니라면 참된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겉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억지로 겸손한 척 하고 살 필요는 없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소금이 자기의 짠맛을 늘 존재론적으로 소유하고 있듯이 그 안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겸손을 따라갈 뿐입니다. 겸손한 삶 자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님 안에서 생명의 리얼리티를 발견한 사람들에게서는 자연스럽게 이런 겸손함이 흘러나오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신앙이 참된 것인지 아닌지, 성숙한지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지를 분별할 수 있는 기준도 여기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기를 진심으로 낮추는 마음이 들면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사람이고, 여전히 교만하면, 억지로 겸손한 척 하는 것에 불과하면 여전히 어린아이의 신앙일 것입니다. 우리가 참된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 다툼과 허영이 힘을 발휘하는 이 세상에서 자신의 실존을 겸손에 둬으로써 새로운 선교적 사명에 충실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남을 자신보다 낮게 여긴다는 이 겸손의 가르침은 교회 안에서 특별히 지도자들이 귀담아 들어야 할 내용입니다. 목사님들은 그냥 있어도 드러나는 자리인데 자기 자리를 더욱 높이려는 모습들을 간혹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목사인데 내 말을 듣지 않을 수 있어? 내가 하나님의 종인데 내 말에 순종하지 않아? 이런 권위주의가 교회의 진정한 친교를 깨뜨리고 맙니다. 평신도의 지도자라 할 장로님들의 태도는 더욱 중요합니다. 만약 장로직을 교권으로만 생각한다면 그에게 평화와 기쁨의 영이 찾아올 수 없을 것입니다. 물론 겉으로는 교회 안에서 겸손한 것처럼 보이려고 애쓰는 모습이 있긴 하지만 그 중심에는 전혀 다른 마음이 들어가 있다는 사실이 문제입니다. 어떤 면에서 한국 교회의 갱신은 조직이나 제도에 앞서서 지도자들이 겸손을 자신의 신앙적 본질로 되살려 내는 것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노

자는 물을 도(道)의 메타포로 설명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곧 낮아짐의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은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늘 불안정합니다만 물은 끊임없이 아래로 흘러내리기 때문에 만물의 근원이 될 수 있습니다. 토스토옙프스키의 “백치”나 톨스토이의 “바보 이반” 같은 소설들도 역시 자기 낮춤에서 구원론적인 삶의 태도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낮은 자리가 자유이고 평화라는 교훈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내다보는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이 이런 노자의 깨달음보다 못하다면 우리의 구원은 거짓입니다. 아마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게되면 그때부터 아주 자연스럽게 겸손함이 자기의 삶 안에 자리 매김될 것입니다. 이것은 곧 권위주의와 허위의식으로부터의 해방이라 할 수 있습니다.

타자를 위한 존재

바울은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각자 자기 일에 주의를 기울이지 말고, 각자 다른 사람들의 일에 주의를 기울이시오.(새번역, 루터번역). 우리 개역판에는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 일을 돌아보고 남의 일도 돌아보라는 개역판보다는 자기 일에 주의를 기울이지 말고 다른 사람의 일에 주의를 기울이라는 새번역과 루터번역이 더 옳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남의 일을 돌아보라는 점에서 보면 개역판도 역시 결정적으로 오역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기독교인은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구체적인 삶에서도 남의 일을 우선 돌아보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가르침입니다. 요즘 같은 살벌한 생존경쟁의 시대에 이게 어디 말이나 되겠습니까? 또는 그 어떤 다른 태평성대에 이럴 때가 있었을까요? 요순시대가 그랬을까요? 아니면 세종대왕 시대가 그랬을까요? 인간이라는 종이 다른 종을 제압하고 이 지구를 다스리기 시작하면서 자기 일보다 남의 일을 먼저 돌아보는 삶의 태도는 실종되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완전히 사라지는 않았겠지만 겨우 무의식 바닥에 묻혀 있든지, 또는 상당히 파손된 상태로 남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초대 교회도 인간 관계에서 중요한 가치를 그대로 실현하지는 못했으니까 인간 공동체의 한계를 우리가 알만 합니다.

그러나 그런 삶이 아니고서는 그 어떤 방식으로든 개인이나 사회를 막론하고 행복한 삶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더구나 성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삶의 자세이기 때문에 여러 모양으로 남의 일을 돌아보는 삶의 인식과 태도를 넓혀나가야 합니다. 오늘처럼 “제로, 섬”이라는 살벌한 경쟁 사회 속에서도 여전히 남의 일을 돌아보는 개인과 단체들이 곳곳에 숨어서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나마 우리에게 위로가 되면서, 동시에 그런 삶의 가능성을 바라보게 합니다. 이런 점에서 기독교인은 “타자를 위한 존재”라고 본 본훼퍼의 주장은 타당합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은 늘 자기 중심으로만 생

각하고 행동하고 있기 때문에 타자를 위해서 존재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앞서 비슷한 논조로 지적한 것처럼 그 일은 우리의 인격에 맡겨진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고 신뢰하는 정도에 달려 있는 게 아닐까요? 예수 그리스도 사건이 우리를 지배할 때만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 타자를 향해서 마음을 열게 될 것입니다. 그 열린 마음에서만 진정으로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볼 수 있게 되겠지요.

이렇게 남의 일을 돌아보는 문제를 간단하게나마 여기서 구체화시킨다면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차원에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념적인 관점에서 경쟁 체제를 코이노니아 체제로 개혁해나가는 데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생산성이 최고의 가치로 자리를 잡는 자본주의만으로는 인간관계가 근본적으로 손상되기 때문에 별로 희망이 없습니다. 또한 실제적인 관점에서 스스로 생존해나갈 수 없는 이들의 생존을 이 사회가 책임질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법률을 개정해나가고, 자발적인 봉사 단체를 활성화시켜 나가는 일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이런 사회적 토대가 잡혀가게 되면 우리 사회는 진정한 코이노니아가 살아 숨쉬는 공동체로 변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구체적인 프락시스에는 그리스도와 일치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7. 초대 교회의 그리스도 찬양

2:5-11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바울은 앞부분(1:1-2:4)에서 아주 평범하게 편지 형식으로 글을 쓰다가 바로 이 부분에 이르러서는, 정확하게는 2장6절에 이르러서는 약간 다른 성격으로 썼습니다. 우선 내용적인 면에서 볼 때 평상적인 글에서 신학적인 글로 바뀌었습니다. 이는 흠사 골로새서 1:15-20의 우주론적 기독교론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은 차원 높은 내용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형식적인 면에서 볼 때 산문에서 운문 형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개역성경에는 그 차이점을 발견할 수 없지만 실제로는 일종의 노랫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신학자들이 밝혀주고 있듯이 이 그리스도 찬가는 바울 이전에 이미 전승되었던 내용이 틀림없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단어와 그 신학적 성격이 원래의 바울과는 차이가 있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그 당시 초대 교회에 전승되었던 이 그리스도 찬가를 자신의 편지글에 포함시킴으로써 빌립보 교인들에게 복음의 진수를 전하려 했습니다.

우선 그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라는 말로서 이 그리스도 찬가를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와 일치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바로 앞부분에서 거론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권면이 단순히 인간의 인격적 노력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바울은 기독교인이 따라가야 할 어떤 원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윤리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에게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어떤 절대적인 힘에 의지해서 발현되는 것뿐이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기독교가 제시하는 삶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끊임없는 그리스도와 일치에 있습니다. 여기에 바로 다른 종교나 철학, 혹은 윤리와 대립하는 기독교의 가장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곧 인간 구원이 “아래로부터”인가, 아니면 “위로부터”인가의 차이점이기도 합니다. 요즘도 인간 문제에 대한 처방은 대개가 아래로부터 오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곧 합리적인 것이며 실제적인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인간발달, 심층심리학, 정신분석, 정치적 담론, 교육 제도 등, 이 모든 것들은 어떻게 하면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인간다운 세계를 건설하는가에 집중하

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나름대로, 혹은 상당히 효과적으로 인간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긴 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런 노력은 오랜 세월동안 계속되어 왔지만 인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는 아주 미미하다는 사실이 밝혀졌을 뿐입니다.

법 문제만을 좁혀서 생각해보십시오. 로마는 로마법이 부실해서 망했을까요? 오늘 선진국의 많은 문제들은 그 나라의 법이 어딘가 완벽하지 못한 구석이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것일까요? 노동자와 사업자간의 문제를 법적으로 완전히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의사와 약사 사이에 벌어지는 갈등도 역시 법으로 해결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위로부터의 계시에 희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됨으로써 인간 문제가 해결된다고 믿습니다. 물론 현실의 여러 구조와 세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쉽사리 순종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만, 또한 이 세상의 종말이 오기 전까지는 그 어떤 완전한 사회가 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바입니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떤 방향성을 갖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라는 바울의 가르침은 우리 각자의 문제나, 혹은 사회적인 문제가 위의 것에 의존해서 풀려야 한다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과 세상의 모든 문제가 달려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조금 더 포괄적인 의미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선재성

초대 교회는 그리스도를 근본 “하나님의 본체”(6절)였다고 노래했습니다. “본체”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리스도의 실체가 하나님과 똑같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체(substance)는 둘이면서 동시에 하나일 수 없습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의 존재 양식에 관한 표현입니다. 좀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리스도의 선재성에 대한 표현입니다.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다는 요한복음의 진술처럼 그리스도는 만물이 생기기도 전에 하나님의 존재 양식에 참여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어떤 분들은 역사적 실존 인물이 어떻게 역사를 초월할 수 있느냐고 반문하실 겁니다. 그 말은 옳습니다. 역사는 역사 안에서만 타당하지 역사를 뛰어넘으면 이미 역사가 아닙니다. 그러나 완전한 진리라는 것이 우리가 계산해낼 수 있는 실증적 역사 범주 안에서만 확인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두 가지 각도에서 이 문제에 접근해 봅시다.

첫째, 우리가 엄정한 사실이라고 믿고 있는 모든 것들은 감각적인 범주 안에서만 확인된 것뿐이지 그런 감각적인 것의 내면에 있는 궁극적인 범주에서는 별로 확실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참된 사실과 진리를 인식하려면 만물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어야만 하지 그 외면에만 사로 잡혀서는 안 됩니다. 간혹 철학은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생각의 지평을 바꾸는 데 큰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예컨대 화이트헤드가 표명한 이후로 거의 과정철학의 중심 명제가 되다시피 한 “Reality is a process.”라는 개념만 해도 그렇습니다. 만물의 실질을 실체가 아니라 운동과 변화와 진화의 차원에서 바라보는 이런 관점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계를 바라보는 새로운 지평을 획득하게 됩니다. 만약 이렇게 다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초대 기독교인들이 역사적 예수의 사건에서 역사의 초월을 경험하고 확신했다는 사실을 그렇게 허황한 주장이라고 매도할 수만은 없을 것입니다.

둘째, 역사의 흐름이 늘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는 구도 속에서 단선적으로만 흘러가는 게 아닙니다. 과거의 원인에 의해서 현재의 결과가 파생된다는 생각이 너무 확고하기 때문에 미래가 현재를 규정해낸다는 견해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을지 모르지만 그 가능성을 부정하면 안 됩니다. 우선 과거의 원인에 의한 결과가 현재라는 역사관이 늘 정당한 게 아닙니다. 이 역사는 원인에 의해서가 아니라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사건이 개입함으로써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류사만이 아니라 생물학이나 물리학도 역시 이런 우연성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과거로부터 현재를 거쳐 미래로 진행된다는 역사관은 한계가 있습니다. 시간이 반드시 과거에서 현재와 미래를 향해서 흘러가는 걸까요? 저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거들먹거릴 만한 위치에 있지 못합니다만, 단지 시간이 공간과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주적 크기의 공간 이동을 할 수 있다면 시간의 흐름도 역시 상대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점만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선재성 문제가 무조건 허망한 생각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말이 현재에 선취(先取)적으로 발생한다고 믿는 기독교는 예수님을 이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함께 계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예수에게 부활 사건이 일어났다면 그는 이미 미래의 완성에 참여한 분이며, 그 미래의 완성이 곧 창조의 완성이라고 할 때 이미 선재하고 있는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낮춤

그리스도 찬가는 하나님의 본체 안에 있었던 그리스도가 종의 형체(7절)를 가졌다고 노래합니다. 하나님과의 동일한 존재 양식에서 “종”의 존재 양식으로 자기를 낮추었습니다. 이 구절이 소위 “케노시스”에 해당합니다. 초대 기독교인들이 이해하고 있는 대로 그리스도가 자기를 종의 형체로 낮추었다는 이 사실이야말로 기독교적 구원론의 출발점입니다.

이 문제에서도 우리는 사유의 패러다임을 바꾸어야만 이해가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높은 데 있고 종의 나라는 낮은 데 있다는 말이 어떤 공간적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이것도 역시 존재 양식과 관계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자유와 평화와 기쁨이 있는 세계로부터 이 역사의 한계 안으로 오셨다는 뜻입니다. 절대적 세계로부터 상대적 세계로 오셨다고 말입니다. 이 상대적인 세계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낮은 세계입니다. 절대적 세계는 상대적 세계에서 그 정당성이 확보되며, 상대적 세계는 절대적 세계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일종의 변증법적 관계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도 역시 자신의 구원으로 인한 황홀한 경험에 만족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지 못한 세계와 함께 거해야 한다는 말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성육신

바로 위에서 말한 종의 형태의 구체적인 표현은 “사람”(8절)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었다는 뜻의 신학용어인 “성육신”(인카네이션)을 굳이 철학적 용어로 풀어내자면 관념의 실체화로서 기독교의 신론과 기독교론과 삼위일체론에서 핵심입니다. 역사적 실존 인물인 예수님의 본질이 무엇이냐에 대한 논의가 바로 그것인데, 이 논의가 초대 교회의 3,4백년 역사를 통해서 줄기차게 진행되었습니다. 간략한 역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한편에서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완전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본질을 가질 수는 없다고 말입니다. 역사적 예수님은 그림자처럼 그렇게 보였을 뿐이지 어느 한 순간도 완전한 신성을 잃어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헬라의 영지주의에 근거해서 예수님의 신성만을 강조한 사상을 가리켜 도케티즘(가현설)이라고 했는데, 이들은 당연히 이단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본질을 그 인성에 초점을 두고 강조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완전한 인간이었던 예수를 하나님이 신적인 차원으로 끌어올렸다는 이들의 가르침을 에비온주의라고 하는데, 초대 교회는 이들도 이단으로 판단했습니다. 기독교 교회는 니케아 종교회의(325년)에서 예수님의 본질을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아들은 창조되지 않았고 아버지로부터 태어났으나 아버지처럼 영원하고 아버지와 본질이 같다.” 예수님은 참된 인간(vere homo)이며, 참된 하나님(vere Deus)이라는 말입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 기독교는 공동의 구약성서를 경전으로 삼고 있는 유대교와 근본적으로 구별됩니다. 유대교의 하나님은 역사를 초월한 분으로 영원 자존하신 분이지만, 기독교의 하나님은 역사에 의존했던 예수님과 동일시됩니다. 유대인들은 역사에 의존적인 하나님을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에 아무리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도 그것이 곧 하나님의 본질을 말하는 것은 아니기 때

문에 예수님을 배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초대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역사적인 인간 예수에게서 인식했습니다. 비록 신성과 어울리지 않는 인간의 고난과 죽음을 맛보신 분이지만 예수님에게서 일어난 구원 사건을 통해서, 결정적으로는 그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 사실을 누구나 믿을 수 있게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것이 타당하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해석해야만 하며 또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맞는지 않는지는 역시 종말에 가서야 드러나겠지만, 역사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기독교인들의 삶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는 드러날 것입니다. 종말은 이미 현재 안에 선취되고 있을 테니까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높임

바울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지극히 높이셨습니다(9절)고 노래합니다. 그리스도가 복종하셨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미래에 자신을 완전하게 맡기셨다는 뜻입니다. 인간적 한계 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죽음의 공포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 이후의 세계까지 관리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십자가를 받아들였습니다. 이 십자가 사건이 바로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잠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의 근본 사태를 살펴봅시다.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우리의 신앙 구조에서 자칫 하면 예수님이 자청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뜻으로 오해될 염려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가능하면 그 십자가의 죽음을 비켜가려고 노력했습니다만 그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면 피할 수 없었던 길이었기 때문에 받아들인 것입니다. 즉 십자가는 예수님의 의도가 아니라 그의 사명에 의한 귀결이었습니다.

그가 높임을 받았다는 것은 단순히 공간적인 의미가 아니라 존재 양식의 변화입니다. 곧 부활의 존재 양식입니다. 부활한 분은 곧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우리의 지상적 존재 양식과는 전혀 차원을 달리하는 세계로 올라가셨다는 말은 곧 궁극적인 생명의 세계로 옮기셨다는 뜻입니다. 죽음에서 부활로, 땅에서 하늘로, 상대적 세계에서 절대적 세계로 옮기셨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기독교의 기본적인 신앙입니다.

이렇듯 기독교의 신앙은 십자가와 부활을 두 기둥으로 해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 십자가로의 낮아짐과 높은 곳으로의 들림은 서로 나누일 수 없는 관계입니다. 십자가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이 가능했으며, 부활이 발생함으로써 십자가의 구원 능력이 보증됩니다. 뒷부분에서 부활문제를 다시 언급할 예정이

니까 여기서는 이쯤으로 접어두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왕권

그리스도 찬가는 10절과 11절에서 정점에 도달하는 것 같습니다. 이 노래가 궁극적으로 표현하고 싶은 내용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계 5:13,14 참조). 이 내용은 바로 그리스도의 주권과 왕권에 대한 것입니다. 헨델은 그 유명한 오라토리오 메시아에 나오는 “할렐루야”라는 합창곡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King of kings”라고 노래하는데, 이 그리스도 찬가와 일치합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은 천사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절대권력을 잡은 모든 이들을 이룹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그 당시의 왕들은 신과 같은 존재들로서 백성들의 생사여탈권을 갖고 있었는데 초대 기독교인은 땅에 있는 모든 영웅들도 역시 예수님의 이름 앞에서 무릎을 꿇어야만 한다고 노래했습니다. 땅 아래에 있는 악한 영들도 역시 결국에는 예수님의 이름 앞에서 무릎을 꿇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우주론적 통치권과 왕권이 여지없이 드러나고 있는 노래입니다.

어떤 면에서 이런 노래는 혁명가 같이 들립니다(눅 1:51-53 참조). 자신들의 죽음을 담보하지 않는 한 2천년 전에 어떤 이들이 감히 이런 노래를 공개적으로 부를 수 있습니까?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던 로마가 여전히 그 막강한 힘으로 통치하고 있던 그 역사의 한복판에서 초대 기독교인들은 무슨 생각에서, 어떤 용기가 있었기에 기존의 체제를 뒤바꾸어버리는 이런 혁명적인 노래를 부를 수 있었습니까? 이 대답은 아주 명확합니다. 그 당시 기독교인들은 인간의 생명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죽음 이편에서만 힘을 쓰던 절대권력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초대 교회의 순교역사가 바로 이를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은 초대 기독교인들의 이런 그리스도 찬가에서 진정한 신앙의 의미와 용기를 배워야만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무릎을 꿇어야만 할 많은 세력을 두려워하고, 그들을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질적으로 궁핍해지지 않을까 해서 경제적인 힘을 가진 이들의 눈치를 보며 살아갑니다. 이 현재 사회에서 고립되지 않을까 해서 이 시대정신을 추종하기에 정신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주의 왕이신 그리스도가 아니라 세속 정신이 왕 노릇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자기를 나타내는 일에 몰두함으로써 왕이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에는 몹시 소홀합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는 매 주일, 매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주이며 왕이라고 선포되고 있긴 합니다만 그것은 한낱 공허한 외침에 불과하지 실제로 그

렇게 믿거나 확신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모든 세력이 그리스도에게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믿고 있다면 우리의 교회가 더 이상 자신의 교회를 내세우는, 자신들의 교파만을 내세우는, 그래서 결국 이렇게 분열된 교회 현상에 안주하지는 않았을 것이며, 아니면 최소한 이런 현상을 고쳐나갈 준비를 서두르고 있겠지요.

하늘과 땅과 지하의 모든 세력이 무릎을 꿇어야 할 예수님이 가난한 목수 집안에서 출생했다는 사실은 곧 그리스도 찬가에 내재된 신비를 의미합니다. 그것이 신비인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 행위가 우리의 생각을 뒤집기 때문입니다. 상식적으로 볼 때 목수의 아들이 우주론적인 통치자가 된다는 것은 가당치가 없습니다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그렇습니다. 이런 점에서 진리를 열어가기보다는 오히려 닫아버리는 우리의 상식과 지식을 뛰어넘어 임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행위를 기대하고 희망하는 것이 곧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여기에 바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역사의 신비가 있으며,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신비에 의해 자신의 삶을 규정해나가는 사람들입니다.

8. 구원의 깊이

2:12-13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서 처음부터 겸손한 마음(3절)으로 살아가라는 충고를 하고,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낮춤을 노래한 다음에, 이제 다시 복종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그 뒷 부분에서도 역시 자신을 제단의 제물로 바친다는 고백(17절)과 아울러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의 신실한 자세를 설명합니다. 이러한 전반적인 사정은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그리스도처럼 낮아짐에 있다는 사실의 증언에 있습니다. 성서가 말하고 있는 복종은 무슨 의미인지 생각해봅시다.

복종과 항거

앞서 그리스도 찬가에서 바울은 그리스도가 죽기까지 복종했다고(8절) 서술한 다음에 빌립보 교인들에게 다시 복종하라고 권합니다. 이런 점에서 “복종의 현실성은 공동체의 실존을 규정한다.”(그닐카)는 말은 옳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공동체라고 한다면 서로간에 겸손한 가운데서 복종하는 것이 자신들의 실존을 드러내는 징표일 것입니다. 아마 다른 초대 교회와 마찬가지로 빌립보 교회에서도 신자들 상호간에 불신과 분리의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에 머물고 있었을 때에는 그의 권위에 의해서 그래도 교회의 일치가 흔들리지 않았지만 이제 바울이 떠난 상태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전혀 예상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는 자기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없을 때에 더욱 서로간에 복종하라고 호소합니다.

복(순)종이라는 말은 일견 무언가 수동적인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다. 이 말에서 우리는 명령에 의해서 작동되는 군대 조직이나 주인과 노예 관계에서처럼 자신의 의지를 포기하고 수직적인 권위에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것을 우선 생각하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톡하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어구를 내세워 신자들의 민주적 참여를 억압합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무의식적으로 무조건 교회의 관리 체제에 복종하는 것을 가장 아름다운 신앙의 미덕으로 간주했습니다. 교회 밖의 활동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순수한 교회 활동을 가로막지만 앓는다면 교회는 그 어떤 독재자들에게도 충성하고 복종할 준비가 되어있다는 말입니다. 이렇듯 아주 소극적이고 맹목적인 삶의 태도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젖어 있습니다.

과연 성서가 가르치는 복종이 그런 뜻일까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몰트만이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에서 말하고 있듯이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떤 사람이나 체제와 권위에 복종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만 순종함으로써 오히려 세상에서는 걸림돌로 살아갑니다. 이런 면에서 순종은 본혜퍼가 말한 대로 항거의 이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을 왜곡시키는 악한 세력에게 항거할 수 있을 때 성령에게 순종할 수 있고 믿음의 형제들에게 순종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하는 복종은 역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이 서로간에 복종하라는 말이지 서로 눈치를 보듯이 살아가라는 말은 아닙니다. 참된 복종은 위선과 반대입니다. 일하러 가라는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큰아들은 “예”라고 대답은 했지만 실제로는 가지 않았고, “싫습니다.”라고 대답했던 둘째 아들은 나중에 뉘우치고 일하러 갔다는 예수님의 비유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잘 보이기 위해서, 혹은 임시방편으로 보이는 복종은 복종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복종하는 신앙생활을 나누려면 두말 할 것 없이 우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절대적인 의미가 있는 대상과 연결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서로 복종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복종하는 것같이 약간 흉내는 낼 수 있지만 날이 갈수록 우리를 위선적으로 만들며, 결국에는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거나 자기 스스로 부담을 느끼게 될 뿐입니다. 사실 복종은 단순히 복종하는 태도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 생활 전반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갈수록 우리는 서로에게 복종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마음의 문을 열고 대하게 됨으로써 따라오는 아주 당연한 귀결입니다.

구원의 길

순종은 구원과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써 높임을 받았다는 그리스도 찬가에 따르면 순종이 결국 구원을 불러일으킨다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합니다(12절).

마틴 루터 역본에서는 너희 구원을 위해서 노력하라고 되어 있는 이 말씀은 무슨 의미입니까? 우선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성화의 과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온전히 하나님의 행위인 구원 사건을 인간이 노력해서 성취한다는 의미가 될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특히 12,13절이 1-4절의 내용과 연관된다는 점에서 아무 공로 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루어지는 궁극적인 구원이라기 보다는 구원받은 개인이나 교회의 삶에서 발현되어야 할 구원의 열매를 가리킨다는

게 분명합니다. 베드로 사도도 역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는 과정에 대해서 강조한 바 있습니다(벧전 2:2)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의로워지고, 오직 하나님의 은총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지만, 구원받은 사람이 기독교인으로서 성숙해져야 한다는 사실도 역시 우리의 신앙적 실존에서 간과될 수 없습니다. 우리 각각의 기독교인은 자기의 분량대로 구원을 성취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시작하거나 완성시킨다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성숙해진다는 뜻입니다. 이 문제는 개인만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게도 역시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지평에서 자신의 형태를 성숙시켜나가는 작업은 거의 구원론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만약 단순히 예수님에 대한 믿음만 간직하고 있으면 충분하려니 생각하고, 이런 성숙해지는 자세를 갖지 않는다면 그 신앙의 기초와 본질마저 언젠가는 퇴색해버리고 말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쉬지 말고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라는 성서 기자들의 가르침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기독교 신앙은 수행(修行)의 과정을 포함한다고 보는 게 옳습니다. 즉 일종의 길(道)이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은총일 뿐이며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일 뿐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지만 포괄적인 의미에서 구원을 말할 때, 즉 우리의 삶에서 구원의 리얼리티가 드러나야 한다는 점에서 볼 때는 분명히 수행이 신앙 안에 포함됩니다.

요즘 기독교의 경건 훈련에서는 이런 수행 과정이 매우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산상 집회, 성서 연구, 봉사 활동 등에 열심히 참석합니다만 그것 자체가 수행과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종교적인 형식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자기의 삶 전체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수행해 나가는 태도가 바로 수행입니다. 여러분들이 불교의 승려들이나 가톨릭의 수도사들, 혹은 에크하르트 같은 기독교의 신비주의자들을 생각해봅시오. 그들은 먹는 행위마저도 신, 혹은 절대와의 교감으로 여겼습니다. 오늘의 현대 기독교인들이 그런 종교 전문가들처럼 생활할 수는 없지만 자기의 인생을 그런 자세로 대하는 것만은 필수적이라고 봅니다. 적당한 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슬람교도들은 하루에 5번씩 정해진 시간에 메카를 향해 엎드려 기도한다고 합니다. 그들의 일상 자체가 바로 종교와 일치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태도는 아주 철저한 영성 훈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 신자들은 이런 점에서는 너무 세속적입니다. 단지 교회 안에 들어와 앉았을 때만 신앙인 같이 행세할 뿐이지 교회 문만 나서면 신앙과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제라도 자기의 삶을 구원에 이르는 수행으로 여기는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인생이 길인 것처럼 신앙도 역시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부단히 가야할 길입니다. 이렇듯 매 순간이 영적인 삶으로 이어지는 그것이

곧 성령 충만의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상의 내면에서

위에서 언급한 바울의 말씀 중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저희 구원을 이루라고 했습니다. 구원은 궁극적 생명과 관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의 전 실존에 담겨진 투쟁이지 예술품을 감상하거나 아니면 산책길에 나서는 것처럼 가벼운 소일거리가 아닙니다.

저의 식구가 베를린에서 일년 동안 지내던 2000년 9월 어느 날 고츠코프스키 초등학교에 다니던 열살 짜리 저의 막내딸 지은이가 학교에서 친구들과 놀다가 오른쪽 새끼손가락 손톱 사이에 가시가 깊이 박혀서 돌아왔습니다. 바늘로 집어내려고 해보았지만 잘 되지 않았습니다. 손톱깎이로 손톱을 깊숙하게 잘라낸 다음에야 겨우 집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때 지은이의 모습은 온통 세상이 뒤집어진 것 같은 두려움과 떨림으로 가득 찼습니다. 다른 일에는 시큰둥하거나 그저 재미있게만 생각하던 아이의 얼굴에 평상시와는 전혀 다른 표정을 읽고, 나도 약간 놀랐습니다.

이 아이의 모습에 볼 수 있듯이 우리는 보통 자기 자신의 일에만, 특히 물질적으로 이익인가 손해인가, 혹은 건강에 이상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만 진지하게 대하지 정작 궁극적인 생명에 대해서는 무관심합니다. 구원론적 의미가 담긴 교회의 신앙생활도 역시 취미생활이나 교양강좌를 수강하는 듯한 자세로 임합니다. 두려움과 떨림이 없고 여흥과 투기와 신변잡기만이 있습니다. 어떤 책의 제목처럼 우리는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 듯이 진지하고, 생명의 근원에 대해서는 전혀 그렇지 못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판넨베르크는 “여기 계신 하나님”이라는 설교집에서 야외 예배가 끝난 다음에 불고기를 구워먹을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신자들에게 순교자적인 신앙에 대한 설교는 소귀에 경 읽기에 불과하다면서, 현대 기독교인들이 복음 앞에서 취하는 태도의 문제점들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칼 바르트도 <복음주의 신학 입문>에서 신학적 실존을 놀라움이라고 규정한 바 있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보다 진지한 자세로 이 구원 문제에 천착해야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원과 생명 문제에서 진지하지 못한 이유는 실제로 피상적일 수밖에 없는 현실에 빠져서 그 내면의 깊이를 못 보거나 아니면 알고 있다 하더라도 회피하기 때문입니다. 돈벌이나 출세, 자녀교육, 취미생활을 확장시켜나가는 것만을 최고의 가치로 여깁니다. 그러나 사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뜻대로 성취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우리가 완전하게 만족할 수 없고, 오히려 우리는 이전보다 훨씬 자극적인 수단을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읽었던 리처드 바크의 “갈매기의 꿈”은 대강 다음과 같은 내용입니다. 주인공 조나단 리빙스턴 시걸이라는 갈매기는 동료 갈매기들이 인간들의

고깃배 부근을 날아다니면서 썩은 생선 대가리나 빵 조각을 얻어먹는 것으로 자신들의 삶을 소진시키고 있는 동안에 그렇게 먹고 배부르고 배설하고 후손을 번식하는 일을 잊어버리고 오직 높고 빠르게 비상하는 훈련에 몰두합니다. 갈매기 사회의 장로들이 그를 훈계하고 위협했지만, 그리고 그의 동료들이 그를 비웃었지만 그는 그렇게 전통적으로 내려온 일상적인 행위만을 갈매기의 삶이라고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고독과 아픔을 견뎌내고 결국 어떤 절대적인 비상의 세계에 돌입하여 황금 갈매기로 변신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상의 일들이 전혀 무의미하기 때문에 그것을 포기하고 자나깨나 늘 심각하게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드리려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일상만큼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일상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일상의 내면에서 움직이는 생명 운동, 혹은 구원 사건이 중요합니다. 일상의 겉모습이 아니라 일상의 깊이에 들어있는 그 내면의 세계가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예컨대 먹는 일만 해도 그렇습니다. 먹는 행위는 본질이 어떻다고 하기 전에 생존에 걸린 것이기 때문에 그 무엇에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의미 있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먹는 행위가 단순히 외적인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더 궁극적인 생명의 세계와 접목될 수 있는 매개로서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태양과 물과 흙과 공기가 우주론적인 차원에서 생산해낸 먹거리를 취함으로써 우리는 그런 창조의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혜를 깨달을 수 있고, 따라서 서로 사랑으로 함께 나누어먹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인간의 모든 일상은 이처럼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토대로 해서 이루어지는 위대한 사건들입니다. 한 조각의 햇살, 한 모금의 물, 천둥소리, 바람소리, 이웃과의 대화 등, 이 모든 일상적인 것들은 우리에게 너무나 낯익은 관계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으로 생각되지만 사실은 우주론적으로 엄청난 사건들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구원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루어가라는 바울의 가르침을 이해하려면 우리 일상의 깊이와 높이에 있는 참된 생명의 세계를 눈여겨볼 수 있어야 합니다.

9. 기쁨의 심연

2:14-18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달음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함으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은 지금 어둡고 침침한 어떤 감옥의 골방에 갇힌 상태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지 않은 일을 당하면 무언가에 대해서, 혹은 누군가를 향해서 원망을 하거나 신세 타령에 빠져있을 법한데, 바울은 오히려 영적으로 훨씬 깊은 세계에 들어간 셈입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를 통해서 지난 2천년 동안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신앙적으로 큰 감동을 받았다는 사실을 생각해보면 한 인간에게 닥친 불행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태도에 따라서 위대한 사건으로 변화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예상을 뛰어넘어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비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가르침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삶의 조건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것만이 중요하다는 그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바울이 당한 감옥과 같은 상황을 피하는 것만 생각하다가 그런 상황에서도 비밀스러운 방식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살아가면 아무리 좋은 환경이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면 결국 그런 삶은 아무리 화려하게 보인다고 하더라도 “세상에 나와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는다”는 그 틀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한 것입니다. 허무한 삶이죠.

세상의 빛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 감옥에 들어가 있으면서도 기독교인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만 생각을 집중시켰습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생각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기독교인의 삶이 “세상에서 빛”으

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15절). 공동번역은 이렇습니다. 하늘을 비추는 별들처럼 빛을 내십시오. 이것은 곧 신앙의 외면을 가리킵니다. 이 세상이 기독교인의 신앙을 알아차릴 수 있는 모습은 이 “빛”이라는 단어에 분명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빛”이라는 말은 신약성서가 세상 안에서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을 가장 특징적으로 설명해주고 있는 단어입니다. 물론 구약성서도 역시 하나님의 백성을 빛으로 설명했으며, 쿰란 공동체는 이 단어를 훨씬 더 이원론적인 의미로 해석했습니다. 세상에는 어둠의 자식들이 지배하고 있으며, 자신들의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은 빛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그리스도를 빛이라고 칭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취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요 1:4,5). 디모데전서에서 그리스도는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는 분으로 묘사되었습니다(딤후 6:16). 그 이외에도 복음서에만 수십 군데나 이 빛에 대한 표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마 5:14).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취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마 5:16).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눅 8:16).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좇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요 3:20,21).

신약성서만이 아니라 교회 전통도 역시 이런 빛의 메타포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초대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태양의 길이가 다시 길어지기 시작하는 때라고 생각된 12월25일에 탄생하셨으며, 태양의 날인 일요일에 부활하셨습니다. 이런 기독교의 전통이 우연하게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인들은 바로 세상의 빛이어야 한다는 확신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빛을 세상에 반사시키는 빛이라고 말입니다. 바울도 역시 초대 교회의 이런 전반적인 생각과의 연관 가운데서 빌립보 교인들로 하여금 세상에서 빛으로 나타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신약성서가 기록되던 시대의 사람들은 이 빛을 오늘 우리보다는 훨씬 인상깊게 경험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어두운 감옥 속에 갇혀 있는 바울은 오죽했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물리화적인 지식이 별로 없었던 그들은 태양으로부터 시작되는 빛이라는 현상 앞에서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충격과

두려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태양 빛이야말로 그들에게는 모든 존재의 근거이며 생명의 근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거의 모든 고대 종교는 태양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이집트 문명이나 잉카 문명도 역시 이런 태양신을 숭배했습니다. 물론 유대교와 기독교는 태양과 그 빛을 하나님으로 섬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표현 방식으로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빛은 생명을 생명 되게 하는데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생명체는 빛을 전제로 합니다. 모든 생명순환계의 기초는 탄소동화 작용으로 인해서 형성되는데, 거기서 결정적인 요소는 태양의 빛입니다. 이런 탄소동화 작용이 없다면 그것을 먹고사는 모든 동물과, 먹이 사슬의 상층부에 자리잡고 있는 인간도 역시 존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인간의 문명은 석기 시대 때 불을 발견한 이후 본격적으로 문명의 꽃을 피우게 됩니다. 불의 빛과 열을 통해서 다른 동물을 완전하게 지배할 수 있게 되었으며, 자연을 변형시켜 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불과 인간 문명의 구도는 오늘도 여전합니다. 초대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빛으로 고백하고 있으며, 기독교인들도 역시 빛으로 살아야 한다고 믿었다는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라 빛의 본질에 대한 깊은 사색의 결과라고 보아야 합니다.

생명을 가능하게 하는 절대적인 힘으로서의 빛이 바로 기독교인의 신앙이 세상에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이 말씀은 우리 기독교인의 살아가는 실제적인 모습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은 그저 골방에 틀어 박혀서 기도만 하거나 아니면 광야에 나가서 금욕생활만 하는 이들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빛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진지하려면 우리의 살아가는 전체 모습에 대한 철저한 반성이 뒤따라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비하고 놀라운 구원과 생명의 비밀을 깨달았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흔적이 없다면 그것은 자기 확신이거나, 혹은 자기 기만일 수도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세상에서 빛처럼 살아가고 있을까요? 세상은 우리 기독교인들을 빛이라고 생각할까요? 세상은 과연 교회와 그 신자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생명의 근원인 빛과 연관해서 생각하고 있을까요?

이런 세상에서 빛으로 살기 위해서는 어둠이 아니라 빛에 속해야만 하는데, 생명의 세계인 빛에 속한다는 것은 곧 생명의 비밀을 희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생명의 세계에 대한 환상을 가진 사람만이 빛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환상은 첫 순교자인 스테반 집사에게 경험된, 바로 그것입니다.

지난 2000년 9월말에 가족과 함께 이탈리아를 여행하던 중에 르네상스의 중심 도시인 피렌체에서 몇 장의 그림을 샀습니다. 그 중의 하나가 라파엘의 “두 천사

상”인데, 현재 우리 집 거실에 걸려 있습니다. 두 천사는 모두 책상 앞에 기대어 앉아 있습니다. 왼편의 천사는 왼손으로 턱을 괴었고, 오른 편의 천사는 책상 위에 포개진 두 팔로 턱을 받치고 있었는데, 두 천사 모두 눈을 치켜 뜨고 하늘 어딘가를 응시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눈빛과 그 표정에는 하늘의 생명을 향한 신비로움이 충만해 있었습니다. 이 땅의 세계에서는 아직 경험할 수 없는 미래의 세계이며 생명의 세계에 대한 궁금증과 기다림을 그 얼굴에서 읽을 수 있었습니다. 아마 이 천사들은 라파엘 자신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겠죠. 이렇듯 하나님의 나라와 그 구원과 생명에 대한 환상을 경험할 때 우리는 빛으로 산다는 의미를 심도 있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원망과 시비의 뿌리

그런데 기독교인이 이 세상의 빛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빛이 아니라 어둠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초대 그리스도인들도 당시의 세상을 그런 어둠으로 경험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둠이라는 것이 직접적으로 기독교를 박해하는 반 기독교적인 집단만을 뜻하는 게 아니라 다툼과 허영을 기초로 해서 이 세상을 지배하는 모든 질서를 가리킵니다. 겉으로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일 때가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다툼과 허영이 우리 삶의 기초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가르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공동번역은 이렇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불평을 하거나 다투지 마십시오. 마틴 루터 번역에는 불평과 의심을 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망과 시비가 없이, 혹은 의심 없이 살아가는 것이 바로 악하고 비뚤어진 세상에서 빛으로 나타나는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이런 말을 하게 된 가장 우선적인 이유는 빌립보 교회에 원망과 시비가 분분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현실 교회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구호가 외쳐집니다만 사실 그 초대교회가 우리가 추구해야 할 완전한 대안은 아닙니다. 이미 예수 공동체 안에도 시비가 분분했고, 사도들이 목회 하던 교회도 여전히 시끄러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고린도 교회는 여러 파로 나뉘어 상당히 심각한 상태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여기 빌립보 교회도 그런 문제의 소용돌이에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4장2절에서는 유오디아와 순두게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같은 마음을 가지라고 충고하는 데서도 알 수 있듯이 빌립보 교회 안에 적지 않은 문제들이 내재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원망과 시비, 불평, 의심을 하지 말라고 권합니다. 그것이 곧 세상에서 빛으로 드러나야 할 신앙인들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충고는 2천년이라는 시간적 간격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매우 절실합니다. 오늘의 개인이나 사회가 원망과 시비로 얼룩져 있다는 사실은 어린 아이의 눈에도 아주 확실합니다. 정당과 정파는 어떤 논리도 없이 상대방을 낮추는 일에만 신경을 쓰고 있고, 사회 계층간에도 이런 원망이 쌓여갑니다. 예컨대 지난 몇 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매우 심각하게 사회 문제로 대두된 의약분업에 얽힌 일들만 생각해도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의사들은 정부를 믿지 못하겠다고 하고, 국민은 의사와 정부를 믿지 못하겠다고 하며, 정부는 드러내놓지는 못하지만 내심으로는 보험료를 적게 내려는 국민과 의료수가를 높게 받으려는 의사들에게 이런 문제의 책임을 떠넘기려고 할 것입니다. 대개의 사람들이 개인적으로는 착하게 보이고 상당히 높은 지적인 수준에 도달해 있고 교양도 있고 신앙도 있습니다만 서로간에 원망과 의심을 계속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원망과 시비와 의심은 참으로 그 뿌리가 깊고 그 폭이 넓습니다. 원망과 의심은 인간의 교양이나 계몽에 속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본질적인 속성에 속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교회 밖에서도 인간은 늘 이렇게 서로 원망하고 의심하고 불평합니다. 이런 것은 그가 교육을 많이 받았거나 아니면 삶의 조건이 좋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삶에 그림자처럼 붙어 다닙니다. 일종의 원죄와 같다고나 할지요. 그렇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선악과 취한 아담을 추궁하지 그는 이렇게 변명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살게 된 저 여자가 주어서 먹었을 뿐입니다. 아담은 결국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뜻으로 답변했습니다. 이브는 뱀에게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최초의 인간들이 내보인 이 행태는 인간 역사를 계속적으로 지배했습니다. 아마 과거와 현재만이 아니라 종말이 오기 전까지 인간은 이렇게 원망과 시비를 일삼으며 살아갈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강조해야 할 부분은 바울이 지금 도덕과 윤리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이런 성경말씀을 읽으면서 “아, 착하게 살라는 말씀이구나.”하고 간단하게 생각해 버립니다만, 바울은 그런 율법과 윤리를 기독교의 복음과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인간의 문제를 들여야 보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곧 인간은 남에게 불평하기 전에 이미 자기 삶을 원망하고 의심한다는 사실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늘 불안하죠. 존재 불안이라고나 할까요? 자기가 자기 자산을 불신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믿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 늘 사심에 빠져서 생각하고 행동하게 됩니다. 이게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 손해가 되는가라는 차원에서만 판단하기 때문에 당연히 원망과 시비에 휩싸이게 됩니다. 따라서 바울

의 이 말은 인간의 이기심과 연관되며, 더 나아가서 인간의 죄와 연결됩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런 점에서 원망과 시비가 없이 살아가라는 말씀은 그저 모든 게 다 좋다는 식으로, 좋은 게 좋다는 것은 아닙니다. 기독교인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으니까 그저 마음 좋은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뜻도 아닙니다. 이 말씀은 그런 것과는 상당히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구체적인 일에서 시시비비를 따져야 할 일은 따져야 하고 책임을 물어야 할 일은 책임을 물어야 하지 모든 게 “내 탓”이라는 식으로 넘어가는 게 올바른 태도는 아닙니다. 마틴 루터가 면죄부나 교회 무오성 같은 로마 교황청의 많은 문제들을 매우 구체적으로 지적한 것은 원망과 불평과 의심으로 한 게 아닙니다. 원망과 불평은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가 아닌가에 대해서만 민감하지,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비겁한 방식으로 자기를 방어할 뿐이지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내맡기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심 없이 오직 하나님에게 삶의 뿌리를 두고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에게 불이익이 온다고 하더라도 옳은 일을 행하고,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옳은 일이 아니면 하지 않습니다. 이렇듯 사심을 버리는 사람만이 이 바울의 가르침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거의 모두가 본능적으로 자신의 이해타산에 따라서 행동하려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바울의 가르침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 일은 억지로 되지 않습니다. 물론 겉으로는 점잖게 보일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마음 속으로는 원망과 분노가 불길처럼 타오를 뿐입니다. 교회 일을 하면서도 역시 이런 원망과 시비가 그치지 않는 것을 보면 이 사실이 분명합니다. 기독교 신앙에 깊이 들어와 있는 사람들도 이런 원망과 시비를 극복하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은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목사와 장로가, 장로와 집사들이 서로 원망하고 의심하는 일이 없지 않습니다. 그것이 한국교회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원망과 시비는 그 뿌리가 깊기 때문에 일종의 인간학이라 할 수 있는 정신분석이나 심리치료를 통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창조와 진리의 영이신 하나님과의 일치를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위한 희생인가?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의 믿음을 위한 희생 제사에서 제물이 되어도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이겠다고 피력합니다. 그가 이런 비장한 말을 하는 구체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단순히 빌립보 교회를 위한 자신의 심정을 이렇게 문학적으로 표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현재 진행 중

인 재판에서 불리한 판정이 나와서 죽게 되더라고 그것을 달게 받아들이겠다는 자기 각오의 한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지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고 그리스도 공동체인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희생제물이 될 각오가 되어 있다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구약 시대는 여러 종류의 제사가 드려졌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은 아마 희생 제사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실존을 죄로 인식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바라는 심정으로 희생 제사를 드렸습니다. 특히 그 해의 대제사장은 일년에 한번씩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희생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희생제사에서 핵심은 사죄 받기 위해서 대신 죽임을 당하는 제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소나 양이나 비둘기의 피를 제단에 뿌림으로써 자신들의 죄가 사해졌다고 믿었습니다. 이런 구약적인 희생제사는 일단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끝났습니다만, 이런 희생제사의 의미는 기독교의 모든 예배에서 반복되었습니다. 성만찬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빵과 포도주는 바로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대신 감당한 제물이었다는 사실을 가리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난과 흘리신 피로 사죄 받고 구원받는다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믿음의 내용일 뿐만 아니라 우리 기독교인의 실존을 규정하는 근거이기도 합니다. 즉 우리도 예수님처럼 희생 제물로서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요 12:24)는 예수님의 말씀에도 있듯이 기독교 신앙은 희생, 제물, 고난 같은 용어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기독교의 역사는 순교의 피를 거름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희생제물이 될 각오로 살아야 한다는 이 기독교의 가르침은 몇 가지 면에서 오해될 여지가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기독교적인 삶을 무조건적인 자기 희생으로 생각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이 세상에서의 삶 자체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무조건인 금욕을 주장하면서 모든 인간적인 삶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지만 인간의 삶 자체를 부정하신 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첫 이적이 가나의 혼인 잔치 자리였다는 사실은 우연만은 아닙니다. 온갖 금욕과 경건의식에 충실하던 바리새인들의 눈에 예수님은 먹고 마시기를 좋아하고 죄인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한 분으로 비쳤습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십자가와 희생제물은 인간의 삶을 부정하거나 희생 자체를 미화하는 게 아니라 훨씬 높은 차원에서 언급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다가 당하게 되는 고난과 희생을 기꺼이 감수하겠다는 뜻입니다. 즉 희

생과 고난을 자학적으로 즐기는 게 아니라 생명과 사랑의 세계를 위해서 살겠다는 단호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따라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똑같이 희생당하거나 순교당하거나 금욕생활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독신으로 살아야 할 사람이 있고 결혼해야 할 사람이 있으며, 가난에 처할 수도 있고 부한 데 처할 수도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신분이 낮은 자리에 있을 수도 있고 높은 자리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는가 하는 점입니다. 자기의 인생을 희생하면서도 여전히 자기 자신에게 집착하고 있다면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반면에 어떤 면에서 풍족한 생활을 하면서도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끊임없이 참된 생명과 자유의 나라를 의식하고 그 나라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행동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그 풍족한 삶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재물 자체를 저주하거나 가난 자체를 미화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만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나 재물을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나를 좇으라는 말씀에 슬퍼하며 물러간 어떤 부자에 대한 이야기가 있긴 합니다만, 그것도 부나 명예 자체를 문제삼은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지향성을 문제삼은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약간만이라도 꼼꼼히 들여다보면 아무리 자기의 의지대로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무언가에 희생제물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일년 열두 달, 하루도 쉬지 않고 돈 버는 일에 제물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정치적인 야망을 펼치는 것에 자신의 삶을 제물로 바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좀더 가치 있다고 여겨지는 예술과 문학과 사회봉사라고 해서 근본적으로 다르지는 않습니다. 평생 동안 작곡을 하거나 그림을 그려서 유명한 예술가의 경지에 올라섰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에 매달려 있는 한 그는 그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것의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는 분노, 더욱 위대한 작품을 만들지 못했다는 후회, 혹은 완전히 예술성 안에 파묻혀서 모든 현실과 미래를 도외시하는 자기망각은 결코 의미 있는 삶이 될 수 없습니다. 돈도 사라지고, 정치도 사라지고, 오락도 사라지고, 예술도 짧습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생명의 나라와 연결되지 않는 한 우리를 헛된 것의 제물이 되게 할 뿐입니다.

기쁨의 근원

바울은 자신이 제물로 드려진다고 하더라도 기뻐한다고 고백합니다. 17절과 18절에서 그는 네 번에 걸쳐 기뻐한다는 말을 합니다. 자신만 기뻐할 뿐 아니라 빌립보 교인들과 함께 기뻐합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기뻐하라고 권하면서 자신과

함께 기뻐하자고 덧붙입니다. 17절 전반절에 나오는 “제물”이라는 단어와 연결해서 생각해 볼 때 이 기쁨의 근원은 “순교의 반열”에 참여하는 데에 있습니다. 바울 시대에 순교는 기독교인들이 현실적으로 감안해야만 할 일종의 운명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런 순교의 역사를 꿰뚫고 기독교가 이렇게 좋은 결실로 자랄 수 있었던 것은 인간의 예상을 넘어서서 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진리라는 사실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순교의 현장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몹시 고통스럽고 끔찍스럽습니다. 누구나 피하고 싶은 운명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이 기쁨은 자기 기만은 아닐까요? 실제로는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어쩔 수 없으니까 기쁜 일이라고 자기를 위로하거나 미화하는 것은 아닌가요? 실제로 그런 자기 합리화가 교회 안에서 많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예컨대 사업을 하다가 파산을 한 후에 이게 모두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신 은혜라고 말하는 것같이 말입니다. 다시 질문해 봅시다. 과연 순교 당하는 일이 기쁨일 수 있을까요? 그 순교에서 정말 서로 기쁨을 공유할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쁨을 느끼는 순간은 자기를 성취할 때인데 자기 자신이 완전히 파괴되는 순교에서 기쁨을 느낀다는 것은 어딘가 자연스러워 보이지 않습니다.

우선 우리는 기쁨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것의 존재론적 근거에 대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바울이 표상하고 있는 기쁨의 존재론적 근거가 일단 명확해야 이 순교와 기쁨의 상관관계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실제적인 생활에서부터 생각해봅시다. 우리는 보통 출세하고 건강하고 가족이 잘되고,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되면 기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이런 기쁨의 조건들이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다는 점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보십시오. 이런 일반적인 기쁨의 기준에서 본다면 성공한 사람이 성공하지 못한 사람보다 훨씬 기쁘게 살아야하는데 실제로는 반드시 그런 게 아닙니다. 건강한 사람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보다 훨씬 큰 기쁨을 맛보고 살아야 하는데, 이것도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건강한 사람은 그 건강의 소중함을 건강하지 못한 사람에 비해서 별로 절실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기뻐할 줄 모릅니다. 미혼의 젊은이들은 자기의 이상적인 상대를 만나서 결혼하게 되면 기쁘리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인간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은 그것이 성취되는 순간에 아주 손쉽게 일상성 속으로 떨어져버립니다. 오히려 이런 자기 성취에서 기쁨을 맛보려는 사람은 그것이 비록 성취된다고 하더라도 더 큰 성취욕으로 인해서 다시 불만에 빠져버립니다. 실제로 옛날에 비해서 오늘 우리의 삶이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풍요로워졌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옛날 사람들보다 행복하다고 확신할 수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 오늘의 삶이 훨씬 더 심한 허무와 탐욕으로 얼

룩져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기쁨은 인간이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처럼 그것 자체로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참여해 있는 사람은 인생의 조건이 어떻든지 간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흡사 하나님을 인간이 소유할 수 없듯이 기쁨도 소유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런 점에서 기쁨은 하나님의 선물일 뿐이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생산품이 결코 아닙니다.

참된 존재, 궁극적인 존재는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참된 기쁨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다른 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길에 들어서야 합니다. 이 말은 순수한 이상이나 심리적인 차원에서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의 인생이 고달프지만 영광으로 다가올 미래에는 즐거울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가 아닙니다. 물론 완전한 생명과 그 기쁨은 종말에 이루어지지만 그 미래는 이미 여기서 현실성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이미 여기서 구원의 기쁨에 실제적으로 참여합니다. 그래서 순교도 역시, 아니 가장 기독교적인 삶의 특징이라 할 순교만이 가장 큰 기쁨을 허락합니다. 바울은 이런 기쁨으로 충만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함께 기뻐하자고 외칩니다.

순교의 현대적 의미

그런데 오늘 우리는 실제로 순교와는 거리가 먼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순교의 기쁨이 가능하지 않다는 말일까요? 순교가 없는 오늘 순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기독교의 역사에서 나타났던 순교는 아니라 하더라도 그런 순교적인 자세는 오늘도 역시 가능하며, 따라서 바울의 기쁨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의 가시적인 성과에 자족하거나 매달리지 않고 하나님의 완전한 뜻에 의지해서 살아가다가 당하는 불이익과 고난을 받아들일 자세를 갖는다면 아마 순교적 자세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초대 교회 신자들처럼 영적으로 예민하게 살아갈 훈련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만이 이 세상의 조건에 좌우되지 않는, 순교자의 반열에서 얻게 될 기쁨의 맛을 보며 살아가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순교로 인한 영광을 서로 이해하고 믿고 있기 때문에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기독교 공동체가 누리는 친교와 일치의 근거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순교와 그 영광의 신비를 함께 알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니까 말입니다. 이렇게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일들을, 그런 구원 사건과 희망들을 확장시켜나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니까 말입니다. 인간의 모든 성취와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하는 그 기쁨과 평화의 나라를 희망하는 종말론적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니까 말입니다. 대한민국이 월드컵 축구시합에서 우승했다는 사실은 모두 함께 기뻐해야 할 사건은 아닙니다. 우리 집 딸이

서울의 일류 대학에 합격했다는 소식이 함께 기뻐할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흥미를 느끼고 있는 모든 사건들에는 그 이면의 어두운 그림자가 따라다니기 때문에, 즉 그 결과에 따라서 슬퍼해야 할 이들이 있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가 함께 기쁨을 나눌만한 일이 못됩니다. 함께 기뻐해야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로부터 시작해서 이 세상 끝 날에 다시 오신다는 약속에 관계된 것입니다. 인간의 경쟁으로 인한 어느 한쪽의 승리가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승리에 관계된 일들입니다. 그 승리를 내다보고 기꺼이 순교의 반열에 참여하겠다는 결단과 연관되어 살아가는 이들이 기독교인입니다. 이런 기쁨이야말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우리 모두를 하나되게 합니다.

삶의 긍정으로서의 기쁨

이런 점에서 기쁨은 근본적으로 삶에 대한 큰 긍정입니다. 생명의 영이신 하나님의 도움으로 자기가 존재하고 있는 사실에 대한 환희에서 자기의 삶을 긍정할 수 있습니다. 약간의 생활조건의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것에 대한 적극적인 반응입니다. 자기의 삶을 긍정하고 있는 사람은 자기의 내면에서 어떤 생명력이 꿈틀대는 것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생명력에 사로잡혀 있을 때만 우리는 모든 일을 원망이나 시비(2:14)로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현대인들에게 가장 결정적인 궁핍은 바로 삶에 대한, 존재하는 것에 대한 기쁨입니다. 사는 것 자체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자신의 환경을 그럴듯하게 만드는 일에만 마음을 쓰고 있기 때문에 기쁨의 세계에 참여하지 못하고 맙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들어봅시다. 젊은 남녀의 결혼만 해도 그렇습니다. 결혼식이 왜 이렇게 소란스럽습니까? 배우들처럼 사진을 찍고 패션 모델처럼 옷을 차려입고, 사돈에 팔촌까지 모두 불러다가 결혼식을 치룹니다. 평생에 한번이니까 그렇게 할 만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요란스럽게 결혼식을 치르는 이들이 모두 비정상적이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만, 한편으로 이러한 과장된 행동들은 결국 결혼 자체의 기쁨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오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 것뿐입니다. 결혼 자체를 생각하지 않고 그 주변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겨 버린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게 어디 결혼 문화뿐인가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과정이 바로 그렇습니다. 교회의 행사도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이런 거품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희망하는 종말론적 공동체인 교회가 이벤트 회사처럼 행사에 매달린다는 사실은 무언가 본질적인 것, 즉 구원의 기쁨을 알지 못하거나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2000년 1년 동안 독일에서 생활한 느낌을 우리 사회와 비교해서 잠시 말씀드

릴까 합니다. 정치, 교육, 문화와 예술, 의료, 사회, 종교에 이르는 전 영역에서 매우 안정된 느낌을 받았습니다. 20년 전 신학 공부를 위해서 독일에 왔을 때 보았던 독일 대학교의 모습이 지금도 그대로였습니다. 학생들이 그때와 비슷한 옷을 입고, 비슷한 집에서 살고, 비슷한 것을 먹고 공부합니다. 핸드폰을 사용하는 학생들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초중고 학생들도 핸드폰을 갖고 다니는 것과 비교하면 독일은 아주 미개한 나라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 핸드폰이 별로 필요 없을 만큼 안정되어 있다는 점을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일단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늦은 밤까지 학교다, 학원이다 해서 돌아다녀야 하니까 자녀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핸드폰이 유용하게 사용되지만, 독일에서는 학생들이 그렇게 밤늦게 돌아다니는 일이 없습니다. 지난 2001년 2월말에 서울의 종로2가 뒷골목과 인사동 골목에 들른 적이 있었는데, 늦은 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몸이 부딪쳐서 걸어다니기 힘들 정도로 사람들이, 특히 청소년들이 많았습니다. 독일 사회도 그들 나름대로 많은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반드시 독일을 따라가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건이나 사물에 대해서 우선 진지하고 합리적인 자세로 접근하고 있다는 점만은 배워야 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겉으로 그럴듯하게 보이는 것에 신경을 쓰지 않고 내면의 참된 의미를 찾아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의 모든 삶의 방향이 영성, 진리, 하나님 나라, 부활, 생명 등, 이런 내면적인 기쁨으로 집중될 때 우리는 그 어떤 삶의 환경 가운데서도 불평과 의심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근거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기쁨의 심연을 알고,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10. 믿음의 연대성

2:19-30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라는 너희 사정을 앎으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 밖에 내게 없음이라.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비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 것을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기를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나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저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저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저를 보낸 것은 너희로 저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저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저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믿음의 아들 디모데

신약성서에 그 이름이 24번이나 등장하는 디모데는(사도행전에 6번, 바울의 편지에 13번, 그리고 디모데서와 히브리서 13:23) 명실상부하게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따르면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에서 바나바와 갈라진 후 루스드라에 들렀을 때 디모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유대계 부인과 헬라계 남편 사이에서 태어난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하고 선교 여행에 동참시킨 이후 영적인 면에서 아버지와 아들처럼 친밀한 관계를 맺습니다. 바울은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디모데를 전령으로 보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1 이하에 따르면 아덴에 있던 바울은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내서 간접적으로 데살로니가 공동체를 권면하고 보살폈습니다. 디모데는 비슷한 사명을 갖고 고린도 교회에도 갔습니다(고전 4:17, 16:10). 이제 바울은 갇힌 몸으로 빌립보 교회를 직접 방문할 수 없는 상태에서 디모데를 대신 보낼 생각을 했는데, 그게 이루어졌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아마 자기의 재판이 어떤 결과를 낳게 될지 아직은 확실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에바브로디도를 먼저 보내고 자기의 형편이 결정되는 대로(23절) 보내려고 한 것 같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소식을 알고 싶어한 만큼 빌립보 교회도 역시 바울의 소식을 알고 싶어했을 텐데, 아직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디모데를 보낼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울은 재판 결과가 좋

게 나와서 자기가 직접 빌립보 교회를 방문하고 싶어했습니다(24절).

바울이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고 싶어한 까닭은 이런 일에 디모데만큼 적당한 인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20절). 디모데는 이미 이런 일을 여러 번 수행한 인물일 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의 창립 과정을 소상히 알고 있던(행 16:11이하) 인물이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야말로 빌립보 교회의 문제를 가장 원만하게 해결할 적임자라고 보았습니다. 특히 20절에서 디모데를 가리켜 사용한 헬라어 “이소푸코스”는 “같은 마음을 가진”, “같은 능력을 가진”, “확신하는”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 바울이 여기서 강조하는 바는 선교적 성실성과 정직성입니다(그닐카).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전적으로 투신하는 것과 그 일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정직성이 바로 디모데의 탁월성인 셈입니다.

20절에서 디모데를 칭찬한 바울은 이제 21절에서 어떤 이들을 비판하면서 디모데를 다시 한번 더 올려 세웁니다. 바울에게서 비판받은 이들이 누구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4장21절에서 구체적인 이름이 거명되지는 않지만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라고 일컬어진 동역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지 않고 자기의 일을 구하는 이들에게 이러한 중차대한 일을 맡길 수는 없었습니다.

교회의 자기연민

아무리 순수한 신앙적 동기로 모였다고 하더라도 어느 기독교 공동체나 예수 그리스도의 일보다는 자기의 일에만 치중하는 이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들은 물론 구원받은 이들이며 교회에 대한 사랑도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자기의 일에만 몰두합니다. 교회의 지도자들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일보다는 자신의 일에 더욱 열심인 이들이 있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일에 관심을 갖는 이들과 겉으로만 그렇지 실제로는 자기의 일에 관심을 갖는 이들을 구분한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무엇에 충성하는지 확실하게 알려면 어떤 극단적인 상황에 직면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언제까지나 숨길 수는 없습니다. 언젠가는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사람의 눈을 속일 수 있지만 불꽃같은 눈으로 인간과 세계를 관찰하는 주님의 심사대를 무사 통과할 수는 없습니다.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두는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신앙의 본질이 오해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행위와, 교회에 대한 열심과 충성이 결국은 자기 자신에 대한 관심에 근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 자신의 종교적인 목표를 성취하려는 의도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니까 아무리 오래 교회에 나가도 여전히 자기 자

신에 대한 관심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이 자신의 노력을 인정해 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섭섭하게 생각되고, 더 나아가서 이런 일로 남과 경쟁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자신의 보신에만 마음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주변에서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에게서 이런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다만 디모데만은 자신을 온전히 복음 사역에 내놓은 젊은이였기 때문에 믿고 빌립보 교회에 파송할 수 있었습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예프스키의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 중에 소위 “대심 문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림한 예수님은 초림 때처럼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많은 가르침을 주다가 당시 러시아 정교회에 의해서 구금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최고위 승정이 감옥으로 찾아와서 예수님과 흥정을 벌입니다. 그의 논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이 땅의 질서는 이미 교회가 잘 감당하고 있으니까 예수 당신은 하늘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스토예프스키의 이야기는 곧 그 당시 러시아 정교회의 온갖 신학과 의전과 각종 종교 프로그램이 결국은 자기들의 일이었지 결코 하나님의 일이 아니었다는 사실에 대한 반증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만큼 종교적인 열심히 지극한 교회를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들 것입니다.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세계 교회 현실에서 우리 교회의 패토스는 칭찬 받을 만 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보면 그 모든 열정들이 결국 자기 자신에 대한 연민에서 출발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없지 않습니다. 이토록 심하게 교파가 분열되어 있다든지, 같은 교파 안에서도 개교회주의가 극에 달한 현상들을 보면 이런 염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믿음의 형제 에바브로디도

바울은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빨리 보낸 후에 자신도 곧 가보려고 생각했었지만 앞 단락에서 지적한 것처럼 그 일이 성취되지 못했습니다. 대신에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려고 결정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이곳 25절과 4장18절에만 나오는 이름입니다. 골로새서 1:7, 4:12, 그리고 빌레몬서 23절에 등장하는 에바브라와는 비슷한 이름이긴 하지만 같은 인물이 아닙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출신이지만 에바브라는 골로새 출신입니다. 원래 빌립보 공동체의 일원이었던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이 영어(圉圉)의 몸이 되었을 때 그를 돕기 위해서 파송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바울을 돕다가 큰 병에 걸려 생사의 기로에 떨어진 일로 인해서 빌립보 교회가 크게 걱정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염려를 덜게 해주려는 목적으로, 그리고 이 편지를 전달케 할 목적으로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빌립보로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바울은 25절에서 에바브로디도를 세 가지 표현 방식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나의 형제, 나의 동역자, 나와 함께 싸우는 자.

첫째, 바울의 감옥 생활을 도와주기 위해서 빌립보 교회로부터 파송받은 에바브로디도는 한낱 심부름꾼이 아니라 바울의 형제와 같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바로 기독교의 가장 근본적인 인간 관계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정답이 있습니다. 그것이 참된 형제애에 기초한 관계라고 한다면 그 어떤 경쟁심이 끼어들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스도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가장 바람직한 관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둘째,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의 동역자입니다. 실제로는 바울의 감옥 생활에서 그 뒷바라지를 하던 에바브로디도였지만, 바울은 그를 동역자라고 부릅니다. 동역자(Mitarbeiter)는 말 그대로 함께 일하는 사람입니다. 중요한 일을 맡은 사람이나 사소한 일을 맡은 사람이나 근본적으로는 동역자일 뿐이지 상하관계로 규정될 수는 없다는 이 말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일에서는 어떤 인간도 자신을 높은 자리에 둘 수 없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요즘처럼 교회 안에서 목회자들 사이의 관계가 세속적으로 수직적인 위계질서로 구성되는 때도 별로 없었을 것입니다. 사실은 모든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청지기일 뿐인데도 불구하고 교권을 가진 한 사람이 그것을 자기의 특권으로 여기게 되는 경우에 불편한 관계가 되고 맙니다. 가장 예민한 문제인 담임 목사와 부목의 관계를 생각해보면 이런 현상은 아주 명확합니다. 부목사를 자신의 동역자로 생각하는 담임 목사들이 얼마나 될까요? 제가 젊었을 때 실제로 겪은 일이기도 하고, 많은 경우에 당연하게 여겨지던 다음과 같은 일이 있습니다. 부목을 청빙할 때 담임 목사가 던지는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할 거요? 아니면 담임 목사의 말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 거요?” 물론 노골적으로 이렇게 다그치는 담임 목사들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속마음으로는 대개가 부목사를 자신의 수족처럼 부리고 싶어합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 부목사들의 비상식적인 처신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문제가 적지 않습니다만, 이런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생각이 앞서서 동역자로서의 관계를 파손시킨다면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셋째,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자기와 함께 싸우는 자라고 했습니다.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어두운 세력과 싸우는 전우라고 말입니다. 수감자의 인권을 생각한 게 인류 역사상 아주 최근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2천년 전 로마(혹은 에베소)의 감옥이 어느 정도로 고통스러웠는지는 새삼 되돌아볼 필요도 없습니다. 더구나 방대한 식민지를 통치하고 있던 로마 제국이 범법자들을 일벌백계 하는 식으로 교도행정을 펼쳤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바울의 상황이 얼마나 열악했는지 추정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실제로 생존 투쟁하듯이 감옥생활을 했습니다. 본인 스스로 약한 체질이었기 때문에 그 생활을 버텨내기 힘들었을 뿐만 아니라 교회 안팎으로부터 밀려드는 무시와 냉소를 견뎌내기도 힘들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이런 바울의 삶에서 전우 같은 관계였습니다. 서로 자기 생명을 돌아보지 않을 때만 이런 전우관계가 성립되듯이 에바브로디도는 자기가 중병에 걸려 죽을 지경이 될 때까지 바울의 곁을 지켰습니다.

에바브로디도의 병세가 어느 정도로 나빴는지,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나 좋아졌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일단 위험한 고비는 넘긴 것 같습니다(27절). 아직 바울의 감옥 생활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에바브로디도가 결국 빌립보로 돌아가게 된 이유는 중병을 앓았던 그가 더 이상 감옥 생활을 감당할 수 없다고 바울이 판단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에바브로디도의 문제는 향수병이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비록 그의 몸이 어느 정도 회복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냥 타향살이를 계속하도록 붙잡아둘 수는 없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1983년부터 1985년까지 독일에서 유학할 때 향수병이 얼마나 견디기 힘든 일인지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독일 학생들이 모두 집으로 돌아가는 주말이나 성탄절, 부활절 휴가 때 기숙사에 혼자 남아 지낸다는 것은 경험해본 사람만이 압니다. 바울은 에바브로디도의 이러한 심리적인 형편을 충분히 헤아리고 있었습니까.

그런데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바울의 마음 씬씀이가 매우 자상했다는 사실은 다음과 같은 사실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도가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완수하지 못하고 돌아왔을지도 모른다는 빌립보 교회의 오해와 비난을 벗어나게 해주기 위해서 바울은 두 가지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째, 에바브로디도를 돌려보내는 이유는 빌립보 교회가 그의 건강을 확인하고 기뻐하라는 것과, 또한 자기의 근심을 덜어보려는 것이라고 합니다(28절). 말하자면 에바브로디도의 책임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와 바울 자신을 위한 선택이었다는 설명입니다.

둘째,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에바브로디도 같은 사람을 귀하게 여기라고 당부합니다(29절). 바울은 다른 곳에서도 누누이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해서 애쓰는 자들을 인정해주라고 권면 했습니다(고전 16:16,18). 모두가 자기 일만 생각했지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는 상황에서(빌 2:21) 자기 생명을 돌아보지 않을 정도로 수고한 에바브로디도를 귀하게 여기라는 당부에는 바울의 절실한 심정이 담겨 있습니다.

나눔의 현실화를 위해서

우리는 여기서 아랫사람에 대한 바울의 세심한 배려를 읽을 수 있습니다. 대개의 경우에 우리들은 자기 일에만 관심을 쏟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일에는 형식적으로 대하든지 아니면 아예 무관심합니다. 위에서 소위 당회장과 부목사들과의 관계를 잠시 언급한 데서 보았듯이 당회장들이 자신의 목회 활동만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부목사들이 실제로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적당한 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재임용 문제가 비정상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대학교 현장에서도 이런 일들을 자주 봅니다. 재임용에 탈락할만한 일이 아닌데도 교권의 틈바구니에서 재임용에 탈락하는 동료 교수들과 끝까지 연대성을 유지하는 교수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와 가까운 어떤 교수도 얼마 전에 자조적으로 이런 하소연을 하더군요. 복직을 위해서 힘이 되어 줄 것으로 생각했던 동료 교수가 모른 척 하는 현실이 슬프다고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자기의 자리를 자기만의 보신이 아니라, 좁게는 신앙적 연대성을 위해서, 넓게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도구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예컨대 대형 교회의 담임 목사들은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참으로 많습니다. 미자립 교회 목회자들의 생존을 위해서, 또는 강의 자리를 구하지 못한 신학자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이미 신학대학교에 자리를 잡은 교수들도 역시 자리를 잡지 못한 동료, 후배 학자들과 그 강의 자리를 나누어 가질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어느 대학교 선생이 보따리 장수라고 불리는 시간강사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런 제안을 했더군요. 자리를 잡고 있는 교수들의 임금을 줄이고 대신 시간 강사들의 생존이 보장될 정도로 강사료를 올리자고 말입니다.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지만 학자들 상호간의 학문적, 인간적 연대성을 회복하는 단초가 될 수는 있지 모릅니다. 이런 제안을 목회자들에게 적용시킬 수도 있겠지요. 말로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외칠 게 아니라 실제로 나눔의 현실화를 끌어내야만 구체적인 일치가 이루어지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서 이런 구체적인 문제의 해결 방안을 제시하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자기가 차지하고 있는 자리와 지위를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좀 더 큰 것을 위해서 사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바울과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사이에 있었던 신앙적 연대성은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중요한 요소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일은 어떤 위대한 한 인물에 의해서만 이루어지기보다는 이렇게 여러 사람의 진실한 노력과 협동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11. 율법과 복음

종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할례당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내가 팔일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의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는 권면이 있는 다음에(1절) 즉시 개들을 주의하라는 과격한 표현은 그렇게 자연스러운 연결이 아닙니다. 그래서 학자들에 따라서는 1절 전 반절을 4장 2,3절과 연결시켜서 빌립보에 있는 동역자들을 향한 권면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그닐카). 원래 있었던 두 통의 빌립보서가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빌립보서에 편집되는 과정에서 이런 배열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합니다. 당시의 편지들은 대개가 파피루스에 기록되었으며, 또한 같은 교회에 보내는 여러 편의 편지들이 있었을테니까 사본에 따라서 이런 편지들의 내용이 서로 다르게 배치될 수 있게 마련입니다. 성서에 대한 이런 역사 비평 문제는 우리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접어두기로 하고, 바울이 여기서 상당히 격한 심정으로 토로하고 있는 신앙적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모아봅시다.

종교적 기득권

바울은 3절에서 개와 행악하는 자와 손할례당을 조심하라고 경계합니다. 첫째, 바울이 이곳 이외에서는 그 어디에서도 사용한 적인 없는 욕설인 개는 어떤 이들을 말할까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육신의 욕망대로 살아가는 이방인들을 개나 돼지처럼 생각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바울도 그 당시에 부도덕하게 살아가는 이들을 경계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교대 교회가 성립되는 그 시대적 상황은 매우 부도덕했는데, 그 이유는 인간을 영과 육이라는 이원론적 시각으로 바라본, 헬라철학의 한 분파인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는 생각으로 인해서 영혼만 온전하게 간주하면 구원

받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몸을 자학하는 금욕주의로 빠져들거나 아니면 몸의 본능에 충실해도 된다는 쾌락주의에 빠져들게 된 것입니다. 기독교 교회 안에도 이런 세속적인 사상에 영향을 받은 이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면서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될 있느냐(고후 6:14이하)고 묻기도 했습니다. 또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이 하라(고후 7:1)고 당부했습니다. 기독교가 윤리적 실천을 그 본질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열매로 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개로 일컬어지는 이방인들이 추구하는 삶의 방식을 조심해야 합니다.

둘째, 바울은 행악하는 자를 조심하라고 경계합니다. 루터 번역에는 거짓 설교자들을 조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된 개가 바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악한 행실을 가리킨다면 여기서는 루터 번역에 있듯이 거짓 설교자들을 가리키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마 빌립보 교회에 이미 복음을 훼손시키려고 들어온 방해꾼들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이들은 기독교 교회를 순방하면서 복음의 본질을 왜곡시키고 자신들의 주장을 선전하는 거짓 설교자들입니다. 바울도 초창기에 여러 회당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그 당시에는 방랑 설교자들이 적지 않게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빌립보처럼 헬라 문명에 깊이 젖어든 도시에는 여러 주의와 주장들을 서로 논하는 일들이 아주 일상사처럼 일어났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도 역시 이런 위험 앞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짓 설교자들을 구분해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들이 처음부터 자신들의 주장을 터놓는 게 아니라 결정적인 순간까지 숨겨놓기 때문에 전문적인 식견이 없는 한 구분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말만 갖고서는 진리 논쟁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불립문자(不立文字)라는 말이 있듯이 어느 정도까지는 가능하겠지만 궁극적인 문제를 말로 드러낸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진리는 말이 아니라 능력이듯이, 구원은 말이 아니라 능력입니다. 하이데거의 표현을 빌리면 언어는 존재 자체가 아니라 존재가 거하는 집일뿐입니다. 동양적 표현방식으로 말하자면 언어는 달이 아니라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일 뿐입니다. 그리스도 교회는 거짓 설교자와 참 설교자들을 당장 분간해 낼 수는 없지만, 결국 언젠가는 그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거짓 설교자들의 말이 그 가면을 벗어야 할 때가 오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리스도 교회가 깨어 있다면 이런 일들이 훨씬 빨리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의도적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박성 때문에 벌어지는 말씀의 왜곡현상도 아주 심각합니다. 설교자가 말씀을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 식으로 해석하는 행태를 가리킵니다.

셋째, 개와 거짓 설교자들을 조심하라는 바울의 당부는 이제 세 번째로 거론되는 손할례당에 대한 경계에서 정점에 달합니다. 할례주의자들이라고 일컬어지는 율법주의자들은 이방인 기독교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고집함으로써 값없이 의롭다 함을 입는다는 복음의 근본을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이들은 어떤 이유와 근거에서 할례 행위를 그렇게도 줄기차게 강조하고 있을까요? 할례의 역사적 배경이나 문화사적인 의미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서 언급될 예정이니까, 여기서는 단지 그것을 강조하는 이들의 종교적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점만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할례는 유대인들이 이방 세계로부터 구분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았다는 증거였습니다. 이 말은 곧 할례를 받은 이들이 할례를 받지 못한, 혹은 받지 않은 이들과 완전히 다르다는 뜻인데, 일종의 선민의식이며 분별심입니다. 이러한 의식에 근거해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종교적 토양을 발전시켜 나갔을 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적 토대를 발전시켰습니다. 이들은 어디를 가거나, 무슨 일을 하거나 자신들은 이방인들과 다르다는 자기 의식이 아주 철저했습니다. 2천년 동안 땅과 외교권 없이 살아왔으면서도 민족적 정체성을 상실하지 않은 그 저력이 바로 이런 선민의식에 있습니다.

이러한 유대 사상을 가장 예민하게 가리켜주는 징표가 바로 할례라는 점에서 할례는 그 무엇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특별한 종교의식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할례를 일종의 종교적 징표로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시를 절대화하는 기준으로 삼아버렸습니다. 절대적인 세계를 알려주기 위한 상대적인 비유와 징표들이 절대적인 것과 일치되니까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상대적인 것이 절대적인 힘을 행사하게 되면 그것은 곧 난폭한 힘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현상은 사실 정치, 경제, 과학, 종교의 세계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림을 받아서 구별되고 선택받았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감사와 이에 상응하는 책임의식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여전히 자신의 종교적 기득권을 지켜내기 위한 이론적 방어수단으로 생각한다면 여전히 손할례당에 불과할 것입니다.

자기 신뢰의 허상

바울은 3절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의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자랑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이 말의 뜻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하고,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바로 참된 할례자들입니다.

우선 할례 제도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살펴봅시다. 유대인 남자아이들 모두가 태어난 지 팔일만에 시술 받아야할 할례(포경수술) 전통은 아브라함까지 소급됩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면 아흔 아홉 살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할례 명령을 내리시면서 아내 사라의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 말고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날 자기와 이스마엘, 그리고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했습니다. 물론 그 다음 해에 백세가 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얻게 되었습니다. 어쨌든지 그 뒤로 이 할례 의식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명해 주는 결정적인 단서였기 때문에 모든 유대인 남자들은 이 할례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할례가 유대인만의 전유물은 아니었습니다. 근동지역에서는 일반적으로 행해졌던 종교적, 위생학적 시술이었습니다.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에집트 룩소르의 카르나크 신전에서 발견된 벽화에 할례 행위가 그려져 있는데, 놀랍게도 남아만 이 아니라 여아까지도 포함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집트 여성의 97%가 할례를 받은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남성들의 할례는 위생 건강을 위한 조치인 반면에, 여성들의 할례는 성욕 억제 차원의 조치였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의 할례를 비롯한 우리의 모든 종교 의식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상징하는 징표입니다. 예컨대 결혼 반지는 결혼하는 두 사람의 사랑을 상징하는 징표에 불과하지 그것 자체가 사랑은 아닙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을 영적으로 섬기는 우리들이 바로 참된 할례자들이라는 바울의 말은 과장이나 자기 합리화가 아닙니다. 사람의 겉모습을 꾸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기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구약의 예언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을 영적으로 섬긴다는 말은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온갖 탐욕을 가득 채운 상태에서 하나님을 영적으로 섬길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한다는 말도 이와 같습니다. 할례는 결국 자기의 종교적 특권을 나타내는 것인데, 이것에 치우친다는 것은 자기를 자랑한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바울은 참된 할례자의 모습으로 한 가지 사실을 더 추가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세 번째 명제가 가장 근본적인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적으로 섬기지 않는다면,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것은 곧 삶의 토대를 자기 자신에게 둔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기도 누구 못지 않게 육체를 신뢰할 만 하다면서 그 목록을 열거하고 있습니다(4-6절). 할례를 받은 자, 이스라엘 족속, 베냐민 지파, 히브리인 중의 히브리인, 바리새인, 열심히 교회를 핍박하던 자, 율법적으로 흠이 없던 자. 아마 그 당시에 바울과 적대적인 입장에 서서 율법과 할례를 강조하던 사람들도 자신의 종교적 성과를 바울만큼 내세울만한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자신을 비롯

해서 모든 유대인들이 가장 우월한 것으로 생각하여 추구하던 것들을 해로운 것으로, 똥으로 여긴다고 했습니다(8절 후).

참된 종교 의식의 본질은 바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자기의자랑거리를 근본적으로 포기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자기를 비우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교 심리학적으로 세밀하게 발전된 그 어떤 종교 의식일지라도 그것은 그것을 행하는 사람을 비우게 하는 동기로 작용해야만 참된 종교적 가치가 발휘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서 행하는 종교의식은 어떤 상태인지 생각해보십시오. 교권은 어떻게 작용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똥처럼 생각하던 것들이 우리의 궁극적 관심사가 되는 것은 아닐까요? 신앙생활을 많이 하면 할수록 더욱 많은 종교 상식과 정보들이, 그리고 그런 경험들이 자신의 종교적 업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채우는 것으로 작용하게 되면 결국 신자들끼리, 교파들끼리 지나친 경쟁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좋게 말해서 선의의 경쟁이지 실제로는 다툼과 허영(빌 2:3)입니다. 장로가 되기 위해서 새벽기도회에 나오고, 십일조 헌금을 드리고, 각종 교회 일에 헌신합니다만 그에 상응하는 보답이 없을 경우에는 당장 분노와 미움에 사로잡혀버립니다. 이것은 할례의 본질에서 벗어나서 그 형식에 치우칠 경우에 나타나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행동 양식입니다.

현대인의 일상적인 삶도 역시 할례의 본질이라는 점에서 적지 않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의 일상적인 경험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통해서 자신을 채워나가고, 거기서 자기를 확인합니다.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한다는 바울의 생각과는 달리 현대 삶은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만을 좇아갑니다. 교육에서부터 직장생활, 취미생활 전반에 이르기까지 이렇듯 자기 신뢰라는 허상에서 벗어나는 것은 없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집착은 그것이 아무리 큰 성과를 이루었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아무 것도 남는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 자체가 큰 고통일 뿐입니다. 할례주의자들이 다른 사람을 선동하듯이 자신의 불안을 남에게 전염시킬 뿐입니다. 산업과 기술사회를 지나서 정보와 인터넷 시대에 이르는 동안 인류는 한번도 자신을 비워내지 않고 채우려고만 했다는 사실 앞에서 인간 구원이 얼마나 요원한 일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교가 해야 할 일은 이런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즉 내게 유익하던 것을 해로운 것으로 여길 줄 알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일종의 혁명적 변화라 할 이 경험이 바로 참된 할례이며 마음의 할례입니다.

인식의 토대

바울이 자신에게 유익하다고 생각되던 모든 것을 해롭게 여기게 되었다고 해서 이 세상의 모든 삶이 무의미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바울이 자기가 추구하던 모든

것들을 뚱으로 여긴다는 말은 일종의 허무주의적이거나 냉소주의적 표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절대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귀하다는 고백입니다(8절).

그가 생각할 때 인간의 인식론적 토대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놓여 있어야만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만이 절대적입니다. 상대적인 가치는 그것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만 절대적인 가치 앞에서는 결국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더 나아가 그 상대적 가치를 절대적인 가치로 오해하는 경우에는 악하게 작동될 뿐입니다. 바울의 이 고백에는 한 지성인으로서 절대적인 인식에 대해서, 즉 절대적인 삶의 문제에 대해서 투철하게 고민하던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바울의 진술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깨닫는다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만 그것 자체로는 사실 아무 것도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우리가 이해했다고 해도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달라지는 부분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컴퓨터 이론에 해박한 지식이 있다고 해도 역시 그렇고, 각종 윤리 이론에 대한 이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서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이유는 이런 것들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이 세상의 범주에서만 타당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범주에만 속하는 일들은 그것이 아무리 화려하고 신중하다고 하더라도 역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의 삶을 흥미롭게 만들 뿐이지 완전하게 만들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만을 구하면 그 이외의 문제들은 자연적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또한 아버지의 장례식을 마치고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사람에게 죽은 자는 죽은 자들에게 맡기고 자신을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정도만이 아니라 아버지나 어머니, 형제와 자매를 미워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절대적인 세계에 직면하는 것만이 모든 인간이 선택해야 할 단 하나의 길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곧 모든 인식론의 토대이며 목표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바로 예수님의 이 가르치심, 그의 십자가와 부활에서 이런 사실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굳이 철학자의 생각을 빌려 말하자면 하이데거의 존재(Sein)나 장자의 도(道)가 가리키는 그런 절대적 세계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좀더 발전시켜 봅시다. 이처럼 인식론의 기초가 부실함으로써 우리는 매우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바탕에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너무나 추상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컨대 대다수의 사람들이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재물만 해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것을 확실한 삶의 근거로 생각하고 소유해 보려고 해도 그것들은 안개와 같이 경우에 따라서 사라졌다가 보이고, 보였다가 다시

사라집니다. 그리고 죽음으로 모든 것이 완전히 끝나버립니다. 재물을 모을 수 있는 방식을 많이 안다는 것이 과연 참된 지식이 될 수 있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한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정치력을 가졌다고 해서 그가 참된 생명을 안다고 볼 수 있습니까? 바이올린의 대가가 된다고 해서 그에게 궁극적인 깨달음이 찾아올까요? 그런 깨달음을 소유할 수 있을까요? 그들에게 남는 것은 부지불식간에 사라질 수 있는 사람들의 환호성과 물질과 자부심에 불과할 뿐입니다. 우리는 늘 우리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이 세상의 것에만 집중하면서 그것으로 모든 참된 것을 온전히 인식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흡사 애벌레가 나비의 세계를 무시하고 자기의 경험만을 절대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런 것보다 더 큰 착각이, 더 큰 추상이 어디 있겠습니까?

물리적 사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감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의 리얼리티가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런 물리적 사실도 역시 우리의 생각이나 기대와는 전혀 다르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물체는 빈 공간과 에너지의 결합일 뿐이지 어떤 실체로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물질들이 자기 나름대로 일정한 영역 안에서 확고한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그 물체 안에서 작용하는 에너지가 너무 강해서 어떤 충격이나 지구의 중력에 의해서도 허물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지구의 중력이 물체를 구성하고 있는 그 모든 에너지를 해체시킬 수 있을 만큼 강력하게 작용한다면 이 지구는 사과나 계란 정도의 크기로 압축될 것입니다. 그런 상태가 바로 블랙 홀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려는 바는 우리의 인식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어떤 범주 안에서만 타당하지 그것을 벗어날 때는 그 기초부터 허물어지고 만다는 점입니다.

바울은 이 세상의 범주 안에서만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죽음 이후의 범주 안에서 생명을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입니다. 종말에 완성될 참된 생명 사건이 바로 역사적 실존 인물이었던 예수님에게 발생했다는 인식에 도달한 것입니다. 이런 큰 깨침(돈오)이 있게 되자 그가 이전에 추구했던 모든 것들이 똥처럼 여겨졌습니다. 이것이 곧 회개 “메타노이아”가 아닐까요?

아는 것이 힘이라는 베이컨의 명제에 의해 이루어진 이 시대의 막강한 지식이 오히려 인간과 자연을 파괴하는 힘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오늘의 이 현실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인식의 토대를 바르게 설정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질수록 인간이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삶의 근본을 무시하게 한다는 점에서도 역시 우리는 인식의 토대에 대해서 훨씬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 토대가 참된 생명의 세계를 알게 하고 만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고 믿

습니다.

무위이무불위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9절)는 바울의 진술은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 주제이기도 하고 유대교와 대별된 기독교의 근본이며, 약간 좁혀 말해서 로마 가톨릭과 구별되는 개신교의 신학적 특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위 이신칭의(以信稱義)입니다. 이 의 문제는 이미 앞서 5과에서 검토한 것처럼 인간은 자신의 어떤 종교적, 윤리적 노력으로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렇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율음이라는 것이 의식에 있는가, 아니면 행동에 있는가 라는 영속적인 질문에 해당 됩니다. 신약성서도 역시 로마서와 야고보서가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동양적 사유와 비교하자면 로마서는 노장사상에 해당되며, 야고보서는 공맹사상과 통합니다. 물론 이렇게 거두절미한 채 양측의 사유방식을 직접 연결시킬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긴 합니다만, 또한 이런 사상들이 서로 대립적인 것만은 아니긴 합니다만 어떤 관점의 특징만 부각시킬 때 이런 대비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노자와 장자는 무위이무불위(無爲而無不爲)라는 입장에 서 있습니다. 의도적인 행함이 없음으로써 행할 수 없음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런 시각은 우선 인간의 행위, 그것도 선한 의지로 실현된 행위가 늘 좋게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 반작용을 수반한다는 논리에서 시작합니다. 삼강오륜이라는 윤리 체제가 절대적인 규범으로 작용하게 될 때 그것은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도 하지만 다른 면에서는 인간성을 파괴하기도 합니다. 고도의 예술은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진정한 아름다움을 막아버릴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은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서도 다반사로 일어납니다. 피아니스트 중에서 지나치게 악보에 충실하게 연구하는 사람의 연주는 기술적으로 완벽할지 몰라도 살아있는 연주는 될 수 없다고 합니다.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올라간 사람은 그것으로 인해서 인간의 가장 원초적이고 본질적인 삶의 기쁨과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절대적으로 악하기만 하거나 절대적으로 선하기만 것은, 적대적으로 유익하기만 하거나 손해만 끼치는 것은 없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보면 인간이 의도적으로 무엇을 성취해보려는 노력은 아무 쓸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인간의 본성을 파괴하기까지 합니다. 그런 점에서 노장 사상에 따르면 인위가 아니라 무위로 사는 것이, 즉 자연을 따라 사는 것이 바로 도입니다. 기독교식으로 말하자면 그것이 곧 구원입니다.

저의 짧은 생각에 의하면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바울의 고백은 어딘가 이런 노장의 주장과 비슷한 데가 있습니다. 믿음은 기본적으로 행위가 아니라 무위에 율음의 토대를 두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구원은 인간의 수고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주어진다는 은총론이 바로 이와 상응하는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라는 예수님의 구원 사신도 역시 이에 해당되는 것이 아닐까요? 어떤 특권층에게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그의 지적 능력이나 재산의 능력이나 교양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마음을 비우고 바꾸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던가요?

그런데 사실 이 무위가 힘드는 일입니다. 또한 회개와 믿음이 힘든 일입니다. 가시적인 성공과 그 압박감으로부터 자유롭다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모든 종교적 의식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것이 그렇게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무위보다는 행위가 쉽고, 믿음보다는 율법 수행이 더 쉽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보이지 않는 무위와 믿음 앞에서는 불안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 11과 앞부분에서 바울이 할례로 대표되는 율법에 대해서 가혹할 정도로 비판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자기 스스로 율법에 완전해보려고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사람으로서,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제자에게 할례를 받게 했으며, 어떤 면에서는 윤리적인 면에서 무척 엄격했던 사람으로서 이렇게 과격하게 할례와 율법을 비판한 이유는 기독교의 본질이 이 문제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율법과 복음의 대립입니다. 이 두 관계는 신학사적으로도 사실 무척 오래된 논쟁이기도 합니다. 여기서서는 그런 신학사적인 과정에 대해서는 접어두기로 하고, 율법의 정신과 복음의 정신이 어떤 결과를 빚게 되었는가 하는 점을 간단히 비교하는 것으로 끝내기로 하겠습니다.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권리를 주장하려는 인간의 노력이라 할 수 있는 율법에 의한 의는 자신이 이룬 업적으로 통해서 다른 사람과의 차이점을 부각시켜 나갑니다. 많은 기도와 헌금, 사회 봉사, 고상한 태도, 더 나아가서 예술적 능력이나 사업 능력도 결국은 자신이 다른 사람과 구별되고 싶다는 욕망을 치달립니다. 능력이 클수록 그 사람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특별한 취급을 받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 사람은 만족감을 얻습니다. 판넨베르크는 “사랑의 능력”이라는 설교에서 이런 모든 능력이 은사이지만 그것 자체로는 별로 큰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심지어는 믿음까지도 역시 은사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존재 양식인 사랑에 근거하지 않을 때 우리는 뺨과리에 불과하고 아무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고전 13:1-3). 그렇습니다. 율법은 그 율법을 수행하는 이들로 하여금 다른 사람과 분별심을 갖게 함으로써 교만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그런 흔적을 우리 자신의 모습에서도 그런 흔적을 수다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복음은 자신의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완전히 의존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어떤 능력이 드러났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교만하거나 공연한 분별심에 빠지지 않게 됩

니다. 오히려 자기를 낮추게 되고, 다른 이와 하나되게 합니다.

12. 부활, 하나님 안에 은폐된

미래의 생명

3:10,11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존재망각, 하나님 망각

바울은 3장에서 계속 적대자들과의 논쟁을 날카롭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손할레당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에 이른다는 사실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 사상의 가장 핵심에 속하는 이 부활도 역시 적대자와의 논쟁을 배경에 두고 이해되어야 합니다. 온전히 종교적 업적에만 집착하는 율법주의자들을 향해서 자신의 종교적 토대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 토대가 부활이라고 말입니다.

어떤 이들은 부활절에만 부활 설교를 하거나 들으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큰 착각입니다. 매주일에 선포되는 교회의 복음 설교는 사실 이 한 가지 사실, 예수가 부활했으며,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에 모아져야합니다. 왜냐하면 부활이야말로 여전히 잠정적이고 유한한 삶으로부터 궁극적인 삶으로 돌입하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부터만 교회가 이 세상의 다른 이념이나 철학이나 종교로부터 구별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런 부활 신앙을 통해서만 교회의 모든 인간적 약점도 극복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설교자들이 부활에 관해서 별로 언급하지 않는다는 점만이 아니라 설령 부활을 언급하더라도 단순히 사실 전달에 머물러 있지 그 사건이 내포하고있는, 그리고 의미하고 있는 실질에 대해서는 별로 말할 게 없다는 점에서 설교의 위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부활 망각의 문제는 하이데거가 서양 철학사에서 다루어진 것이 단순히 존재자(Seiende)였으며 그것을 존재하게 하는 존재(Sein) 자체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음으로써 존재망각에 빠졌다는 분석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곧 교회에서 일어나는 적극적인, 혹은 소극적인 많은 일들이, 그리고 많은 설교와 성서연구가 하나님 자체와는 별로 상관이 없고 그저 교회 생활에만 집중되고 있다는 사실과도 맥을 같이 합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 부활, 구원이라는 단어는 사용되지만 하나님 자체에 대해서는, 부활과 구원 자체에 대해서는 별로 할 말이 없습니다. 이들은 교회의 언어들이 담고 있는 인류 정신사와 문명사를, 더욱이 하나님의 보편사적 계시역사를 알지 못할뿐더러 아예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철학사에서 “존재망각”이 있었듯이 교회도 역시 “하나님 망각”에 직면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에서 말한 대로 오늘 우리들의 설교나 교회생활이 매우 인간적인 관심사에

머물러 있는데 반해서 복음서는 두말할 것도 없고, 바울의 편지들도 신앙의 근본에 천착해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물건을 만드는 공장이나 물건을 파는 가게가 아니라 인간과 세계의 구원을 존재론적으로 붙들고 나가는 삶의 태도라고 한다면 우리는 율법을 성취하는 일에, 즉 교회를 세련되게 만드는 일에 몰두하기보다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알아 가는 일에 전념해야 합니다. 그저 들은 풍월로서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체험된 그 세계를 서로 나누고 확장시켜나가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부활은 그 사건이 우주론적인 차원에 현실화될 때까지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한 거시담론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종말론적 의미에서 다루어져야 할 궁극적 실질의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원래 구약성서에는 구체적인 부활 신앙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살아있을 때의 삶만이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소위 묵시사상이 형성됨으로써 죽은 자가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들이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이런 묵시사상이 신약성서 형성에 적지 않게 영향을 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묵시사상에서 어렵풋하게 생각되던 부활이 이제 초대 기독교에서 가장 확실한 신앙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지상의 삶을 마쳤던 나사렛 예수에게서 발생한 부활이 우리 모든 인류가 미래에 참여하게 될 부활 생명의 근원이라고 믿는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이 부활한 예수에게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어떤 누구도 부활의 생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인간의 생명이 죽음으로 끝나면 너무나 무의미하고 허무하다는 일반적인 직관에 의해서가 아니라 나사렛 예수에게서 발생한 역사적 사건의 확실성에 의지해서 부활을 희망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진술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리스도와 고난을 같이 나누고 그리스도와 같이 죽는 것입니다(10절). 부활한 분은 바로 십자가에 죽으신 역사적 예수님이며, 십자가에 달리신 분은 바로 부활하신 그분입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의 부활에 근거해서 이 부활을 믿고 있는 기독교인들도 이 부활 문제에 깊숙이 들어가게 되면 복잡하게 되니까 별로 생각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두말 할 필요도 없이 부활은 아직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세계입니다. 다만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서 선취된 것이라고 이해하고, 또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만 실증적으로 설명하기는 참으로 힘듭니다. 이 문제는 종말이 임한 후가 되어야 명명백백하게 밝혀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만, 우선 몇 가지 관점에서 우리의 생각을 정리해보도록 합시다.

단한 생명이해

첫째, 자연과학적 사유방식에 묶여있는 사람들은 부활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

고 주장합니다. 심장이 멈추고 뇌파가 정지되고, 땅에 묻혀 썩어버린 사람이 다시 형체를 입고 살아난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말합니다. 과연 자연과학적 사실은 인간의 부활을 부인할까요? 우선 우리는 자연과학 그 자체가 매우 한정적인 진리라는 사실을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비록 지난 2천년의 기독교 역사가 자연과학적 진리를 배척하다가 이제는 그것으로부터 오히려 수모를 당하는 처지가 되었지만, 또한 자연과학이 인간을 미몽에서 깨어나도록 하는 일에 상당한 성과를 거두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진리가 오직 자연과학에 의해서만 재단될 수 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현대과학은 과학적 사실의 어쩔 수 없는 한계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불확정성 이론으로 노벨 물리학상을 탄 하이젠베르크는 그 동안에 이루어진 물리학적 이론들이 미시의 세계에서는 타당하지 않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관찰의 대상이 되는 미립자는 관찰되는 그 순간에 다른 형태로 변해버리기 때문에 물리학적 관찰과 실험으로 밝혀낼 수 없다는 말입니다. 또한 생물학적 진리도 역시 마찬가지 아닐까요? 진화론적 근거가 아무리 타당하다고 하더라도 이 지구의 생명체가 반드시 그런 기계론적 질서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과학적 예상보다 훨씬 먼길을 돌아서 현재의 생명 세계가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자연과학적 사실들이 허망하다거나 무의미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어떤 범주 안에서만 타당한 질서가 궁극적인 생명 세계를 판단하는 시금석으로 나서는 위험성을 제기한 것입니다. 즉 이 말은 자연과학적 사유로 인해서 부활이 부정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자연과학과 기독교 신앙의 관계는 계몽주의 이후로 오랫동안 갈등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 관계 유형을 일단 다음과 같이 구별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기독교가 과학보다 우월하다는 입장. 둘째는 과학이 기독교보다 우월하다는 입장. 셋째는 과학과 기독교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입장. 넷째는 양자가 하나의 진리를 여는 작업에서 공속(共屬)적이라는 입장. 중세기까지는 기독교의 교리가 과학을 압도했습니다. 교권으로 과학자들의 실험과 연구결과를 가차없이 재단하고, 심지어는 종교 재판에 회부하기도 했습니다. 코페르니쿠스와 갈릴레오 사건은 기독교 교리의 우월감이 저지른 결정적인 과오였습니다.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과학은 기독교 사상을 광신이나 미신으로 폄훼 하게 되었습니다. 기독교는 비과학적이라는 분위기가 오늘날도 매우 팽배한 상태입니다. 19세기에는 이제 과학(철학)과 신학이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태에 이르게 됩니다. 절대 의존의 감정(쉴라이에르마허)이나 윤리(칸트, 리츨)만이 기독교 신학의 대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20세기에 들어선 다음에 칼 바르트를 중심으로 한 말씀의 신학이 철학과 과학을 여전히 신앙과 신학의 울타리 밖에 내버려두었습니다. 이제 21세기로 접어드는 이 시점에 신학은 과학과의 새로운 관계를 설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연과학 실증주의가 무너짐으로써 신학이 과학과

대화할 수 있는 영역이 넓어진 것입니다. 이미 이런 단초는 이미 오래 전에 진화론 신학을 제시한 데이야르 드 샤르댕에게서 볼 수 있으며, 오늘날에는 보편사 신학을 주창한 판넨베르크가 그 선봉에 서 있습니다. 판넨베르크는 이미 1987년에 “과학 이론과 신학”이라는 저서를 통해서 자연과학과 정신과학 사이의 가교를 세웠으며, 1993년에는 “자연신학”(박일준 역, 한국신학연구소, 2000년)으로, 1995년에는 “신학과 철학”(정용섭 역, 한들출판사, 2001년)으로, 또한 그 후로 여러 강연과 글을 통해서 신학의 장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어쨌든지 이제 세계를 창조한 하나님을 말하는 신학은 현실 전체를 신학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요구는 정당하다고 봅니다. 이런 점에서 신학은 생명을 달린 것으로 이해함으로써 부활을 비과학적인 것으로 매도해버리는 이들에게 보편 타당한 대답을 모색해 나가야 합니다.

욕망으로서의 생명이해

둘째, 부활에 대한 또 하나의 오해는 부활을 생물학적 연장선 속에서 이해하려는 것입니다. 부활을 일종의 재생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하나님의 나라는 배고픔과 질병이 없고, 고통과 슬픔이 없는 곳, 사시사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천사와 같이 노래하며 늘 기쁨과 자유가 충만한 곳이라고 합니다. 요한 계시록의 묵시문학적 서술을 이렇게 문자적으로만 이해한다는 것은 이 땅에서 추구하던 삶의 욕망을 죽음 이후에도 연장시키려는 생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은 말 그대로 일종의 유토피아니즘이지 기독교적인 종말론이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이 아닙니다. 여러 위대한 정치가와 사상가들이, 혹은 사교의 교주들이 민중들에게 제시했던 이런 유토피아니즘으로는 인간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인간의 생각이 닿을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완전한 세계를 머리속으로 그려보십시오. 현재 불행이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영원히 잘 먹고 잘 살면 그것이 곧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게 될 참된 생명의 세계일까요?

물론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시다라는 사도신경의 끝 문장을 보면 우리의 생물학적인 몸의 부활을 가리키는 게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고전 15:50)고 진술했으며, 사도요한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요 6:63)고 했습니다. 신약성서는 이런 육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에서 서술하고 있는데 반하여 사도신경이 몸이 다시 사는 것이라고 명시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그만한 사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초기 기독교 시대에 서양 정신사에서 막강한 기세를 올리던 헬라 철학과의 투쟁에서 도입된 명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헬라 철학은 인간을 영육이원론 안에서 분석함으로써

육을 비하한 반면에 유대교와 기독교는 영과 육이 통합된 존재로 보았습니다. 이 차이가 작은 것 같지만 실제로는 엄청납니다. 기독교인들에게 몸은 영만큼 중요한 인간 구성요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면에서 몸이 다시 사는 것이라는 표현은 인간이 다시 사는 것이라는 뜻으로 보아야 합니다.

위에서 약간 까다로운 문제를 다루었습니다만, 여기서 핵심은 기독교의 부활에서 육이 배제된 영적인 차원만이 중요한 게 아니며, 그렇다고 오늘 이 땅에서 살아가는 방식인 몸이 이 땅에서 성취해보려고 했던 행복한 삶의 조건에 대한 인간적 욕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부활 신앙은 우리에게 여전히 신비인 궁극적 생명의 세계에 대한 희망이며 기다림입니다.

영혼은 불멸하는가?

셋째, 약간 까다로운 문제로서 영혼 불멸설을 생각해봅시다. 많은 사람들은 죽었을 때 육신은 땅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죽지 않고 하나님에게로 간다고 믿습니다. 이런 생각은 일단 플라톤이 <파이돈>에서 말하고 있는 영육이원론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플라톤은 그 책에서 인간의 육은 가치가 없지만 영혼은 영원하고 불멸하고 순수하다고 했습니다. 그에 의하면 죽음은 인간이 육이라는 감옥으로부터 영혼이 해방되는 기쁨의 사건입니다. 기독교 신학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친 플라톤의 중요성으로 인해서 원래는 없었던 영혼 불멸설이 기독교 안에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1515년 라테란 공의회에서 이 영혼 불멸설을 정식 교리로 채택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은 구약성서에서 영이라고 부르는 것은 플라톤이 말하는 것과 다르다는 점입니다. 플라톤의 영은 인간의 육과 대별되는 의미이지만 구약성서의 영은 생명을 의미합니다. 루아흐라는 히브리어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다고 영혼 불멸설을 사이비 내지 이단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여기에는 판넨베르크의 설명이 도움을 줍니다. 그는 <사도신경해설>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기독교가 플라톤적 영향이 있는 영혼 불멸설을 받아들인 이유는 개체 인간이 죽는 시점과 미래에 있을 죽은 자의 보편적 부활의 시점 사이에 놓여 있는 중간 시기와 연관된다고 합니다. 비록 영혼이 죽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영혼만으로는 온전한 인간이 아닙니다. 몸이 포함된 온전한 인간으로의 부활이 이루어지는 그 최후의 종말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폐 가운데 들어 있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은폐가 하늘이며, 그 상태에 대한 표현으로 영혼불멸설이 자리를 잡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영혼불멸설은 육은 썩고 인간의 영만이 영원히 존재한다는 헬라 사상이 아니라 참된 생명의 신비인 부활을 기독교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일종의 사상적 차용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취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 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골 3:3,4).

미래로 열린 생명이해

부활 문제는 결국 생명을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우리의 생명이 이 땅의 것으로 완전히 끝나버린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기독교의 부활을 받아들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생명은 죽음이라는 경계선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너머에서 완성된다고 믿는 사람은 부활을 근본적으로 부인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소박하게 이렇게 질문해 봅시다. 과연 무엇을 우리는 생명이라고 불러야 합니까? 우리는 아마 생명을 여러 차원에서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여자의 몸에 있는 난자와 남자의 몸에 있는 정자도 생명의 씨앗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난자와 정자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좀더 구체적인 생명을 구성하고, 여성의 몸에서 분리되어 이 세상에 나왔을 때 이 생명은 훨씬 확실한 생명체가 됩니다.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이 땅에서의 모습만 보더라도 생명에는 여러 차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이 죽어서 이제 육체가 다시 땅으로 흩어진다고 해서 모든 생명이 완전히 끝나버리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변화된 몸을 입게 될 것이라고 말하듯이 우리가 아직 인식할 수 없는 차원으로, 즉 아직은 하나님의 은폐 안에 숨어 있기 때문에 확인할 수는 없지만 새로운 생명체로 변화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다른 차원의 생명 세계, 변화된 생명의 세계를, 그 비밀의 세계를 희망하며 사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부활 신앙입니다.

그러나 아직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부활의 리얼리티를 온전히 밝혀낸다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말한 대로 생명의 모든 것은 종말이 이르러야 밝히 드러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이해함으로써, 또한 기독교의 전승에 나타난 사건과 그 경험들을 소중히 간직하고 되살려냄으로써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되면 우리는 부활에 대한 그의 약속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자기를 비우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게 됨으로써 미래에 다가올 생명의 힘에 휩싸이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아무리 우리가 부활에 대한 확신이 단호하더라도 그 객관적 사실을 서술할 수는 없습니다. 그 세계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다만 그 생명의 세계에 자신을 온전히 맡기는 사람들에게 그것은 미래에 이루어진 약속이면서 동시에 현재에 일어날 생명의 힘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의 영적인 시각을 좀더 심화시켜나가는 일은 신앙성장에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영적인 눈높이의 심화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비록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에게 다가올 영적인 생명의 깊이를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처럼 우리의 생각 속에 그 부활의 생명을 향한 희망이 가득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의 삶입니다.

13. 완전과 불완전 사이에서

3:12-16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좇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꾀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좇아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찌니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완전함에 대한 욕망

앞서 한번 지적했듯이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왜곡된 교리와 의 논쟁을 감안하고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 거짓 교리가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다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만 바울의 강조점을 따라 가보면 여기서 무엇이 관건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우선 그의 논지는 주로 이렇게 모아집니다. 첫째는 누가 참된 할례자인가(3:3), 둘째는 어떻게 그리스도를 참되게 인식할 수 있는가(3:9), 셋째는 현재의 삶에서도 완전해 질 수 있는가(3:12이하). 첫째와 둘째 논점은 이미 앞에서 다루었습니다. 이제 셋째 논점이 이 단락에서 다루어질 차례입니다. 과연 기독교인은 이 세상에서 완전해질 수 있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사실 이 세계의 모든 종교는 완전과의 합일을 추구합니다. 이런 저런 모습으로 절대, 완전의 세계에 도달하려고 애를 쓰는 게 바로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종교인들이 고행이나 수행이나 경건생활에 통달함으로써 얻어보려는 상태가 그런 세계입니다. 예컨대 예수 당시 세상에 속한 어둠의 자녀들과 달리 자신들을 빛의 자녀라고 생각한 쿰란 공동체는 세상과 완전히 구별된 생활을 함으로써 완전에 들어가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서 이렇게 완전을 주장하던 이들은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줄곧 보아왔던 것처럼 그들은 율법이 가르쳐주는 지침에 충실함으로써 완전해질 수 있다고, 완전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들의 율법적인 완전의 세계가 얼마나 취약한 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 스스로 바리새인으로서 히브리인 중의 히브리인이라고 했으며, 율법적으로 흠이 없다고 생각할 정도로 이 율법에 충실하게 살아왔지만 그것으로는 결코 의로움을 획득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인간이 율법적으로 완전할 수 없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죄가 인간을 지배하기 때문인데, 여기서 말하는 죄는 곧 인간이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혼신을 다해 애를 쓰다보면 어느 정도의 윤리적이고 율법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긴 하

겠습니다만 그의 의식은 여전히 자기 집착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복음서에는 이런 바리새인들의 이중성이 예수님에 의해 적나라하게 노출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기록된 대로 원(原)인류인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취하게 된 근본 이유는 하나님처럼 완전하게 될 수 있다는 뱀의 유혹 때문이었습니다. 동생 아벨을 살해하고 동생이 어디 있느냐는 하나님의 물음 앞에서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창 4:9)라고 반문한 가인은 그 한 인격체가 아니라 우리 인간 보편의 속성을 말합니다. 이처럼 죄는 인간을 총체적으로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을 윤리적으로 완성시켜 보겠다는 시도는 불가능합니다. 판넬베르크는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소책자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을 자신 안에 가두는 자기 고집, 이것이 바로 죄다.” 그의 생각에 따르면 자기 자신을 뛰어넘어 더 큰 창조적 힘, 생명의 힘에 자신을 맡기지 못하는 게 바로 죄입니다. 어거스틴은 죄를 “휘브리스”(교만)라고 했으며, 토마스 아퀴나스는 “아모르 수이”(자기 사랑)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약간씩 다른 표현입니다만 죄는 결국 자기 집착에 모아집니다. 이런 점에서 기독교에서 죄라고 할 때는 실정법이나 도덕 규범의 차원이 아니라 존재의 차원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자신의 존재를 걸어두고 사는가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회개(메타노니아)는 도덕, 윤리 규범을 조금씩 선한 쪽으로 바꾸는 것에 머무는 게 아니라 삶의 자리를 온전히 하나님에게로 돌리는 결단입니다. 역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지 않는 게,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바로 죄입니다. 이런 점에서 바울이 지적하려는 바는 율법(종교적, 윤리적 인간 행위)으로 완전의 세계에 도달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야말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신비적인 차원에서 완전을 생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자신은 이미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그 어떤 죄 앞에서도 자유롭기 때문에 완전하다는 주장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이 율법에 의존적인 면에서 완전을 추구한다면 무율법주의자로 불리는 이들은 율법을 초월함으로써(무율법) 완전을 지향합니다. 말하자면 이들에게는 이미 영적으로 완전한 세계에 들어가 있으니까 육에 속한 모든 문제들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뜻입니다. 영지주의적인 이원론에 근거한 이들의 주장은 보기에 따라서 매우 그럴 듯 하지만 사실은 율법적으로 완전할 수 없다는 인간의 한계를 피해보기 위해서 시도하는 또 하나의 다른 완전을 향한 욕망입니다. 이런 욕망은 인간을 승화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위선에 빠지게 하든지, 아니면 자기를 부정하게 만듭니다. 한때 한국 교회에서는 이들이 구원파라는 이름으로 상당히 적극적으로 활동했습니다. 물론 이들이 이단으로 단죄되긴 했습니다만, 사실 오늘날 정통 교회 안에서도 이런 경향이 남아 있습니다.

완전을 향한 욕망은 인간의 내부 담겨 있는 매우 보편적이고 강렬한 유혹입니다. 자기 스스로 완전한 존재가 되고자 했던 왕과 장군과 정치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면에서 인간의 예술사는 바로 완전을 향한 몸부림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사소한 일상생활에서도 이런 완전의 유혹은 절실하게 드러납니다. 남자와 여자는 상대방에게 완전한 사람으로 보이려고 무던히 애를 쓸 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서도 그런 상태를 요구하다가 서로간에 지쳐버립니다. 요즘의 대중 매체를 통해서 무한정으로 선전되는 온갖 종류의 상품들은 대개가 이런 완전해 보려는 인간의 욕망을 자극시킵니다. 여성들의 샴푸 선전을 보셨습니까? 그 샴푸를 사용하면 모든 여성들의 머릿결이 비단결같이 될 것 같습니다. 그 광고를 찍은 여성이 머리 손질만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고 있는지 알고 있지만, 그래도 시청자들은 화면에 나타난 그 여성만 보고 자기도 그렇게 될 것처럼 생각합니다. 완전한 아름다움을 향해서 몸부림치는 여성 심리를 이용한 선전술입니다. 물론 남성들도 이러 심리에서 예외가 아닙니다.

기독교적인 삶의 긴장

바울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오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고 고백합니다(12절). 완전할 수 없는 육의 완전에만 치우치거나, 반대로 그것을 포기하고 영적인 완전에만 치우치는 게 아니라 육과 영이 긴장 관계를 이룸으로써 새로운 차원에서 완전을 지향합니다. 바울이 이 구절에서 사용한 “텔레이오스”라는 형용사는 도덕적이거나 실제적인 완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신앙적 긴장의 원리라는 점에서 사용되었습니다(물러). 초대 교회에서 “하기오스”라는 단어가 일반 성도를 뜻하기도 하지만 이미 구원받아 하늘나라에 올라간 성자를 뜻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즉 성도는 원칙적인 면에서 성자이지 실제적인 면에서는 성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사이의 긴장 가운데서 살아간다는 말입니다(빌 4:21,22 참조). 바울은 기독교인들의 구체적인 삶의 현실 속에 내재된 이러한 긴장을 보았으며, 자기 스스로 느꼈습니다. 그는 자기 안에 있는 또 하나의 다른 자아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게 한다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는 자신이 이미 성취하거나 완전해진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다만 그리스도 예수에게 붙잡힌 바의 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고 했습니다(12절).

바울이 완전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바울의 인간적 노력이 소홀했기 때문일까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바울의 인간적 한계가 있을지 모르지만 성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에게는 그런 책임을 물을 게 별로 없습니다. 앞에서도 언급되었던 것처럼 그는 자기가 성취했던 모든 것을 쓰레기로 여길 정도

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만약 바울의 노력으로도 이를 수 없는 완전이라면 완전하지 못한 것이 인간의 책임일 수는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일을 이를 수는 없다고 해서 그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게 아닌가요?

이런 점에서 바울이 아직 완전하지 못하다고 말한 것은 어떤 율법적인 성취를 이루지 못했다는 뜻이라기보다는 그가 이루어야 할 궁극적인 목표가 근본적으로 달랐다고 보아야 합니다. 앞서 12과에서 공부했듯이 그것은 곧 생명의 세계에 대한 신비를 가리킵니다. 그는 율법주의자들과 경쟁을 하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인식하게 된 어떤 궁극적인 현실성을 말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그가 이루어야 할, 더 정확히 말해서 자기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궁극적인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율법을 완성시키는 것처럼 확실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기 때문에(고전 13:12) 아주 간단히 우리 손에 잡히는 게 아닙니다. 완전한 헌신으로도, 강철같은 믿음으로도 손에 넣을 수 없는 세계입니다. 하나님을 손에 넣을 수 있는 사람은 어느 천지에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 그를 만난다는 것, 하나님 나라에 참여한다는 것, 궁극적인 생명의 세계를 접한다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에버하르트 융엘의 유명한 책제목이 말하듯이 하나님은 세상의 비밀(Gott als Geheimnis der Welt)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성서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나 예언자들이 예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구원 사건을 일으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은폐의 방식으로 이 세계에서 우리와 만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직접 만날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 비밀 앞에서 불안하기 때문에 무언가 가시적인 사물이나 신념을 통해서 절대적인 것을 성취해보려고 하지만 그런 노력은 무용지물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성과를 이룩한 자연과학도 역시 아주 작은 범주 안에서만 그 원리들을 설명할 수 있을 뿐이지 생명의 근원과 미래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예컨대 인류가 달에 발을 디뎠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생명의 근본이 약간이라도 달라진 게 있나요? 화성과 목성에 사람을 보내도 결과는 똑같습니다. 배자 복사 기술을 발견해낸 우리의 첨단 유전공학이 우리 인류의 미래를 영원히 보장하고 있나요? 우리는 여전히 <존재와 시간>을 모르고 있습니다. 아무리 자연과학적 기술이 미지의 세계를 열어낸다고 하더라도 “왜 존재자는 있고, 그 이외의 다른 것은 없는지?”(Warum ist überhaupt Seiendes und nicht viel mehr nichts?, 하이데거) 모릅니다. 이 하나님의 은폐와 비밀 앞에서 우리 인간이 이룬 것은 이루지 못한 게 많다는 것을 확인해줄 뿐입니다. 이것은 정치, 경제, 과학, 종교에 이르기까지 모든 인간적 노력에 해당됩니다. 종말이 아직 이르지 않은 한 우리는 궁극적인 면에서 얻은 것도 없고 이룬 것도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바울의 고백은 이 세계를 진지하게 생각하려는 모든 사람

들에게 해당됩니다.

신앙의 집중력

그러나 바울은 자기의 무력감 속에 빠져서 자포자기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이 세상과 그 생명의 궁극적인 실체가 아직 비밀에 싸여있지만 그는 분명한 삶의 목표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쫓대를 잡으려고 쫓아간다는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 쫓대는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잡힌 바 된 그것입니다. 이렇게 쫓대를 향한 바울의 자세는 뒤의 일은 잊어버리고 오직 앞에 놓여 있는 것만을 향해서 매진하는 것입니다. 그가 비록 율법주의자들과 투쟁하고 있지만 율법주의자들 못지 않게, 오히려 실질적인 면에서 그들보다 훨씬 구체적인, 도덕적이고 금욕적인 삶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남을 구원하다가 자기가 멸망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더욱 열심히 자기 몸을 쳐 복종케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바울이 다시 율법에 충실했다는 게 아니라, 율법과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기독교적인 삶을, 그 경건생활을 실천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바울이 잡으려는 쫓대는 결코 율법이나 경건이나 윤리적 실천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의 세계, 부활의 세계였습니다. 그 하나만의 목표를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이외의 것들은 사소하게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결혼 문제도 그에게는 다급하지 않았으며, 당연히 재산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2001년5월에 출판된 김성동 씨의 소설 <꿈>을 읽었습니다. 김성동은 1947년 충남 보령에서 출생했는데, 19세의 나이로 출가하여 (참으로 일찍 철이 들었군요.) 10여 년 간 불문에 들었다가 1976년에 하산했습니다. 1978년에 쓴 <만다라>로 한국 문학 신인상을 수상함으로써 유명 작가가 되었습니다. <꿈>은 수행하는 어떤 승려가 젊은 여성을 만나서 함께 보냈던 얼마간의 시간을 뒤돌아보니 그게 꿈이 아니었나 하는 깨달음을 소설 형식으로 쓴 작품입니다. 수행 정진하던 승려의 마음 속에 무슨 이유로 젊은 여성에 대한 강한 그리움이 밀려들었는지 정확하게 설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 추상적인 느낌이 없지는 않았으나, 그런 논리성이야 이런 소설에서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접어두어도 좋습니다. 자신이 반야라는 이름을 붙여준 이 젊은 여성과의 정신적인, 혹은 육체적인 접촉마저도 일종의 수행으로 생각하고 접근하는 이 승려의 자세가 돋보였습니다. 어쩌면 보기에 따라서 이 사람이 위선적이라거나 이중적이라고 비판할 수도 있겠지만 자기의 삶을 이렇게 한쪽(구원)으로 집중시켜 나가는 자세는 가능하다고 보며, 당연히 그래야만 한다고 봅니다. 이 책은 내용도 내용이지만 순수 우리말을 구사하는 데 탁월했습니다.

기독교인의 삶에는 당연히 이러한 신앙적 방향성(집중력)이 분명해야 합니다. 오

직 한 가지 목표만을 향한 그 지향성을 갖지 못한다면 기독교적인 구원은 혼란에 빠질 뿐만 아니라 그 실체를 상실하게 됩니다. 물론 이 말이 하나님의 권한이며 그의 선물이라 할 구원을 우리의 노력으로 이룰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 구원과 생명의 세계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한 사람은 자연적으로 자신의 구체적인 삶 안에서 그 한 가지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에서 이런 방향성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똑같이 필요로 하고, 그들이 만족해하는 것을 똑같이 만족해하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들에게 기독교는 절대적인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지만 있으면 더 좋은 교양일 뿐입니다. 일전에 어느 교회의 강단에 걸려있는 현수막을 보았습니다. 일명 “우리 교회의 금년도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사실 교회 강단에 그런 구호를 써 붙인다는 것 자체가 너무 인위적인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지 대구시의 성시화를 비롯해서 그런 진부한 제목들이 대 여섯 적혀 있었는데, 그 중에 눈에 띄는 것은 “우리 자녀들 중에 인물과 재벌이 나오게 해주옵소서!”였습니다. 참으로 노골적인 기도제목이었습니다. 화목한 가정을 위한 기도라면 모를까, 도대체 인물과 재벌이 하나님의 나라와 어떤 관계가 있다고 이런 기도의 제목이 잡혔을까요? 사실 민중의 고난은 어떤 면에서 이런 인물과 재벌에 의해서 벌어졌다고 보는 시각이 있는데 말입니다. 제가 굳이 어느 교회의 기도 제목을 시비 걸 듯이 거론한 이유는 오늘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생명의 세계를 향해서 한 마음으로 정진하지 못하고 자기를 성취하는 일로 인해서 마음이 분분하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없고 자기 성취와 욕망이라 할 교회의 형태만(재물숭배) 남았습니다. 이런 상태로 우리가 바울을 신앙의 본으로 삼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간혹 기독교 소종파의 행태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세상에서의 삶을 완전히 부정해버리는 듯한 삶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아가야 할 이 세상에서 기독교적인 삶의 일관성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말하자면 오늘과 같은 극단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 기독교인만이라도 그런 자본의 횡포에 휩싸이지 않는 삶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자리에서 모든 기독교적인 삶의 방향성과 일관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없습니다. 모든 기독교인들이 처한 삶의 자리가 다양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한 모든 삶에서 세상과 대립하는 게 아니라는 점에서 본인들이 경우에 따라서 판단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바울처럼 오직 하나의 목표를 설정하는 일은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기독교인의 삶에는 그런 생명의 세계를 향한 일관성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 나라의 완전과 이 현실의 불완전 사이에서 긴장하고 있는 기독교인이 유지해야할 신앙적 삶의 태도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운동장에

서 달음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달음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으로다(고전 9:24-27).

14. 몸이 변하리라

3:17-21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희의 마음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바울은 앞 구절(12-16)에서 완전주의자들과 격한 논쟁을 예상외로 급히 종결지은 다음에 나를 본 받으시오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듣기에 따라서 너무 앞서 나가는 게 아닌가 하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 이 말은 자기 자신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그렇게 문제가 되는 표현은 아닙니다. 이 문장은 고린도전서 11장1절의 내용과 연관해서 이렇게 해석되어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방식대로 따라 사시오. 바울은 아울러 이렇게 본 받고 사는 이들을 유의해서 살려주라고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과 삶이 방향을 잡지 못하는 이유는 본 받을 어른이나 선생님들이 별로 없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나를 본 받으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또는 사람들이 본 받고 싶어하는 사람은 바울처럼 자기 자신을 비워두고 어떤 절대적인 대상을 철저하게 따라서 살아갑니다. 위대한 정치인이나 예술가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사상가나 종교인들 중에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이루었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은 대개의 경우에 자기 자신을 성취하려고 하기 때문에 남의 부러움은 사지만 존경을 받지는 못합니다. 교회의 크고 작은 행사에 참석해보신 분들은 잘 알겠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는 명분으로만 거론되고, 모든 명예는 그런 교회 행사와 직간접으로 해당되는 사람들이 독차지합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우리가 신앙의 근본을 찾아보려고 해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바울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것 같이 그렇게 살기를 바란다는 명령은 아무나 내릴 수 없습니다.

땅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방식대로 따라 사시오라고 과감하게 진술하는 바울은 이런 삶과 반대되는 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그가 여기서 눈물을 흘리며 경계한 사람들은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이들입니다(18절). 그리스도의 십

자가를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리는 이들은 빌립보서 3장에서 계속 거론되고 있는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특히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분명히 십자가의 원수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십자가를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리는 이들이 교회 밖의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안의 사람들이라는 사실이 참으로 이상하게 보입니다. 어떤 진리가 이해되지 않고 왜곡되는 것은 그 공동체 밖에서만 아니라 그 안에서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이 참으로 아이러니입니다.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은 종교적으로 무식했던 사람들이나, 죄인, 세리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서 예민하게 살아간다고 자부하던 사람들이었다는 점에서도 이런 현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선입관입니다. 고정관념이지요. 사실을 알아보기도 전에 자기 내부에 고정되어 있는 생각으로 미리 판단해버리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인 막내 딸 지은이와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는 중에 그 애의 머리 속에 벌써 굳어진 생각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북한 사람은 무조건 나쁘다, 일본 사람은 나쁘다, 하는 식입니다. 역사적으로 나쁜 일을 했지만 그 대상 전체를 나쁘다고 예단해 버린다는 것은 아주 위험합니다. 이런 점에서 2001년도에 일본 교과서 왜곡 사건이 발발했을 때 이에 항의한답시고 어느 초등학교에서 어린 학생들을 이런 시위에 동원한 것은 어느 모로 보나 비교육적인 행태입니다.

십자가의 원수처럼 살아가는 이들의 특징이 네 가지로 설명되어 있습니다(19절). 첫째,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종교적 경건과 윤리적 교양을 절대적인 가치로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은 그것이 통용되지 않는 세계에서는 아무런 할 말이 없습니다. 더구나 죽는 순간에 그들의 모든 노력은 헛수고로 돌아갑니다. 둘째, 그들의 하나님은 배부름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에서만 아니라 이미 로마서에서도 이런 이들을 경계했습니다.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기나니 공교하고 아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롬 16:18). 이들 율법주의자들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먹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만 마음을 쓰지 실제로 하나님을 위한 희생에는 관심이 없습니다(골 2:20-23참조). 예수님의 비판처럼 그들은 하루살이는 골라내지만 낙타는 그대로 삼켜버립니다. 종교의 근본을 이런 윤리나 습관에서만 찾는 사람들의 하나님은 실제로 배일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 그들의 영광은 부끄러움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부끄러움이라는 단어는 벌거벗었다는 뜻이라고 합니다(물려). 그러니까 그들이 자랑하는 할례는 벌거벗어야만 확인할 수 있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할례 받은 저희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로 할례 받게 하려 하는 것은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니라(갈 6:13). 넷째, 율법주의자들은 땅

의 일을 생각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땅의 일은 인간의 구체적인 삶 자체를 말하기 보다는 세상으로 기울어진 세속적인 마음을 가리킵니다. 율법의 체계를 세워나간다고 하더라도 할례예식을 강화하는 것들은 그런 노력으로 무언가를 이루어보려는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사람들의 일입니다. 우리가 복음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대로 예수님에게서 아무리 하나님의 일이 증거된다고 하더라도 바리새인들은 그것이 자신들의 율법적인 원칙에서 약간만이라도 벗어나면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나 그분에게서 일어난 일을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율법을 절대적인 것으로 생각하는가 아닌가 라는 기준에서만 판단했다는 것은 바로 그들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생각한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바울은 이런 율법주의적인 적대자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기초한 복음을 수호하는 일에 온 정열을 쏟았습니다. 그의 이러한 강고한 투쟁이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가 유대교의 아류로 떨어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충실할 수 있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이 바로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이라는 바울의 경고를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서를 읽을 때 흔히 빠지는 위험이지만, 이러한 가르침을 2천년 전 그 당시에만 해당되거나 아니면 요즘의 이단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땅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은 곧 인간의 자기 성취와 자기 집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죄는 결국 피조물을 절대화한다는 데에 있다는 성서의 경고는 바로 이 사실을 뜻합니다. 인간의 자기 성취가 왜 죄일까요? 이런 성취감은 인간의 삶을 근본적으로 역동화시키는 요소가 아니던가요? 인간의 모든 위대한 행위는 바로 이런 성취감에서 발생했는데, 이것을 죄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예컨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감동 받고 있는 바하의 음악작품, 보티첼리의 미술품, 그리스와 로마의 조각품과 건축물은 바로 인간의 성취감이 이룩한 위대한 결과가 아닌가요? 물론 이러한 문화 유산을 무가치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것의 절대화가 문제입니다. 스스로 완전하지 못한 인간이 완전한 것을 생산해 낸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한다는 것이 여기서의 핵심입니다. 오늘의 기술, 정보 문화가 스스로 절대화되면서 인간성이 파괴되는 것처럼 피조물의 절대화는 그것 자체가 이미 멸망이며 심판입니다. 빌립보서가 말하는 대로 땅의 일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있는 그대로 직관해 봅시다. 인간의 행위는 결국 땅에서 이루어지다가 땅으로 사라집니다. 아무리 위대한 예술품이라고 하더라도 언젠가는 흙이 되어 버리고 맙니다. 인간도 흙이 되고 그 인간의 성취도 역시 흙이 됩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모든 생명의 토대인 이 지구도 역시 언젠가는 태양과 함께 사라질 것

입니다. 이런 마당에 우리가 생산한 것을 절대적인 것으로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이르신 것처럼 세상일은 세상 사람들에게 (죽음에 관계된 일은 사라지게 될 것에 관심을 갖는 이들에게) 맡겨 두는 게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올바른 지혜로운 삶이 아닐까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일상이 하찮다는 뜻은 아닙니다. 인간이 그것에 묶어버림으로써 결국은 그것의 내면이라 할 궁극적 생명의 비밀과 신비를 놓쳐버린다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늘

이에 반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시민권(고향)은 하늘에 있습니다(20절). 아마 바울은 고향 팔레스틴을 떠나서 로마의 식민지인 빌립보에서 고국을 그리워하며 살고 있는 유대인 디아스포라를 생각하며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바울은 이들에게 우리의 고향은 팔레스틴이 아니라 하늘이라고 시적인 운율로 20,21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고향은 하늘에 있다네.
우리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를 기다리는 그곳이라네.
그는 우리의 약한 몸을 변케 하시리라.
그의 영광의 몸처럼 변케 하시리라.
만물을 복종케 하실 능력으로
우리를 변케 하시리라.

고(故) 천상병 시인은 귀천(歸天)이라는 시에서 이렇게 노래한 적이 있습니다. 재미있으면서도 신앙적인 내용입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면 스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 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며는,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하늘이 무엇입니까? 이미 앞서 서론 부분에서 이 문제를

개괄적으로 다룬 적이 있습니다만, 우주에 대한 초보적인 지식이 있다면 아무도 하늘을 우주의 어느 한 공간으로 생각하지는 않을 겁니다. 우주에는 태양과 같은 별들이 있고, 빅뱅(대폭발) 시에 발생한 흑암 물질이 널리 산재해 있을 뿐입니다. 언젠가 인간의 우주 탐험이 우주의 구석구석을 밝혀줄 날이 올지도 모르지만 아직은 거의 대부분을 모르고 있는 그 하늘을 오늘 성서가 말하는 하늘과 일치시킬 수는 없습니다. 또한 현대인들에게 우주의 동쪽 끝 어딘가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하늘 나라로 돌아간다는 생각은 별로 설득력이 없습니다. 루돌프 볼트만이라는 성서신학자는 이런 생각을 고대인들의 신화적 표상이라고 지적하면서 그것을 현대인의 합리적 사유에 맞도록 탈(脫)신화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볼트만의 실존적 성서 해석이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긴 하지만 성서 시대의 우주관을 새롭게 해석해야 한다는 주장은 일단 옳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고향은 하늘에 있다는 바울의 이 말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다만 상징과 비유입니까? 불확실한 것에 대한 허황한 레토릭입니까? 땅의 허무 앞에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해야 할 일종의 도피처입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인간도 결국에는 우주가 형성될 때 만들어진 소립자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우주이기 때문에, 인간이 다시 우주 속으로 해체되는 의미인 죽음은 곧 우리 인간이 하늘로 돌아간다는 말이 될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참된 생명에 대한 인식의 기초로 여기고 있는 바울이 이런 뜻으로 하늘의 고향을 말했을 리는 없습니다.

우주의 어느 공간이 하늘 나라가 아니라면 도대체 하늘 나라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우선 우리의 마음일까요? 그럴 수도 있지요.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으니까요. 요한도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음이나 사랑이 하늘 나라라고 한다면 인간의 몸을 포함한 물리적인 세계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말이 됩니다. 우리는 몸이 없는 하늘 나라를 상상할 수 없습니다. 하늘 나라에서는 먹고 마시거나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창조 행위를 모든 존재의 궁극적 근원에 해당되는 사건으로 여긴다면 하늘 나라를 단순히 생각과 마음만이 작용하는 관념만의 세계라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안식교에서 주장하는 대로 소위 지상천국일까요? 이런 생각은 상당히 매력적이고 현실적이고 지성적으로 들립니다. 물리학적 시각으로 볼 때, 말도 되지 않는 어떤 공간적 하늘을 찾아볼 게 아니라 차라리 이 지상에 완벽한 세계를 이루는 것이 오히려 훨씬 바람직하고 타당한 생각일지도 모릅니다. 인간의 기술이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현대에 이르러 이런 인간의 꿈이 현실화 될 지도 모른다는 기대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언젠가 인간의 기술이 발전되어 마모된 기계의 부

속품을 갈아 끼우듯이 인간의 장기를 갈아 끼울 수 있게 된다면 인간의 영생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유전 공학적 기술을 통해서 무병장수 할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인간이 이 지구에서 영원히, 물론 50억년 정도이겠지만, 죽지 않고 병들지 않고 고통스럽지 않게 살게 된다면 그것이 곧 하늘 나라일까요? 오늘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삶의 모습들이 아무리 영원하게 지속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간이 참된 생명을 얻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영원성을 얻는 순간에 이미 공허감 속에 빠져버릴 것입니다. 지상 천국은 여전히 지상적인 한계를 지닐 뿐이지 참된 생명을 소유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늘 나라는 어디에, 어떻게 존재할까요?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고향인 하늘 나라는 어떤 존재 양식을 갖고 있을까요? 인간들의 기대가 만들어낸 막연한 세계에 불과할까요? 아니면 실제로 있는 걸까요? 이런 절대적인 질문은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범주를 벗어나기 때문에 아주 확실한 대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인식하기 위해서라도 믿으라.”는 말처럼 인식의 차원이 아니라 믿음의 차원에 속하는 질문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믿을만하다는 사실만이라도 인식한다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늘 나라를 믿을만하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않은 채 믿기만 한다면 그것은 광신에 불과할 겁니다.

우리의 참된 고향이기도 하고, 이미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하늘은 물리학적 사실에 의해서가 아니라 영적인 의미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하늘은 지상에서 이루어져야 할 완벽한 세계이거나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가야 할 우주의 한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양식이라 할 생명의 세계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는 하늘은 공간이 아니라 생명을 창조하고 이끌어 가시며 완성시키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즉 궁극적인 생명 사건입니다. 따라서 하늘 나라는 곧 생명에 대한 질문에서 논의되어야 합니다. 생명을 아는 것이 바로 하늘 나라를 아는 것입니다. 이런 생명 문제는 생물학적인 차원에서부터 시작해서 영적인 차원에 이르는 전체 생명 현상을 염두에 두고 고려되어야 하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에서 이런 궁극적인 생명이 선취되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오신다고, 그곳으로부터 우리에게 오시는 구원자를 우리가 기다린다고 노래합니다. 이 문장은 바울이 바로 여기에서만 유일하게 구원자에 대해서 설명했다는 점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해당되는 구원자로서의 기능이 완전히 종말론적으로 한정되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그닐카, 볼트만). 이 사실을 바울은 “소테리아”라는 단어로 바꾸어 썼습니다. 소테르(구원자)는 소테리아(구원)와 완전히 일치합니다. 결국 우리 기독교인은 하늘로부터 오는 구원을 희망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잠시

있으면 지나가 버리고 말, 무상한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아직은 숨겨져 있지만 언젠가는 우리에게 밝히 드러날 그 궁극적 생명의 하늘에 우리의 삶을 걸어두고 살아갑니다. 본문이 말하고 있는 대로 하늘이 바로 우리의 고향입니다.

영광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약속에 의해서 우리가 희망하는 부활의 세계에 대해서, 우리의 진정한 고향인 하늘에 대해서 조금 더 직접적으로 설명해야만 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이 본문에 따르면 세 가지가 요점입니다. 낮은 몸, 영광의 몸, 변형. 여기서 핵심은 우리가 하늘로부터 기다리는 그 구원자의 구원행위인 소마(몸)의 변형입니다. 소마는 그리스 철학이 말하는 영혼과 대비되는 몸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몸을 통해서 규정된 전체 지상 실존입니다. 즉 낮은 데 처한 몸입니다.

우리가 낮은 몸에 거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렇게 깊이 생각해볼 필요도 없이 분명합니다. 우리 스스로 다스리기 힘든 온갖 욕망과 허무, 질병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우리의 몸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를 드러내주고 있는 증거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고상한 인격과 높은 이상을 품고 있다 하더라도, 혹은 올바른 신앙 안에서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인간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인간의 모든 정치, 예술, 문화 활동은 이런 인간의 낮은 몸, 즉 그 한계를 벗어나려는 노력이었습니다. 이집트의 피라미드는 파라오들의 영생에 대한 간절한 기대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 정도로 자신의 어쩔 수 없는 한계를 절감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실들을 보십시오. 자신의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서 얼마나 절절하게 전력투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러한 모든 노력들이 가공할 힘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여전히 인간은 그 낮은 몸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늘로부터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에게 임했던 “영광의 몸”으로 변화시킨다고 보았습니다. 예수님에게 임했던 영광의 몸은 바로 부활을 가리킵니다. 영광이라는 독일어(Verherrlichung)에는 주(Herr)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영광은 왕 같은 통치가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 되셨다는 의미에서 부활은 그가 영광의 세계로 높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영광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도 결국 영광의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왕처럼 살아가는 때입니다. 그때를 가리켜 우리는 종말이라고 합니다. 언제 그런 날이 우리에게 임할까요? 우리의 기술이 모든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는 날이 바로 그때일까요? 이 지구상에 국제분쟁이 완전히 종식되어서 평화가 명실상부하게 이루어지는 때일까요? 인간이 노동과 성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

는 때일까요?

우리 기독교가 생각하는 종말은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성취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영광의 몸으로 변화시킴으로써 일어난다고 봅니다. 우리가 영광을 생산해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에 의해서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2천년 전 예수 그리스도에게 일어났던 그런 부활이 우리에게도 일어난다는 믿음입니다. 이것은 믿음일 뿐만 아니라 궁극적 생명에 대한 정당한 인식입니다. 이러한 영광의 몸으로 변화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세밀하게 묘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소극적인 면에서 두 가지 사실만은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12과, 부활, 하나님 안에 은폐된 미래의 생명, 참조). 첫째, 우리의 변화는 현재 우리의 생명을 구성하고 있는 이 몸과 깊은 연관을 갖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부활한 예수님은 죽기 이전의 인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과 대화를 했고,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즉 영광의 몸으로 변화한다는 것은 현재의 몸과 아무 상관도 없는 혼령이나, 혹은 기로 변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둘째, 영광의 몸은 현재의 몸과 전혀 차원을 달리하는 생명을 덧입습니다. 비록 현재의 몸과 깊은 상관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한편으로는 질적으로 다른 생명입니다. 예컨대 애벌레가 허물을 벗고 나비가 된다고 할 때 그 나비는 애벌레 상태의 그 몸으로부터 변화되었으나 근본적으로 서로 다른 몸이 되었다는 것과 비슷합니다. 애벌레의 상태에서는 나비의 세계를 도저히 인식할 수 없습니다. 사물을 위에서 내려다보는 나비와 밑에서 올려다보는 애벌레의 관계가 서로 연속적이면서도 동시에 불연속적인 것처럼 앞으로 우리가 덧입게 될 부활과 생명의 세계도 역시 현재 우리의 삶과 연속적이면서도 동시에 불연속적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러한 영광의 몸을 직접 경험하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다는 신약성서의 증언을 진리라고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문제가 전혀 개연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믿으면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최소한 두 가지 각도에서 이 사실을 믿을 수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부활과 죽은 자의 보편적 부활을 부정하는 이들이 근거로 삼고 있는 제반 이론이나 경험들이 별로 확실하지 않다는 점이며, 다른 하나는 사도들과 초기 기독교인들의 증언이 신실하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는다고 해서 어느 누구도 우리를 미봉에 사로잡혔다거나 광신주의자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인간의 세상 경험과 인식이 얼마나 불확실한가를 생각한다면 성서의 증언이 훨씬 참되다는 사실을 인정할 것입니다. 판넨베르크의 신학적 착상에 기대어 한 마디 덧붙인다면, 예수의 부활은 우리의 과학적 인식론으로 재단할 수 없는 전무후무한 단 하나의 사건입니다. 인간의 학문은 일정한 반복이 이루어지

는 사건만을 검증할 수 있지 전체 역사를 통해서 증명되어야 할, 즉 종말론적으로 증명되어야 할 부활 사건을 검증할 자격이 없다는 말입니다. 예수의 부활에서 선취적으로 발생한 이 부활이야말로 바울의 진술에서 드러나고 있듯이 우리 인생의 전 과정에서 추구되어야 할 궁극적 희망입니다.

15. 분열과 일치

4:1-3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게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 책에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에는 여러 형식과 내용의 글들이 혼합되어 있습니다. 그닐카의 주석에 따르면 4장1,8,9절은 3장1(후)절부터 3장21절에 이르는 일련의 논쟁서신에 포함된다고 하는데, 이런 역사 비평 문제는 우리의 공부에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는 일단 접어두고 약간의 필요한 내용만 뒤에서(8,9절) 잠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에 나오는 그 이외의 내용은 빌립보 교회를 향한 권면, 재정 지원에 대한 감사, 마치는 인사입니다.

삶의 토대

바울은 4장1절에서 빌립보 교인을 향해서 여러 표현 방식으로 호칭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 사모하는 자, 기쁨인 자, 면류관인 자. 도대체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어떻게 생각했기에 이렇게 절절한 심정을 담아 편지를 쓰고 있을까요?(1:3,4). 이 표현에는 그의 어떤 특별한 생각이나 마음이 들어있는 걸까요, 아니면 단순히 그럴듯하게 보이기 위한 수사학적 인사치레에 불과한 것일까요? 가)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사랑한다는 말은 그렇게 과장된 것은 아닙니다. 바울이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빌립보 교인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나) 사모한다는 말은 애타게 보고 싶은 마음을 가리킵니다. 현재 옥에 갇힌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디모데를 대신 보내려고 하다가 아직 재판 과정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어서 에바브로디도를 우선 보내려고 결정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소식 때문에 마음이 다급한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얼마나 그리워했을까요?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기쁨이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긴박한 사명감 속에서 마침내 유럽에 발을 디딘 바울에 의해 최초로 복음이 전파된 곳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러니 그에게 기쁨이 아닐 수 있었을까요? 리)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자기의 면류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명예이며 자랑이 빌립보 교회라는 말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꾸준하게 바울을 재정적으로 도왔으며 복음으로 교제했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면류관이라는 표현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바울은 이들이 신앙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바른 길에 서 있기를 진정으로 원했습니다. 주 안에 서 있으라고 권합니다. 인간을 향한 가장 바람직한 기대와 권면이 바로 이런 게 아닐까요? 우리가 굳건히 설 수 있는 토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보다 더 긴요한 것을 없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인간들의 생산물만 바라본다면 이러한 바울의 권면이 너무 추상적인 것처럼 보입니다만, 이 현실의 내면을 보다 정확하게 뚫어볼 수 있다면 그의 말이 참되다는 것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천민 자본주의 체제 가운데서 살아가는 오늘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인들에게는 이 문제가 더욱 절실합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실제 마음 속으로는 오히려 돈이 우리 삶의 토대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한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마 6:24)고 말씀하셨는데도,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두 토대 사이에서 교묘하게 줄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더 솔직하게 우리 자신을 반성한다면 한국 교회 자체가 물신(物神)주의에 빠져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생산과 소비의 악순환을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이 시대 정신처럼 교회의 성장과 확대만을 교회의 존재 이유와 근거로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과 구원과 종말을 거론합니다만 그것은 단순히 명분뿐이고 실제로는 다른 절대자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결국 교회 안에는 하나님과 그의 나라와 그 생명의 세계를 향한 간절하고 종말론적인 기다림이 자리하지 못하고 교회 운영만을 위한 “노하우”가 득세하고 있습니다. 설교도 역시 교회 성장이나 신자들의 물질적 욕망을 자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오늘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 주 안에 서 있으라는 권면을 심각하게 경청하고, 거기서 우리 삶의 진정한 토대를 발견해야만 합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게

바울은 4장2절에서 두 사람의 이름을 특별히 거명합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게입니다. 두 사람 모두 여성들인데, 이들의 이름 이외에는 우리가 그들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유오디아를 빌립보 교회의 창립 멤버인 루디아(행 16:14)와 동일인으로 여기는 것은 그저 상상에 불과합니다.

3절에 부녀들을(유오디아, 순두게) 도우시오 라는 권면을 보더라도 이미 그 당시에 빌립보 교회에서는 여성들이 매우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봉사활동에는 그때나 지금이나 여성들이 적극적입니다. 교권은 남성들이 독점하고 있었지만 그 교권이 지향해야 할 교회의 실제적인 봉사활동에는 오히려 여성들이 많이 참가했습니다. 아마 자신의 몸으로 생명을 출산할 수 있는 여성들만이 느낄 수 있는 동정심이 크게 작용했는지 모릅니다.

여성 목사제도가 교회의 실천에서 그렇게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지만 과도기에 있는 한국 교회로서는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입니다. 교단의 형편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있긴 하지만 한국 교회의 일반적인 정서는 여전히 부정적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숫자적으로 어느 정도 여성 목사들이 배출되기는 했어도 명실상부하게 개교회의 책임자로 일하는 경우는 아주 드뭅니다. 담임목사를 보조하는 위치나 기관에서 일하는 정도입니다. 이렇게 한국교회가 여성 지도자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생각하는 이유는 우선 성서 말씀을 지나치게 문자적으로 이해한다는 데에 있습니다. 여성들은 교회에서 잠잠하고 가르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바울의 가르침을 2천년이 지난 오늘의 교회에 실제로 적용하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아담의 갈비뼈로 만들어진 이브에게 사람(아담)이 가르침을 받을 수 없다거나, 뱀에게 먼저 유혹 당한 인물이 바로 여성이었으며, 하나님도 아담이 이브를 다스릴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이런 성서 문자주의에서 약간 벗어나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한국 교회의 정서상 여성 목사제도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현실론에 근거해서 이를 반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로마 가톨릭 교회는 우리 개신교회보다 훨씬 보수적이고 완고합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에 속해 있는 사제는 한결 같이 남성들뿐입니다. 수녀들은 남자 사제를 돕는 위치이지 한 성당을 책임지는 성직자는 아닙니다. 영국 성공회도 역시 남성들만을 사제로 인정합니다. 이탈리아의 저명한 철학자로서 볼로냐 대학교 교수인 움베르토 에코와 가장 강력한 교황 후보로 인정받고 있는 카를로 마리아 마르티니 추기경이 이런 주제를 갖고 논쟁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서신 교환 형식으로 두 사람 사이에서 논의된 내용이 책으로 출판되어 나와 있습니다(무엇을 믿을 것인가, 열린 책들). 이 서신 논쟁집에는 이 외에도 희망, 생명, 윤리 문제가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장미의 이름>, <푸코의 진자>라는 책으로 국내에서도 상당한 숫자의 독자를 확보하고 있는 에코는 수사학적 맛을 곁들여가며 자신의 입장을 부드럽게, 그러나 날카롭게 제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성이 사제직에서 배제되는 것을 정당화하는 설득력 있는 논거들을 가톨릭 교회의 교의 속에서 아직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에코는 그저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남의 종교를 이유 없이 헐뜯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각기 종교의 신비와 나름의 전통을 무시하는 사람도 아닙니다만, 교회 밖에서 삶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지성인으로서 궁금한 점을 질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의 생각에 따르면 성서 근본주의자들의 주장은 그 자체로 모순이 되기 때문에 남성들만 제사장으로 임명했던 구약의 전통을 그대로 따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성서에 나오는 여러 종교적인 형식은 분명히 문화사적인 배경을 염두에 두고 읽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에코는 토마스 아

퀴나스의 <신학대전>에 나오는 내용까지 다루면서 자신의 논리를 전개하고 있는데, 아퀴나스도 사제직이 남자만의 특권이어야 할 이유를 적절하게 설명하지 못했다는 게 그의 결론입니다.

이런 질문에 대한 마르티니 추기경의 대답도 역시 자기만의 독단에 빠지지 않으면서도 예리하게 전개되었습니다. 그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오로지 남성에게만 사제직을 부여하기 위해 내세웠던 논거들은 오늘날에는 더 이상 지지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실천은 ... 영속됩니다.” 서로 모순되는 것 같은 이 두 문장에 마르티니의 대답이 모아집니다. 남자만의 사제직이 논리적으로 정당하지는 않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구원 사건에 충실하다는 점에서 이 남자만의 사제직이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즉 교회는 자기가 경험하고 찬양하는 신비들을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마르티니는 에코의 논리를 교회의 신비로 비켜간 셈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여성 목사제도에 대한 분분한 논의를 지루하게 전개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문제에 관한 성서의 가르침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합치될 수 없는 논쟁을 재론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남성과 여성은 대립적이거나 주종관계에 있는 게 아니라 둘이 합하여 한 인간이 된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진정한 일치를 모색해 나가야 한다는 점만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가능한대로 역사의 미래를 향해서 전진적으로 사유할 수만 있다면 한국 교회에 적절한,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제도를 세워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마디만 덧붙인다면 유대민족을 이끌어갔던 사사들 중에서도 걸출한 여성 지도자가 있었으며, 초대 교회에도 여성들의 활동이 매우 적극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참고해야 할 것입니다.

기왕에 말이 나온 김에 소위 페미니즘 논쟁에 대해서 한 마디 덧붙여볼까 합니다. 인류 역사에서 오랜 세월 확고한 체제로 굳어진 가부장제를 철폐하고 명실공히 여성의 권리를 회복하려는 운동이 우리나라에서는 80년대부터 서서히 일어나다가 90년대에 들어와서는 맹렬히 확산되었습니다. 가부장제의 악습에 대해서는 더 이상 왈가왈부 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중세기의 질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이슬람 문화권을 제외한다면 가부장적 질서를 옹호하는 나라는 전세계에서 찾아보기 힘듭니다. 물론 우리나라 안에서는 호주제를 유지해야 한다거나 동성동본의 결혼을 막아야 한다는 유림의 주장이 여전한긴 합니다만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가부장적 가치는 낡아버린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페미니즘이 여성의 여성성(性)을 완전히 배격해 버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그것은 가부장제 못지 않게 인간을 왜곡하는 태도입니다. 즉 모성적 품성까지 여성의 해방을 위해서 파기해버려야 할 비인간

적 속성이라고 생각해서는 곤란하다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의 훨씬 실제적이고 본질적인 문제는 페미니즘이 지금까지 여성들이 감당해온 가사와 육아 노동을, 더 나아가서 출산 행위를 남성들이 주로 담당해온 사회활동 보다 저열한 것으로 전제하고 시작한다면 그것도 역시 인간 삶의 근본을 오해하는 태도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들은 지나치게 관념적이라고 비판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성의 여성다움과 남성의 남성다움이 조화됨으로써 참된 인간다움이 형성되는 게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남성다움이 여성다움보다 우월하다거나 남성은 사회 활동을 해야 하며 여성은 가정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말씀도 아닙니다. 그런 문제들은 남성과 여성이기 때문이 아니라 한 인격체의 특성이나 능력에 따라서 구분되어야 할 일입니다. 남성과 여성을 차별하지는 않아야 하지만 구별함으로써 남성과 여성이 하나의 인간으로 자리를 잡게 되는 게 아닐까요?

일치

어쨌든지 빌립보서에 거론된 유오디아와 순두게는 안타깝게도 빌립보 교회를 분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말려들게 한 여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개인적으로 서로 다른 주장을 했는지, 아니면 바울과 적대적이었던 사람들의 편에 섰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바울은 이 여성들에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충고합니다. 곧 이어서 자기가 믿을만한 사람에게 이 여자들을 도우라는 명령을 내리는 걸 보면 이 여자들이 한때 빌립보 교회에서 매우 적극적으로 활동한 인물임에 틀림없습니다. 특히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할 정도니까 그 저간의 형편을 알만 합니다만, 일단은 이 여성들 때문에 문제가 벌어진 것만은 분명합니다.

반드시 여성이기 때문이 아니라 인간의 한계 때문에 교회 활동에서 많은 분쟁과 다툼이 벌어집니다. 한 분이신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고 하나의 교회를 이루어가는 교회 공동체가 현실적으로는 이리 저리 분열됩니다. 부분적으로는 어쩔 수 없이 다른 입장을 취한다고 하더라도 끊임없이 같은 마음을 품는 훈련을 함으로써 큰 틀에서 일치를 이루어가야 합니다. 어떤 제도나 조직을 하나로 만드는 것만이 아니라 마음을 하나도 묶는 게 무엇보다도 우선합니다.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남긴 분열의 흔적은 우리의 한계를 여지없이 드러내줍니다. 정확한 통계를 알 수는 없지만 크고 작은 교단이 백오십 여 개로 분열되어 있는데, 이런 분열 현상은 아무리 좋은 쪽으로 이해하려고 해도 어처구니없는 일일뿐입니다. 교회도 역시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아야 할 이들의 모임이라는 점에서 이런

분열의 상처를 조금도 남기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만 우리의 경우에는 그 도가 너무 심해서 그 어떤 말로도 설명이 가능하지 못하다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분열 현상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을 하지 맙시다. 중요한 것은 이 현실에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일치를 모색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일단 우리 개신교 교회만 두고 말하자면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KNCC)가 조직되어 한국교회의 일치를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는 세계 교회 협의회(WCC)가 2차 세계 대전이 끝난 다음 1948년에 암스텔담에서 제1차 총회를 개최한 이후로 이런 에큐메니칼 운동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교회의 교회다움을 회복하는 데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거룩성, 사도성, 보편성, 단일성이라는 교회의 징표를 인정한다면 하나의 교회라는 목표를 향해서 줄기차게 매진해 나가야 합니다. 지금 당장 제도와 직제를 하나로 통일시키자는 게 아니라, 그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인데, 우선 교회 상호간에 진정한 평화(shalom)와 친교(코이노니아)의 정신을 회복시켜 나가야 합니다. 이런 일치가 없이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어떻게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이며 서로간에 형제라는 사실을 증언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충고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같은 마음을 품는 것 자체가 인간에게는 참으로 힘에 부칩니다. 늘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인간이 상대방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같은 마음을 갖는다는 건 아예 불가능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바울이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충고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상대방을 이해함으로써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과 일치함으로써 사람과도 일치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충고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에게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신뢰하고 희망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준비된 사람은 이웃과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인간관계도 역시 인간에게서 출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관계에서 시작한다고 보는 게 옳습니다.

협력

바울은 3절에서 익명의 어떤 사람에게 부탁하는 말을 합니다.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당신에게 부탁하오. 모든 편지의 내용은 빌립보 공동체를 향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만은 한 개인을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 성경에 멍에를 같이 멘 자를 가리키는 헬라어 “진실한 시지고여!”는 고유명사일 가능성이 많다고 합니다. 학자들에 따라서 시지고를 보통 명사로 생각해서 여러 인물을 거론하고 있긴 합니다. 예레미아스는 실라, 라이트후트는 에바브로디도, 프리드리히는 디모데, 슈미탈스는 에바브

로디도나 디모데, 튀빙겐 학파는 베드로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빌립보에 남아 있는 바울의 아내를 가리킨다는 주장도 있었는데, 르낭 같은 사람은 시지고가 루디아를 말하며 바울과 결혼한 사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닐카에 의하면 시지고가 고유명사로서 빌립보 교회의 감독들이나 집사 중의 한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오늘 본문에 여러 고유명사가 거론되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타당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지 이 사람은 바울이 믿을만한 사람이었고, 그래서 빌립보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부탁 받은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한 일을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는 일이 그렇게 드러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별로 즐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이 감당하는 일들이야말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가장 가까이 있습니다.

그것은 곧 동역자들을 돕는 일입니다. 바울에게서 부탁 받은 일은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서 힘을 쓰던 부녀들을 돕는 것, 글레멘드와 그 이외의 동역자들을 돕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앞장서서 일하는 것은 잘하든 못하든 자기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대로 할 만합니다. 그러나 옆에서 단지 협력하는 일은 별로 표가 나지 않기 때문에 신앙과 인격에서 감당할만한 준비가 되어 있을 경우에만 실천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한국 교회에 사심 없이 협력하는 이들이 많아진다면 상당한 부분에서 복음의 일이 원활하게 돌아갈 것입니다. 아무도 교회의 주도권 때문에 다투는 일은 없어질 테니까 말입니다.

16. 파루시아

4:4-7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쁨

바울은 4절에서 빌립보서의 주제인 “기쁨”을(1:4, 1:18, 2:17, 18, 3:1참조) 다시 강조합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4:4의 이 기뻐하라는 말씀은 3:1a의 기뻐하라는 말씀의 반복입니다. 그런데 4:4에서는 “항상” 기뻐하라고 강조됩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말은 기쁨에 대한 강조일 뿐만 아니라 기쁨의 근원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으로는 항상 기뻐할 수 없으니까 말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유달리 기뻐하라고 거듭해서 강조하는 이유는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특질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어쩌면 그가 감옥에 들어있다는 특별한 상황과 연관시켜서 생각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자신의 말이 마지막 권면일지 모른다고 생각했겠지요. 유언을 해야한다면 누구나 자신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말을 하게 마련입니다. 바울에게는 그것이 곧 “주님과 함께”,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는 바울의 권면은 우리 기독교인들의 기쁨이 어떤 토대에서 솟아나는가를 가르쳐줍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기뻐하며 산다는 것은 어떤 소유감이나 성취감 때문이 아닐 뿐만 아니라 어떤 자연주의적인 깨달음 때문도 아닙니다. 물론 예술과 하나가 되었을 때 인간이 경험하는 기쁨이 대단하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베토벤이 일명 “합창 교향곡”이라고 불리는 교향곡 9번에서 Freude! Freude!(기쁨! 기쁨!)이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어떤 종교적인, 사상적인 깨달음을 통해서 얻게 되는 기쁨도 역시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을 정도로 소중합니다. 사실은 예술이나 사상의 깊이를 경험하는 기쁨도 쉽게 얻어지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것만이라도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기에는 충분한 것처럼 보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내부에서 어떤 악상이 샘솟듯 솟아 나와서 위대한 작품을 만들었다면 그것을 누가 인정해 주든지 않든지 상관없이 참된 희열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떤 고승이 10년 독거, 묵언 수행 끝에 자신과 우주가 하나되는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인간이 평생에 걸쳐 노력하더라도 이루기 힘든 이런 깨침을 통해서 죽음까지도 초월해버린 사람이 있다면 그는 아마 하늘을 날아다니는 듯한 기쁨을

느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인간이 성취할 수 있는 그 무엇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하는, 그분이 제공해주는 기쁨을 말합니다. 과연 이게 무엇일까요? 주님 안에서 기뻐한다는 것과 위에서 말한 예술과 사상적인 깨침을 통해서 기뻐하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는 바울의 가르침은 과연 그 어떤 인간적인 노력으로 인해 도달될 수 있는 기쁨과 전혀 차원을 달리는 것일까요? 아니면 출발은 다르지만 결국 기쁨의 상태는 별반 다르지 않는 걸까요?

우선 우리는 기쁨의 차원이 결코 똑같은 게 아니라는 사실로부터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2십 년 동안 절약하고 온갖 고생을 하면서 돈을 모아 집을 샀다고 합시다. 그 순간만은 자기가 죽어도 여한이 없을 정도로 기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쁨은 아주 짧은 순간 동안만 우리에게 남아 있을 뿐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장 궁극적인 기쁨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예술이나 학문적 성과도 다른 사물을 소유한 것보다는 길겠지만 영원히 계속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삶에서 가장 궁극적인 기쁨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우주와의 일체감 속에서 살아갔던 많은 고승들과, 이 우주의 근원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던 위대한 학자들의 기쁨도 역시 영원한 생명과 관계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 스스로 한정적입니다. 이 지구를 포함해서 태양과 그 이외의 별들도 역시 길긴 하지만 영원한 게 아니라 유한합니다. 그것들은 그 어떤 다른 것에 의존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것을 뛰어넘는 어떤 절대적인 것으로부터만 절대적인 기쁨이 가능합니다. 물론 앞서 잠깐 말한 대로 이런 유한한 지구나 우주와 하나되는 경험을 통해서도 매우 차원 높은 자유와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그것은 아직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는 바울의 가르침에 못 미치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는 말은 창조자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라는 뜻을 포함합니다. 우리 삶의 뿌리가 모든 것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에게 놓여 있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기쁨의 이유를 발견합니다. 우리가 그 거대함 앞에서 입을 다물 수 없는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라는 말입니다. 이런 기쁨은 인간의 성취감에 비해 한 차원 높은 우주론적인 기쁨이나 종교적인 기쁨까지도 뛰어넘습니다. 자연의 신비가 아니라 그 자연을 창조한 하나님이 바로 기쁨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서 우리에게 궁극적인 생명의 미래를 알려주신 하나님 안에서 얻게되는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에 참여한다는 희망에서 솟아나는 기쁨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러한 기쁨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것이 과연 실제로 가능한지에 대해서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건 너무 추상적인 생각이다”라고 비판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눈에 보이지도 않고 저울로 무게를 달아볼 수도 없

는 기쁨을 어떤 사물처럼 설명하거나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시야에 구체적으로 포착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와 마찬가지로입니다. 자신이 경험한 이 기쁨은 남에게 보여주거나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생명의 능력으로 작용할 뿐입니다. 이런 점에서 기쁨은 사랑과 비슷합니다. 사람들이 이 사랑의 능력에 의존해서 살아가듯이 우리 기독교인들은 기쁨의 능력으로 참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다른 종교인들이나 사상가들이 어느 정도로 이런 기쁨의 능력에 참여해서 살아가는지 우리로서는 확실하게 말할 수 없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함으로써 경험하게 된 이 기쁨이 어떤 깊이와 크기인지에 대해서만은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생명의 궁극적 비밀이신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는 바울의 권면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적 실존을 판단해주는 시금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기독교인은 기쁨에 존재론적으로 참여하고 있는지 자신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그 세계가 우리의 영적인 시야에 들어와 있고, 더 나아가서 우리 삶에 들어와 있는지를 말입니다.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궁극적 생명의 비밀인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보다는 전혀 다른 즐거움만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멀리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우리가 무엇 때문에 기뻐했는지를 살펴보면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대개는 무언가 우리의 생각대로 이루어지거나 뜻하지 않았는데도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일이 벌어진 것으로 마음이 뿌듯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요소들은 매일 매일 변합니다. 어제 기쁜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오늘은 우리를 괴롭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위에 두 발을 딛고 살면서 흡사 생사고락을 초월한 천사나 도사들처럼 살아갈 수는 없지만 기쁨의 근원을 주님 안에 두어야 한다는 사실을 매일 상기하면서 삶에 대한 인식을 심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곧 깨어 있으라는 명령에 순종하는 기독교인의 삶이 아닐까요?

관용

기뻐하라는 권면과 짝을 이루는 말씀이 5절에 나옵니다. 당신들의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시오. 관용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에피에이케이아”는 역경을 당해도 쉽게 동요되거나 넘어지지 않고 평정을 유지하는 영적인 인내심을 가리키기도 하고(칼빈), 자신의 당연한 권리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너그럽게 대하는 태도를 가리킨다고 합니다(켄트). 디모데전서에는 이 단어가 감독직을 맡은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성품으로 거론되었습니다(딤후 3:3). 여기 빌립보에서는 기독교 공동체의 특징을 드러내는 표식으로 사용된 것입니다. 바울이 기뻐하라고 강조한 다음에 관용을 나타내라고 권면 하는 이유는 그 기쁨이 사람들에게 증거될 수 있

는 길이 바로 관용에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기독교가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고 있다면 그 능력은 곧 사람들에게 관용의 태도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 이외의 길은 없습니다. 또한 기쁨은 기쁨 자체를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이웃과의 관계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도 역시 관용의 태도는 중요합니다.

관용의 태도는 본인이 그렇게 해야겠다는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 바울의 가르침에서 보는 대로 기쁨에서 시작합니다. 이런 관계는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서도 경험됩니다. 누군가에게서 뜨거운 사랑을 받음으로써 기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역시 넓은 마음으로 대합니다. 그러나 이런 기쁨이 없는 사람은 늘 웅졸한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홍세화 씨는 “세느강은 좌우를 나누고 한강은 남북을 가르다”라는 저서에서 프랑스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덕목은 관용(퐁레랑스)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런지 프랑스 파리는 온 세계 모든 종족이 모여 사는 전시장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프랑스 사람들이 모든 이들에게 관용의 덕을 보여주고 있는지 저는 아직 확실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때 기쁨과 관용이 매우 가까운 관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쁨을 나무라고 한다면 관용은 열매일지도 모릅니다. 기쁨의 나무는 관용이라는 열매를 맺게 마련이죠. 나무가 좋아야 좋은 열매를 맺고, 좋은 열매를 맺어야 좋은 나무라는 것이 증명된다는 예수님의 말씀과(마 7:17,18) 연관시켜 생각한다면,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에는 기쁨과 관용이 적절하게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영적 현존

바울은 기쁨과 관용을 기독교적인 삶의 내면과 외면의 근본으로 제시하면서, 아주 짧은 한 문장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주님이 가까이 계십니다(The Lord is at hand.).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과 그 기쁨을 아는 자로서 관용의 태도를 보이라는 말씀은 근본적으로 주님이 현재 우리와 함께 한다는 인식에 그 토대를 둡니다. 기독교의 모든 교의와 실천들을 규정하고 있는 이 문장은 주님의 파루시아(임재)와 연관됩니다. 더 나아가서 요한이 마라나다, 주여, 곧 우리에게 임하시기를!(계 22:20)이라고 언급한 것처럼 종말에 임할 주님의 재림과도 연관됩니다. 이것은 2천년 전에 목수의 아들로 오셨다가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셨으며 승천하시어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현재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역사의 종말에 심판자로 오실 것에 대한 희망입니다.

과연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과거의 역사가 어떻게 현재이면서 동시에 미래입니까? 미래가 어떻게 현재를 규정할 수 있습니까? 초대 교회가 실제로 자신들의 생전에 재림하실 것으로 믿었던 예수님이 2천년 동안이나 지연된 이 마당에도 역

시 주님이 가까이 계신다는 명제는 타당한 걸까요?

이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론과 종말론에 대해서 약간의 공부が必要です. 325년 니케아에서 소집된 제1차 세계 공의회에 이어, 381년 콘스탄티노플에서 소집된 제2차 세계 공의회 이후로 우리 기독교인들은 성령을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전지전능하고 무소불위 하신 하나님과 역사에 실존하셨던 아들이로서의 하나님은 현재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한다는 뜻입니다. 즉 성령은 하나님의 현재적인 존재 양식입니다. 이런 점에서 아들이로서의 하나님인 예수님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것만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 생명의 영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영의 현존은 동시에 종말 시에 완성됩니다. 우리는 오늘날 신비하게 보였던 모든 사물과 사건들이 그 본래의 모습을 온전하게 드러낼, 즉 하나님의 계시가 완전히 드러나게 될 종말에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신다고 믿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손오공처럼 우리 눈에 보이는 구름을 타고 저 우주 어느 공간에서 이 지상으로 내려온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완성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종말 공동체인 기독교인들입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위에서 언급된 성령론과 종말론에 대한 짚막한 설명을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물리학적 상식으로 볼 때 너무나 허황한 요설에 불과하다고 여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그 근거들이 얼마나 부분적이고 얼마나 한정적인지 알기만 한다면 기독교의 교의가 말하는 하나님의 존재론이나 종말론에 대해서 완전히 동의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반대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우선 시간의 본질에 대한 것만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현대 물리학에 대한 초보적인 상식을 갖고 있다면 우리가 현재 경험하고 있는 시간 개념이 그렇게 절대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할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벧후 3:8). 공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시적인 공간의 궁극적인 심연에 무엇이 있는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사물의 본질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 과학자들보다 시인들이 훨씬 가깝게 접근해 있는지 모릅니다. 셰익스피어는 인간의 삶을 “한 여름밤의 꿈”으로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도저히 종잡을 수 없이 돌아가는 인간사에 요정들이 참여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낯익은 것만을 확실한 사실이라고 생각하는 태도를 버리고 아무런 선입관 없이 사물을 직관하는 동시에 그것의 보이지 않는, 혹은 숨어있는 심연의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리가 이렇게 막연한 개연성에만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러한 개연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통해서 인격적 개입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이 세상

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에게 계시되는 과정이 바로 이 세계의 보편사입니다.

주님의 파루시아를 향한 간절한 기대와 희망이 기독교인의 기쁨과 관용을 가능하게 한다는 이 사실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무언가 신비주의적인 태도처럼 보일지 몰라도 우리 기독교인에게는 너무나 실질적인 진리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아주 짧은 시간과 더불어서 사라지지만 우리는 그런 보이는 현상의 심연에서 새로운 생명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고 믿습니다. 황갈색의 껍질에 싸여 흡사 죽은 듯이 보이지만 그것이 땅에 심겨져 몇 주가 지나면 새싹이 나고, 또 몇 주가 지나면 영롱한 색깔의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씨앗에서 그 미래의 생명을 내다보듯이 말입니다. 이런 우리의 신앙이 참되다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있도록 깨어서 준비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염려로부터의 해방

주님이 가까이 계시다는 사실에 근거해서 항상 기뻐하며 사람들에게 관용을 알게 한다는 것은 곧 모든 염려로부터 벗어나 있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구할 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들을 지키실 것이라고 권면 합니다. 이 말씀은 곧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마 6:25)라는 예수님의 말씀과 내용적으로 일치합니다. 인간의 삶은 실제로 무엇을 먹을까라는 염려로 점철되고 있는데, 이런 염려를 하지 말라는 말씀은 무언가 비실제적인 것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인간은 아무 것도 염려하지 않고 살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바울의 가르침에 따르면 기쁘게 사는 일에 집중하는 사람은 당연히 아무 것도 염려하지 않게 됩니다. 어느 하나에 열심을 내면 그 이외의 것들은 자연스럽게 사소해지게 마련이니깐요. 조금 더 명확하게 말하면 염려할 것과 그렇지 않을 것을 구분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주님 안에서 기뻐할 줄 안다면 그 이외의 문제로 인해서 염려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아주 명백하게 들립니까? 아니면 공허하게 들립니까?

우리가 염려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 사람들은 자신의 성취가 곧 행복에 직결된다고 착각합니다. 세상 질서를 조금씩 깨달아 가는 나이로부터 시작해서 죽을 때까지 온갖 염려와 근심에 싸여 있는 이유는 그 염려의 근원인 성취감이 자신의 행복이라고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곧 생명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껍데기에 연연해하는 것에 불과합니

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람도 자기가 성취한 일로 완전히 만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약간의 흥미를 끌기는 하지만 그 이상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것을 성취하려는 욕망으로 인해서 잠시도 편안한 마음을 갖지 못하고 염려와 근심으로 날을 세웁니다.

둘째, 사람들은 스스로 성취할 수 있는 것이 근본적으로 아무 것도 없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자신들의 전능을 꿈꾸고 있지만 약간만이라도 그 내용을 들여야보면 헛수고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인류사에서 무엇을 찾아볼까요? 알렉산더 대왕의 세계 정복의 꿈을 생각해볼까요? 왕정을 박살내고 명실상부한 공화정의 나라를 만들겠다는 나폴레옹의 야망을 생각해볼까요? 게르만 민족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세계 질서를 설계했던 히틀러의 제삼제국을 말해볼까요? 하나님이 죽었다고 외치면서 생명의 의지를 불태웠던 니체가 무언가를 성취했을까요? 칼 마르크스의 생각대로 프롤레타리아의 혁명이 이 세상을 생명의 질서로 변화시켰나요? 미국에서 참되고 선한 것들이 생산되고 있습니까? 일본에서 그렇습니까? 오늘의 과학은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니까? 우리의 키를 일 센티라도 크게 할 수 있나요? 소의 성장을 촉진시키기 위한 온갖 연구 끝에 성공시킨 인공 사료 때문에 광우병이 생기는 마당에 우리 인간이 무엇을 성취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고 해서 땅바닥에 누워 감이 떨어지기를 바라며 사는 게 최선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성취에 대한 지나친 욕망으로 인해서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들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염려와 근심만 많아질 뿐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런 점에서 구원은 역시 땅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고백은 옳습니다(빌 3:20). 주님께서 가까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받아들일 때만 우리는 참된 생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까이 계신 주님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아무 것도 염려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소원과 희망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 뿐입니다(6). 자기 자신에 대한 집착과 성취감으로 인해서 염려하지 않는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자기 삶을 감사와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는 역으로 말해서 자신의 마음과 생각이 일정하지 않고 혼란스러워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키지 않는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우리 자신이 우리를 지키며 사는 것이, 이는 불가능한 일인데, 지혜롭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사는 사람이, 이것이 참인데, 지혜롭습니까?

하나님의 평화

여기 16과의 마지막은 앞서 1장2절에서 잠깐 언급한 바 있는 하나님의 평화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 염려와 걱정을 하지 않고 기쁘게 살아가며 사람들을

관용으로 대하고, 하나님에게 구할 것을 구하며 살아가면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를 지켜준다는 약속입니다(7절). 이 평화는 구원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기쁨이 주어지듯이(4절) 구원도 역시 하나님에게서 주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이 평화의 권면은 바울의 다른 서신에서도 언급됩니다(살전 5:23, 고후 13:11, 갈 6:16, 살후 3:16). 이 평화는 어떤 이성도 능가합니다. 이는 곧 하나님의 평화가 인간의 이성이 수행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능가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평화는 인간이 이성적으로 행하는 모든 염려를 침묵시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의 기쁨은 이런 하나님의 평화 안에서 공급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평화 문제를 일상에서 상실하고 살아갑니다. 어쩌면 평화가 아니라 경쟁과 대결이 우리의 의식과 우리의 사회 질서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의 현장에서도 아이들이 이런 평화 담론을 배우는 게 아니라 적자생존의 원칙에 치우친 이념만을 배우는 게 아닐까요? 물론 어디서나 선의의 경쟁이 필요하며, 그런 경쟁이 인간의 창조력을 확대시키기는 합니다만 오늘날 이런 선의의 경쟁조차도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지배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평화를 말하기는 합니다만 그런 평화는 대개의 경우에 힘에 의해 강제된 질서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는 샬롬이 아니라 힘이 강한 쪽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유지되는 형식적, 요식적 평화라는 말씀입니다. 인류역사는 늘 이런 상태로 지내왔습니다. 소위 “팍스 로마나”는 늘 로마의 입장에 의해서 강제된 평화이지 피식민지의 입장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시대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본디오 빌라도라는 로마 총독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도록 내어 준 것도 역시 유대 지역의 소요를 막아내기 위한, 즉 로마의 평화를 위한 조치였습니다. 로마의 권위만 흔들리지 않는다면 그들은 어떠한 불의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팍스 아메리카나”의 본질은 과연 이런 로마의 평화와 다른 걸까요? 그들도 역시 미국의 평화만 위협받지 않는다면, 더 나아가 자신들의 정치,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는 부도덕한 전쟁과 외교정책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월남전이 그 단적인 예이며, 또한 우익 독재자들에 대한 지원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이 순간에도(2001년 10월2일) 미국은 세계무역센터 빌딩 폭파 혐의를 받고 있는 빈 라덴을 체포, 제거하기 위해서 그의 은신처를 제공하고 있다고 여겨지는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을 국제적으로 고립시키고, 탈레반 정권과 내란을 벌이고 있는 북부동맹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급기야 미국이 직접 아프가니스탄을 공격하겠다고 합니다. 이들의 행태는 2천년 전 로마가 벌였던 것과 흡사합니다. 힘이 있는 사람이 그것을 유지할만

한 도덕성을 갖지 못했을 때 소위 “람보” 식으로 정의를 강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 지구상에 테러가 종식될 수 있으며 진정한 평화가 정착될 수 있을까요? 물론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일반 대중을 향한 테러의 비열성과 무모성을 비호하면 안되며, 이 테러를 막아내기 위한 각종의 조치를 취해야만 합니다. 다만 일방적인 힘을 통해서 테러를 제어하려는 발상은 오히려 테러와 복수의 악순환만 야기한다는 점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이 글을 다시 검토하고 있는 2003년 4월12일 현재, 미국은 막강한 화력을 앞세워 3주간에 걸친 이라크 공격에서 사실상 승리를 거두고 뒷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은 지구라는 이 작고, 푸른 별에서 유일한 강국으로서 자신들의 평화만을 일방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 같습니다.)

오늘 바울이 하나님의 평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말씀은 그저 상투적인 공자님 말씀이 아니며, 단순히 개개인들이 심리적으로 마음의 평화를 가지면 된다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평화는 인간과 인간, 집단과 집단, 국가와 국가, 인간과 자연에 이르는 우주적인 살롬을 일구어내는 생명의 힘입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파루시아”의 사건입니다.

17. 보편적 가치

4:8,9

종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옹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빌립보 8,9절은 1절에서 이어지는 구절이라고 합니다(바르트, 프리트리히, 하우푸트, 틸만, 빈센트 외). 제가 볼 때도 그래야만 그 내용이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앞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4장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일반적 권면과 감사와 인사로 짜여져 있지만, 이 세 구절만은 3장에 기록된 대로 손할례당으로 일컬어지는 율법주의자들과의 논쟁에 포함됩니다. 제가 루터역 성경을 기초로 해서 세 구절(1,8,9)을 다시 번역해 보겠습니다.

1. 그러므로 내가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이여, 당신들은 나의 기쁨이며 나의 영광입니다. 주님 안에서 이렇게 굳건히 서십시오.

8. 더욱이 형제들이여,
변함 없이 참되며,
경건하고, 정의로우며,
순결하며, 사랑 받을만하며, 칭찬 받을만하며,
그 어떤 덕이 있거나, 어떤 명예가 있든지
이것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9. 내게서 배운 대로, 내게서 받은 대로
내게서 듣고, 본대로
그대로 행하십시오.

그러면 평화의 하나님이 당신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세 구절에서 각각 어떤 명령어가 등장합니다. 1절, 굳건히 서시오. 8절, 깊이 생각하십시오. 9절, 그대로 행하십시오. 그가 이렇게 명령조로 말하는 이유는 빌립보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설교자들의 위험성이 그만큼 크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3장에서 격렬한 논쟁을 전개한 후에 시적인 운율을 통해서 자신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굳게 서서, 그를 생각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옳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윤리의 보편적 지평

8절에는 일종의 덕목에 관한 목록이 나옵니다. 흔히들 8절은 철학적 도덕을 인

정한 것이며, 9절은 기독교적인 도덕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만, 반드시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지 8절에 거론된 이 덕목들은 바울이 일반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기독교적인 덕목들과 비교할 때 약간 유별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분명히 스토아 도덕철학이 말하는 것들과 유사합니다(디벨리우스). 여섯 개의 형용사와 두 개의 명사로 된 이 덕목들을 자세히 살펴봅시다. 참된, 경건한, 정의로운, 순결한, 사랑 받을만한, 칭찬 받을만한, 덕, 명예. 아마 이런 덕들은 로마 사회에서도 그대로 적용되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스토아적인 덕목들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이것들이 새로운 차원에서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사실을 말하려고 합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도덕철학적인 명제들이 주님 안에 굳건히 서 있으라는 명령에서 새로운 의미를 획득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율법 주의자들과의 논쟁 말미에서 이러한 스토아적인 덕목들을 거론했다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바울의 주장이 자칫해서 무율법주의로 비쳐질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었을지 모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게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간의 모든 윤리와 도덕까지 폐기시키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의 보편적인 윤리와 가치들에 대한 우리 기독교인의 입장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배울 수 있습니다. 기독교의 배타적 구원론과 이 세상의 보편적 가치 사이에 놓여 있는 긴장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강조한다는 생각으로 이 세상의 모든 가치 있는 행위와 사유들을 무의미한 것으로 여긴다면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 안에서 살아갈 필요가 없이 짐을 싸들고 광야로 나가든지 수도원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모든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세상과 단절하고 은둔해 버려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원하실 리도 없겠지만 말입니다. 반대로 이 세상의 보편적인 가치에 치중한 나머지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초월성이 간과된다면 기독교는 더 이상 십자가에 달렸다가 부활하신, 그리고 종말에 우리에게 재림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가 아니라 종교 일반이 되거나 윤리 공동체로 퇴색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문화

리차드 니버는 “그리스도와 문화”에서 기독교 신앙과 세상의 문화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섯 유형으로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첫째 유형은 그리스도와 문화가 서로 대립적이라는 주장입니다. 중세기의 수도원이라든지 소종파 운동에서 이 세상의 문화는 철저하게 배격되었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가치만 추구되었습니다.

둘째 유형은 그리스도와 문화가 근본적으로 일치한다는 주장으로서 첫 유형과 정반대입니다. 여기서는 그리스도가 인간 문화사의 위대한 영웅으로 나타납니다. 19세기의 유럽 문화 개신교주의가 대표적입니다.

셋째 유형은 그리스도의 문화적 성격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이 둘 사이에는 연속적인 것만이 아니라 불연속적인 부분이 있다는 입장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의 종합적 사상이 이를 대표합니다.

넷째 유형은 그리스도와 문화 사이에 이중적인 권위를 인정하는 입장입니다. 기독교인은 이 세상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동시에 그에 속하지 않은 그리스도의 권위에 복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일종의 역설적 관계를 말하는데, 마틴 루터의 입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유형은 일종의 개변주의자(conversionist)의 입장으로서 첫째와 넷째 유형에 서서 문화의 타락을 강조하면서도, 그것을 배타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그것의 변화를 역동적으로 일으키려고 합니다. 어거스틴과 칼빈이 이를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우리는 물론 기독교 사상을 위에서 언급한 이 다섯 유형에 모두 집어넣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기독교 사상이 이 세상 문화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왔는지 개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해준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어쨌든지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늘을 희망한다고 하더라도 역시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여러 사람들과 어울려 살고 있다는 점에서 구체적인 이 땅에서의 삶을 소중하게 여기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지평에서 인간의 생명이 완성될 날을 기다리면 살아갑니다. 즉 기독교 신앙은 생명 자체이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희망하며, 이런 토대에서 인간의 행위를 규정해 나갑니다. 반면에 이 세상의 보편적인 윤리는 인간 자체에 대한 관심에서 어떤 가치 질서들을 세워나갑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옳게 생각하고 믿는다면 세상의 덕목들이 갖고 있는 긍정적인 부분과 그 한계를 적발하여 더 높은 차원으로 승화시킬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오히려 우리 기독교인의 삶이 세상의 선한 질서에 의해서 수모를 받게 됩니다. 예컨대 누가 보더라도 십자군 전쟁이나 종교재판, 교파분리는 이 세상의 가치들보다 훨씬 경박하고 위선적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사건에 우리가 충실하기만 하다면 세상에서 분명히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영광 보다 앞서는 일은 아무 것도 없으니까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인류 문명에서 보편적 가치라 할 정의와 사랑과 인내와 자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18. 삶의 새로운 차원

4:10-20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하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번 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이다. 아멘.

주는 교회, 받는 교회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쓰게 된 동기 중의 하나가 바로 빌립보 교회의 재정적인 도움에 대한 감사의 말을 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감옥에 갇힌 바울에게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재정적인 도움을 주었으며(18절), 그 이전에도 여러 번 바울을 도왔습니다. 피혁 세공 기술이 있었던 바울은 원래 자비량 선교를 원칙으로 삼고 있었지만 빌립보 교회의 지원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언제 재판이 끝나서 풀려나게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바울은 이 편지의 말미에 여러 번에 걸친 빌립보 교회의 재정적인 도움에 대해서 감사의 말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초기 교회 안에 처음부터 교회끼리 상부상조하는 전통이 있었다는 사실을 배울 수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만이 아니라 안디옥 교회도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바울을 통해서 도움을 주었습니다. 교회가 교회를 물질적으로 돕는 일은 도덕적인 차원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에 속하는 문제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점에서 교회 상호간에 서로 돕는 일은 교회의 교회됨을 살리는 표징입니다. 만약에 같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웃 교회의 어려움을 남의 일로 생각해서 모른 채 한다면, 더 나아가서 이웃 교회의 어려움을 이용하려 든다면 궁극적인 면에서 그리스도의 몸이기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문제는 교회의 에큐메니칼 정신으로 모아집니다. 진정한 교회는 기본적으로 에큐메니칼을

지향해야 합니다. 하나의 교회, 친교 하는 교회이어야 합니다. 비록 기독교의 지난 역사가 분열의 상처로 얼룩졌다는 사실은 돌이킬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그 상처를 회복시켜나가야 할 때입니다. 만약 이런 분열을 당연한 것으로 간주하거나, 혹은 그것을 자신들의 기득권을 확보하는 기회로 사용한다면 교회의 본질에서 크게 벗어나는 셈이 됩니다.

깊이와 여운이 있는 글쓰기의 지평을 연 이현주 목사님의 어느 글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읽은 기억이 생각납니다. 이현주 목사님이 젊은 시절 목회활동을 하고 있던 어떤 날, 지역의 후배 목사 한 사람이 끓여먹을 쌀이 없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기도 어렵기는 매 한가지지만 그래도 쌀 한말 팔아서 자전거 뒷좌석에 싣고 그 후배 목사의 집을 찾아 나섰습니다. 읍내를 가로질러 가는데 현재 신축 중인 대형 교회당 건물이 눈에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당은 같은 교단에 속한 교회였습니다. 이현주 목사는 그 순간에 매우 당혹스러운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한쪽에서는 저녁 먹을 쌀도 제대로 없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그 부근의 다른 건물을 압도하고도 남을만한 대형 교회당을 건축하고 있다는 사실이 아무래도 불편했다는 것입니다. 교회당은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지만, 같은 교단의 목사들 사이에, 선후배 지간에 후배들이 굶을 정도라는 사실도 미처 알지 못하고 지내는 그 상황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 안에 이런 일은 별로 희귀한 게 아니라 일상적입니다. 우리가 재정적인 면에서도 진정한 교회 일치를 이룰 수 있는 때가 언제 올는지 몹시 기다려집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국 교회 중에서 3분의 1정도가 미자립 상태라고 합니다. 재정적으로 자립하지 못하는 이들 대다수의 교회는 다른 교회로부터 선교비 명목으로 도움을 받습니다. 따라서 대도시의 중대형 교회들은 일년 경상비의 상당한 부분을 이런 미자립 교회를 지원하는 데 사용합니다. 이런 전통은 매우 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미자립 교회를 도와주는 일에서도 불미스러운 모습이 보입니다. 별로 큰 액수도 아니면서 도움을 받는 교회의 목회자를 정기적으로 호출하기도 하고 선교 보고서를 내라고도 하며, 심지어는 수년 간 도와주었는데도 자립하지 못하는 것을 보니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충고와 함께 선교 지원금을 끊겠다고 위협을 가합니다. 여러 교회로부터 조금씩의 선교비를 지원 받아 호구지책을 삼고 있는 목회자들의 심정이 어떠할는지 상상이 갑니다. 도움을 받는 교회가 떳떳하게 받을 수 있는 길은 신학적인 면에서 진정한 에큐메니칼 정신을 회복해야 하며, 방법론적인 면에서 개교회가 개교회를 돕는 게 아니라 창구를 일원화해야 합니다. 한국 교회 안에서 이런 노력들이 조금씩 싹이 트고 있습니다만 미자립 교회 지원을 자신들의 선교 업적으로 생각하는 한 이 제도가 정착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이 감사의 말은 약간 이상하게 들립니다. 도와 준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다는 직접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당신들이 이제 나를 생각해서 도와줄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참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당신들이 그런 생각을 진작에 했지만 그 동안 기회가 없었습니다(10절). 대충 이런 뜻입니다. 이런 표현이 그 당시에 일반적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적절한 표현은 아닌 것 같습니다. 11절 전반절에서도 이르기를, 내가 무언가 부족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뻔뻔스러운 것처럼 들립니다. 도움을 받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아침에 가까운 말을 하거나, 자기의 어려운 형편을 하소연하기 마련인데 바울은 전혀 다른 차원에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 일까요?

바울의 태도는 아주 떳떳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몰두해 있는 사람답게 물질이 오가는 일에서도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 세상이라는 게 이런 주고받는 관계에서 흑막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한쪽 편에서는 비굴해지고 다른 편에서는 오만불손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꾸지도 말고 꾸어주지도 말고 사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웃과의 관계를 끊고 사는 게 오히려 마음이 편할 테니까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 전까지는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없을 수 없기 때문에 돕는 일과 도움을 받는 일은 계속 일어나야 합니다. 다만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의 바울처럼 떳떳할 수 있는 풍토와 제도가 필요합니다.

현실 사회주의가 막을 내린 다음부터, 그리고 북한의 계속되는 흉년과 경제악화로 인해서 많은 주민들이 생존의 위험에 빠졌다는 소식을 들은 다음부터 남한은 정부차원만이 아니라 시민단체 및 종교단체가 중심이 되어서 적지 않은 경제지원 사업을 벌였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공산당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마귀 자식들이라고 매도하던 남한 교회가 어느 사이에 북한에 대해서 동정심을 느끼고 도움의 손길을 뻗었다는 것은 만시지탄이지만 그래도 다행입니다. 그러나 이런 도움이 자신의 도덕적 만족감에서 시작되었다면, 혹은 우리 체제의 우월감을 내보이려는 속셈이라면 얼마 가지 않아서 이런 노력들이 싸늘하게 식어버릴 것입니다. 지원방식에서도 북한 주민들이 열등감을 느끼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해야만 합니다. 혹시라도 졸부 근성에서 우리의 경제적 힘과 도덕심을 짐짓 보여주려는 듯한 태도가 있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사랑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면 아무리 그럴듯하게 보이는 행위라 하더라도 아무 것도 아닙니다(고전 13). 남한과 북한이 공동 운명체라는 사실을 깊이 새기고 동정심이 아니라 속에서 우려나오는 마음으로 아무 거리낌 없이 서로 돕고 도움을 받읍시다.

도움을 받고 있던 처지에서 바울이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아마 그만큼 빌립보 교회를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아무리 순수한 마음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그것을 받아들일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게 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노파심으로 한 마디 덧붙일 말이 있습니다.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누구나 모두 바울 같은 태도를 취하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을 도와준 이웃에게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의 말이 아니라, 그게 모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일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바울만이 갖고 있는 순전한 마음을 자기에 대한 변명으로 오용하는 것입니다. 이러 태도를 보이다가는 세상 사람들로 부터 예수쟁이는 주는 것 없이 얄밟다는 말을 듣기에 안성맞춤입니다.

소유와 무소유

바울은 자신이 궁핍하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의 재정적인 도움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게 아니었습니다(11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만 삶을 집중시키고 있는 그는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에서 벗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궁핍하다는 사실에 묶여 있는 사람은 도움을 주고받는 문제에서 이렇게 당당하거나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사실 인간의 많은 문제는 대개가 자신의 궁핍에서 시작됩니다. 먹을 게 부족하거나 입을 게 부족한 경우에 당연히 삶이 피곤해집니다. 인간의 생존을 위협하는 이런 절대적인 궁핍은 그 근본 원인이 해결되어야 인간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절대적인 궁핍이 해결되지 않으면 인간은 어쩔 수 없이 폭력적인 방법을 찾게 됩니다. 빅토르 위고의 “레 미 제라블”에 나오는 장발장은 이런 절대 궁핍으로 인해서 빵을 훔치다가 감옥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현대인들은 이런 절대 궁핍이 아니라 상대적인 궁핍 안에서조차 여전히 궁핍하다는 기분에 빠져듭니다. 좀더 사실적으로 말하자면 물질적으로 풍부한 가운데서 느끼는 정신적인 궁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잠시 경험한 바에 의하면 독일의 개인 주택에는 대개가 지하실이 있는데, 그곳에는 많은 먹거리들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대형 냉동고 안에는 각종 식품들이 냉동 상태로 보관되어 있으며, 포도주와 맥주, 주스, 각종 식료품들이 넉넉하게 쌓여 있습니다. 추측컨대 전쟁을 많이 겪은 사람들로써 만약의 경우에 대비한 비상 식량인 것 같습니다. 독일의 가정처럼 오래 버틸 수 있는 먹거리가 지하 창고에 쌓여 있다고 해서 정말 마음이 넉넉할까요? 독일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사람들도 그렇게 궁핍하게 살

아가지는 않습니다. 상류층은 접어둔다고 하더라도 30평 아파트에서 네 식구가 그럭저럭 살아가는 보통 가정도 역시 옛날과 비교할 때 왕보다 훨씬 넉넉하게 삽니다. 사시사철 따뜻한 물이 나오고 냉난방이 잘 되어 있습니다. 약간만 성실하게 노력하면 문화생활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처럼 실제로는 전혀 궁핍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궁핍하다는 마음에서 결코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개인이나 국가나 이렇게 돈버는 일에만 정신을 빼앗기며 살아갈 까닭이 없습니다. 무언가 불안하니까 돈버는 일에만 치우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궁핍감은 인간을 초조하고 비굴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반대로 부자들을 교만하게 만듭니다. 사람들이 돈 앞에서 비굴하게 사니까 돈이 막강한 힘을 발휘하는 것이지, 만약 돈이 많지 않아도 별로 궁핍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돈 많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것으로 교만하게 굴지는 못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구원은 부한 사람들로부터가 아니라 오히려 물질적으로는 가난하지만 마음이 풍요로운 사람들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바로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풍요로움을 경험한 사람들 말입니다.

현대인들이 궁핍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그만큼 필요하지 않은 것을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스개 소리로, 자기에게는 운전 기사만 있지 정원사가 없기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평생토록 궁핍감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 사회는 자신의 삶을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데 익숙해 있기 때문에 이런 궁핍감으로부터의 해방은 아예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작은 집에 사는 것을 심각하게 고민하는 것이 바로 그런 요소들입니다. 또한 현대 사회는 우리에게 별로 필요하지 않은 것들을 필요한 것처럼 여기게 만드는 온갖 광고와 선전 때문에 더욱 심한 궁핍감 속으로 빠져듭니다. 이런 시대 정신이 지배하는 한 우리 인간은 그 어떤 노력을 기울여도 근본적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해결책은 다른 데 있습니다. 궁핍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는 바울의 생각이 어디서 출발하고 있는지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그런 삶의 근원으로부터만 우리는 삶을 새롭게 이해할 수 있으며, 모든 궁핍감으로부터 실제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오랜 전에 읽은 책인 법정 스님의 “무소유”는 지금도 스테디 베스트 셀러라고 합니다. 일반 사람들이 문학적으로는 별로 완성도가 높지 않은 이 수필집에서 많은 감동을 받는 이유는 법정 스님이 사물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많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데에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일반 사람들이 승려의 글을 읽는데 목사의 글은 읽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 책에 실린 한 토막 이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로 암자에서 혼자 살아가는 법정이 어느 날 매우 귀한 난초 화분을 선물로 받았다고 합니다. 그 난초의 자태에서 풍겨 나오는 멋에 취해서 법정도 애지중지 이 난초 키우는 재미에 푹 빠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디를 출타했다가도 때 맞춰 들어와야 하는 일이 많았고, 어쩔 수 없이 며칠 늦어질 경우에는 마음이 초조해졌다고 합니다. 결국 법정은 자신의 이 한가지 취미를 포기하고 이 난을 다른 사람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이 작은 일화를 통해서 그는 무엇인가를 소유하려면 결국은 그만큼 자신의 삶을 포기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이는 역으로 무소유만이 참된 자유라는 말이 아닐까요? 이 억척스러운 세상살이에서 우리가 법정처럼 살아갈 수는 없겠지만, 궁핍이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파괴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받아들이기에 따라서는 그만큼 자유의 영역이 넓어진다는 깨달음을 넓혀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게 삶의 새로운 차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새로운 차원이 기독교적인 면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할까요?

자기초월

바울은 자신이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심정을 시적인 운률에 따라서 이렇게 표현합니다(12,13절).

나는 가난할 수도 있네.
 나는 부할 수도 있네.
 나에게는 모든 것이 건널 만 하다네.
 배가 부르거나 고프거나,
 소유가 많거나 부족하거나
 나를 강하게 하시는 분 안에서
 내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네.

그렇습니다. 바울은 궁핍하다는 사실에 매어서 살지 않았습니다. 늘 부족한 게 많다는 생각으로 사람들의 도움에 연연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근본적으로 가난한 데 처할 수도 있고, 부한 데 처할 수도 있었습니다. 어떤 삶의 모양이든지 그는 자기를 강하게 하는 분 안에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진술합니다. 이것은 곧 삶에 대한 다른 각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삶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다른 절대적인 힘에 의존해서 자기 자신을 초월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자기를 초월한다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배부름과 배고픔, 넉넉함과 부족함이 자기에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바울의 이 말을 인간의 구체적인 삶이 의미 없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인간의 육신은 죽어서 썩어버릴 것이니까 육신을 돌보는 일은 아무 쓸 데 없다는 뜻도 아닙니다. 배부름과 배고픔은 우리가 하나님 이 지으신 육신에 속하는 한 우리 인간의 삶에서 소홀히 다루어도 좋은 게 아닙니

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우리가 먹고 배설하고 생육하는 일은 창조 사건과 연관되는 아주 소중한 일입니다. 배부름과 배고픔의 문제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주기도에 있듯이 생존적인 차원에서 고려해야 합니다. 다만 우리가 육신의 배부름과 배고픔만을 삶의 목표로 삼음으로써 벌어지게 될 영의 황폐화를 생각해야 합니다.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데는 일용할 양식만 있으면 충분하기 때문에, 또한 이런 생존은 하나님이 이미 책임지신다는 믿음 가운데서 우리는 이런 문제를 초월해야만 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그리스도 신앙은 마르크스와 경쟁할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삶 안에서 아무런 의미도, 능력도 없습니다.

어떻게 자기를 초월할 수 있습니까? 자기를 초월한다는 것은 위에서 암시되었듯이 자기 자신이 아니라 다른 것에 관심을 집중시키는 것이라는 사실에서 이미 그 답은 주어졌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이 자기를 초월하는 길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궁극적인 관심을 하나님의 나라에 둠으로써 우리는 자기 자신으로부터 초월할 수 있습니다. 그게 실제로 가능할까요? 이 초월은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놓여 있는, 혹은 우리의 노력에 들어 있는 무상함을 철저히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고 생각한다면 가능하지만, 우리의 인격적인 노력만으로는 도달할 수 없습니다. 결국 삶의 방향을 돌리라는 뜻의 “메타노이아”(회개)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인 것처럼 땅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하늘에 대한 관심으로 삶의 방향을 선회하는 것만이 자기를 초월할 수 있는 길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만 더 보충하도록 합시다. 초월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재정 지원에 대한 감사의 말을 전하면서 이러한 돕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원히 영광을 돌리라(20절)고 결론을 맺습니다. 배부름과 배고픔까지도 뛰어넘었던 바울의 궁극적인 관심은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무위자연으로 돌아가자는 동양 사상처럼 자기 존재를 극히 가볍게 여기는 정도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삶의 목표였습니다. 물론 인간의 무위는 나름대로 인간의 삶을 높은 차원으로 승화시켜주는 것입니다만 그것은 자유에 이르는 일종의 원리일 뿐이지 그런 원리를 가능하게 하는, 그리고 그 원리를 깨어버리는 방식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에게 이르는 바른 길이 아닙니다. 무위자연 안에서 나름대로 이 세상의 인간 질서로부터 해방되는 자유와 평화를 누릴 수 있겠습니다만 생명의 희열에 참여하기는 어렵습니다. 모든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게 될 종말의 세계, 부활의 세계에 참여하는 희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서만 가능합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기독교는 이 땅의 모든 한계와 모순이 극복된 부활의 세계를 향해서 초월해나가는 종말론적 공동체입니다.

자기 자신에게만 온 신경을 곤두세우고 살아가는 오늘날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린다는 거대한 환상 가운데서 재정적으로 서로 돕는 일에 모범을 보여준 바울과 빌립보 교회로부터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일상적인 일에서 거룩한 일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이 그것입니다. 비록 일상이 물질 토대와 밀착되어 있지만 여기서 이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내다보았습니다. 배고픔과 배부름의 일상에서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일상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비밀입니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에게만 들리는 세미한 음성입니다.

19. 성도는 성자다

4:21,22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별히 가이사집 사람 중 몇이니라.

호칭의 존재론적 의미

모르긴 몰라도 우리나라 사람들만큼 이름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민족도 드물 것입니다. 별로 뼈대가 없는 집안이야 그저 “간난아”, 혹은 “개똥쇠야” 같은 속칭으로 부르기도 했겠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체통을 세우는 집안에서는 새로 태어난 아이의 이름을 짓는데 무척이나 공을 많이 쏟았습니다. 요즘 같은 때도 작명소가 성업 중인 걸 보면 이름에 대한 우리 민족의 심정을 알만 합니다. 그런 건 다 미신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근본의미를 좀더 진지하게 생각해보면 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마땅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좋은 이름을 가져야만 출세하거나 오래 산다는 보장이 있다는 말이 아니라 좋은 이름이 그의 삶을 그런 방향으로 끌어간다는 사실을 깡그리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늘 평화를 생각하는 사람과 늘 자기의 개인적인 욕심만 생각하는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지요. 그러니까 좋은 이름 자체가 주술적으로 그 사람을 출세시킨다는 게 아니라 좋은 이름의 의미가 그 사람의 삶을 규정해 나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좋은 이름은 마땅히 필요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도 여러 가지 이름이 따라다닙니다. 신약성서에 나와있는 호칭만 하더라도 그 수가 많습니다. 크리스천, 형제, 예수 안의 신실한 자들, 부르심을 받은 자, 성도. 그 중에서 가장 빈번히 사용된 용어는 형제와 성도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를 쓰기 시작할 때 1:1에서 성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이제 이 편지를 끝내면서 다시 성도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서는 성도에게 축복을 기원하고, 성도에게 문안하는 것으로 시작과 끝을 맺고 있으니까 성도라는 단어의 의미를 확실히 깨닫기만 한다면 빌립보서 전체를 아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보기에 따라서는 편지의 앞 뒤 인사는 의례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누구나 편지를 쓸 때는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인사와 축복을 기원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저는 감옥의 바울이 그런 의례적인 차원에서 이런 인사를 했다고보다는 성도라는 단어에 담긴 깊은 의미를 충분히 전제하고 사용했다고 봅니다. 그는 아무 생각 없이 자기 생각을 표현할 그런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설령 그가 무심결에 성

도라는 단어를 사용했다손 치더라도, 오늘 이 편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읽는 우리로서는 이 단어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을 여지없이 드러내주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가슴에 깊이 새겨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본질을 가리키던 말씀이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규정해나가는 능력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되새기는 작업이 소중하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이름과 언어의 존재론적 능력입니다.

여기서 참고적으로 성서읽기에서 언어가 갖는 “대담”의 성격을 한 마디 덧붙이고자 합니다. 비록 바울이 성도라는 이름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은 채 여기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2천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우리는 이 단어를 원래 바울이 생각했던 것 이상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성서기자와 오늘의 독자가 성서의 언어를 사이에 두고 대담을 나눔으로써 성서 계시의 훨씬 심원한 의미가 밝혀질 수 있습니다. 진리는 늘 이런 식입니다.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감추어진 것이 빛을 발하게 됩니다.

인사의 진정성

바울은 21,22절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해 주십시오.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특히 카이사르의 집안 사람들이 문안합니다.

이런 문장을 보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몇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감옥 안에 갇혀 있는 바울과 함께 있는 형제들이 있다는 것과 그런 형제들 중에는 카이사르 집안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 중에는 바울을 늘 따라 다니면서 크고 작은 일을 도와주던 디모데가 있었고,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의 어려운 형편을 헤아려 보내준 에바브로디도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신자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문안 인사를 청하는 걸 보면 그들과 개인적인 인간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 주변에 함께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은 감옥 생활을 하는 바울로서는 참으로 다행한 일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 중에서 카이사르 집안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은 기독교 초창기에 관한 중요한 역사적 사실 한 가지를 시사합니다. 이들 공동체 안에 신분이 높은 이들이 들어왔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일단 이들이 누구인지 상세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당시의 황제를 일컫는 카이사르 집안 사람이라고 해서 반드시 황실 사람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로마 정부에서 식민지를 경영하기 위해서 파견한 관리라고 여겨집니다. 어쨌든지 우리는 여기서 로마의 의해서 십자가 처형을 당한 예수를 믿는 기독교 공동체 안에 이미 로마 황실과 직간접으로 관계된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현재 비록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그는 그런 기회를 통해서도 예수의 복음을 전했으며, 어떤 결실을 맺었다는 사실을 통해서도 우리는 기독교의 복음은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전파될 수 있다는 점을 배울 수 있습니다.

바울은 여러 번에 걸쳐서 문안한다고 썼습니다. 오늘 우리에게야 의례적인 말투처럼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편지를 쓰고 받던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참으로 절실한 표현입니다. 아직 로마의 무자비한 박해가 시작되기 전이긴 했지만 그런 전조들이 여기 저기서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유대인의 모함은 여전히 기독교인들을 힘들게 하던 상황이었습니다. 똑같은 말이나 표현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의 자세나 형편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있듯이 빌립보서의 이 문안한다는 일상적인 말에는 그 어떤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들만의 고유한 삶과 신앙의 깊이가 담겨 있었습니다. 생존의 위기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의 문안 인사는 절실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은 얼마나 진정한 의미에서 이런 문안을 나누고 살아갈까요? 별로 이렇다할 진정성 없이 그저 형식인 인사만 나눌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런 것 같습니다. 첫째, 우리 기독교인은 언어의 의미보다는 그 형식에 좌우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고유하게 사용하고 있는 언어들의 원래적 의미는 죽어버린 채 그 모양만 기독교 안에서 인플레이션 상태를 이루고 있습니다. 둘째, 우리 기독교인은 기독교인다운 삶의 특성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자기가 실제로 살아가는 삶에서 기쁨과 평화를 누리지도, 갈구하지도 않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평화와 기쁨을 진정한 의미에서 말할 수 있을까요? 은혜라는 말은 많이 하지만 실제로 은혜롭게 살아가지 못한다는 이 모순을, 이율배반을 우리는 아직 극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성서의 가르침은 그 껍데기만 남게 되고, 그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적 모습을 과장하게 됩니다. 악순환이죠. 이것을 벗어나는 길은 성서말씀의 깊이로 우리가 우선 빠져들어 가는 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한 예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도”라는 단어입니다. 성도에게 문안한다는 바울의 말씀은 과연 어떤 생각을 담고 있는 걸까요?

성도

성도는 헬라어 “하기오스”, 히브리어 “카도쉬”의 번역입니다. 구약적인 의미에서 이 단어는 하나님에게 특별히 헌신하는 사람들을 가리킬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가리키기도 하였습니다.

신약성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가리키는데, 이 그리스도는 인자로서,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서도 으뜸가는 분이었습니다(막 1:24, 눅 4:34).

성도들의 거룩함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관계된 것으로, 그들은 하나님께 봉헌된 사람으로서의 소명을 가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며(롬 1:7), 고린도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 구성됩니다(고전 1:2).

그런데 “하기오스”라는 단어는 거룩하다는 뜻만이 아니라 “따로 구별된”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양자가 모두 비슷한 뜻입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그렇지 못한 것에서 구별되었다는 뜻입니다. 구약성서의 가장 핵심적인 종교 개념은 바로 이런 거룩과 구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민족들로부터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었습니다. 이들은 먹거리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삶을 이런 성숙의 구도로 구별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유별한 구별이 주변 사람들을 피곤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만 그것의 근본 의미는 매우 보다 적극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한다는 것은 바로 거룩한 힘을 체험한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때 들려온 음성이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것이니 네 발의 신을 벗으라는 소리였습니다. 거의 모든 구약성서의 하나님 경험은 이처럼 거룩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지 않은 것과 구별된 거룩한 힘입니다. 이런 거룩한 것의 체험이 바로 인간을 새로운 차원으로 올려줍니다. 고대인들은 이 거룩한 힘을 공간적으로 생각했습니다만 그것은 그들의 역사적 한계이기 때문에 접어두기로 하고, 거룩의 근본적인 의미는 생명에 담겨있습니다. 생명을 생명 되게 하는 힘이 바로 거룩한 힘이며, 곧 성령입니다. 이런 힘은 당연히 세상을 파괴하는 악한 힘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성도인 하기오스는 바로 거룩한 자들이며, 구별된 자들입니다.

신약성서에서 예수 믿는 자들을 성도라고 부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우리는 거룩한 자들이며, 구별된 자들입니까? 만약 우리가 매 주일 교회에 나오고 찬송을 부르고 헌금을 드리고, 이러한 일정한 종교의식 때문에 거룩한 백성이라든지, 구별되었다고 생각한다면 그 의미를 너무 축소시키는 일입니다.

물론 이러한 노력은 필요하기도 하고, 기독교 역사에서도 계속되어 왔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는 쿰란 공동체나 바리새인들이 그런 하기오스를 지향했습니다. 기독교 역사에도 사막의 성자들이나, 유무명의 많은 고행주의자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오늘도 역시 산 속의 기도원에 은둔한 채 이 세상과는 전혀 상관없이 유별나게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자세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기독교인의 본질일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는 특정한 태도나 행동들은 필요하기는 하지만 절대적인 본질일 수는 없습니다. 그런 것으로 성도가 될 수 있다면 그것은 아주 쉬운 일입니다.

기독교인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었다는 뜻을 좀더 진지하게 생각해봅시다. 초대 기독교인들이 유대 종교와 로마 정치의 질서로부터 거리를 두고 살아감으로써 받아야 했던 시련은 너무나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실제로 신체적인 폭력을 당했습니다. 오죽했으면 그들이 카타콤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려야만 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순교를 당했을까요? 로마의 권력이 기독교를 범죄 집단처럼 다룬 이유는 자신들이 절대화하고 있던 그 로마의 권력을 기독교가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로마법에 의해서 십자가형에 처해졌던 예수를 퀴리오스(주)요, 그리스도로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땅의 절대 권력을 상대화하는 집단이 그들의 마음에 들 까닭이 없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 정책이라는 게 웬만하면 식민지 백성들과 마찰을 일으키지 않고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었는데, 유독 기독교에 대해서만은 반역자들을 대하듯 했다는 것은 대제국 로마답지 못한 행동이었습니다. 아마 로마 황제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근원적인 불쾌감을 가졌든지 아니면 어떤 두려움을 느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렇게 로마 정부로부터 미움을 받던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었다는 사실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역사 반전입니다.

어쨌든지 성도라는 단어의 근원적인 의미와 그것이 구체화되었던 초대교회의 신앙과 삶을 받아들인다면 기독교는 이 시대에 걸림돌로 작용해야 합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 내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이 사회가 우리 기독교인들을 귀찮게 여긴다면 그것은 곧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다는 증거일 것입니다만, 반대로 이 세상이 기독교인들을 “소 닭 보듯이” 대한다면 우리가 성도로서의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게 아닐는지요.

성자

기독교 역사에서 하나님 나라를 가장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들은 바로 순교자들입니다. 사도행전 7:54-60에 나오는 스테반의 순교 장면을 보십시오. 그는 하늘을 우러러 보면서 예수가 하나님 우편에 앉은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순교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모든 것을 걸어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성자라고 부릅니다.

사도신경에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이라는 구절이 있는데, 이는 곧 우리 믿는 성도들의 영적인 사귄만을 뜻하는 게 아니라 이미 순교해서 하늘에 올라간 성자들과의 사귄을 뜻합니다. 초대 교회는 예배를 통해서 하늘의 성자들과 땅의 성도들이 하나가 된다고, 영적으로 친교를 나눈다고 믿었습니다. 성도는 곧 성자라는 말이 됩니다. 성자가 되어야만 예수를 믿는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를 믿고 산다는 것은 참으로 위대하고 엄청난 사건입니다.

과연 성자가 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실제로는 이 땅에서 여전히 인간적인 한계를 갖고 살면서 성자 운운한다는 것은 일종의 착각이나 망상이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성자를 손오공처럼 구름을 타고 다닌다거나 타임머신으로 신출귀몰하는 존재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런 성자가 될 수 없습니다. 성자는 그가 한 일 때문에 성자가 됩니다. 비록 땅에서 살지만 하늘에서 이루어질 일을 하며 사는 사람이 바로 성자입니다. 그냥 땅의 규칙에 사로잡혀 있으면 순교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늘의 원리에 마음을 두고 있는 사람만이 땅에서 살지만 이 땅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땅의 일을 초월할 때만 땅의 일에 사심 없이 최선을 다할 수 있으며, 그렇게 산 사람들이, 그렇게 살다가 불이익을 당한 사람들이, 그래도 그런 것을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들이 성자입니다.

언젠가 류시화 씨가 번역한 바바 하리다스의 “성자가 된 청소부”라는 제목의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바바 하리다스는 인도 출신으로서 묵언수행으로 유명하며 자기의 가르침이나 여러 종류의 생각을 순전히 흑판에 글로 쓸 뿐입니다. 이 책에 나오는 주인공은 인도에서 가장 천한 계층에 속하는 인물로서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거리 청소를 업으로 살아가는 젊은이였습니다. 그는 마약을 복용하게 되었으며 많은 우여곡절을 거쳐서 결국 어느 마을에 들어가서 다시 청소 일을 하며 마지막 인생을 마감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직업적인 청소부로 인생을 시작했다가 마지막으로는 아무 조건 없이 단지 청소만 하는 사람으로 인생을 마친 사람이 결국 그 마을에서 성자로 추앙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흔하고, 또는 천하다고 생각되는 청소부의 일을 거룩하게 수행하는 사람이 곧 성자라는 말이겠지요.

우리는 지금 성자가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며, 그런 점에서 불행합니다. 모두가 자기의 업적을 드러내는 일에 분주할 뿐이지 일상적인 일에 자기의 전 존재를 걸어둘 수 있을 만큼 거룩한 영에 사로잡혀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청소년들의 마음도 공부와 인기 가수나 탤런트들에게 빠져 있기 때문에 거룩한 힘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아마 상당한 기간 동안 성자는 등장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약성서와 기독교 전통은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바로 성자라고 말합니다. 사실 우리에게 성자의 흔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성자라는 말을 들어야 한다는 사실이 한편으로는 참으로 불안합니다. 솔직히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성자의 모습은 커녕 오히려 비열하고 세속적인 정신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성도는 성자입니다. 성자들과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성자의 길에 들어섰습

니다. 이런 성자로서의 이름에 걸맞게 살아가기 위해서라도 아직 이 땅에서 숨을 쉬고 있는 우리들은 거룩한 것에 휩싸이는 경험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 자신을 초월하게 만드는 거룩한 힘만이 우리를 이 세상 한 가운데서 거룩한 삶을 유지하도록 만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로운 삶의 지평에 들어가 있는 우리 성도들은 곧 성자입니다.

20. 영적인 삶을 향하여

4:23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 지어다.

이제 빌립보서 공부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절이 오늘 공부의 본문입니다. 이곳 23절에 기록되어 있는 바울의 마지막 인사는 기독교 공동체의 예배 때 사용한 예전적인 표현방식입니다. 이것은 빌레몬 25절과 완전히 일치하며, 갈라디아서 6:18과도 역시 거의 일치하고, 고후 13:13에서는 훨씬 확장된 표현 방식으로 발전합니다. 빌 1:2에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는 말이 들어갔는데, 여기서는 그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이런 표현 방식은 서로 교환될 수 있기도 합니다만, 어떤 면에서는 기독교 공동체의 실존을 강조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변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3절에서 바울은 빌립보서의 끝인사를 이렇게 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 지어다. 초대 기독교는 역사적 실존 인물이었던 예수님을 주(主)와 그리스도로 믿었습니다. 자신들의 삶을 지배하는 주인이며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바로 이 문장에 기독교의 모든 신앙적 특징이 담겨 있습니다.

그분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영)에 함께 한다는 말을 이해하려면 심령(Geist)이라는 단어의 뜻을 먼저 명확히 해야만 합니다. 요한복음 4:24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은 바로 거룩한 영입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며, 성령도 영이시고, 예수님도 우리의 영과 함께 하신다는 면에서 현재 영으로 존재하신다고 볼 때 우리의 신앙적 인식과 경험의 자리는 바로 영입니다. 우리 인간의 영이 하나님과 영적으로 만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과연 이 영은 무엇일까요? 육체와 반대되는 어떤 종교적인 느낌이나 인식을 말할까요? 예술적인 감각이나 지성적인 영감을 말할까요? 인간이 죽은 다음에 존재하게 된다는 그런 혼령을 말하는 것일까요? 또한 우리의 영과 하나님은 똑같은 것일까요? 혹은 동양 사상에서 말하는 기(氣)나 도(道)인가요? 우리는 그 영의 실체를 우리의 인식 체계 안에서 완벽하게 규정해낼 수 없습니다. 그것은 아마 하나님이 완전히 계시될 종말에나 가능하겠지만, 다만 우리는 생명을 창조하고 유지시켜나가는 어떤 힘을 통해서 영에 대한 개념을 정리해 볼 수는 있습니다. 구약성서와 신약성서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경험들이 우리로 하여금 영이신 하나님을 깨닫게 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가 비록 매순간 죽음을 향해서 파괴될 운명 안에서 살아가지만 어떤 존재로 변화될 것인지 아주 확실하게 약속해 줍니다.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영과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과 축복만이 무상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생명의 기쁨 안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한국 교회가 영성을 강조하기 시작한 것은 일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어떤 세속적 가치가 아니라 영적인 가치에 한국 교회의 실존을 걸어두겠다는 각오니까 그만큼 교회의 본질에 다가간 셈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이런 저런 방법을 다 동원해도 교회 부흥이 안되니까 또 하나의 방법론으로서(know how) 이 영성을 끌어들이는 게 아닌가 하는 공연한 염려가 들기도 합니다. 이런 염려가 노파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또는 앞으로 바람직한 영성 훈련의 방향을 잡기 위해서라도 한국 교회의 현실에서 이 영성이 어떻게 이해되고 각인되어 있는지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현장에서는 이 영성 문제가 두 가지 방향에서 왜곡되어 있습니다. 첫째, 영성이 순전히 주술적인 의미에서 어떤 신비한 실체를 꿰뚫어볼 수 있는 능력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독심술이랄까, 투시랄까, 마술이랄까, 혹은 남의 운명을 족집게처럼 집어내는 예언과 같은 그 어떤 능력을 가리켜 영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능력을 얻기 위해서 40일 금식기도를 한다거나 심지어는 자기보다 영성이 뛰어난 사람에게서 안수기도를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일반적인 사람들과 무언가 전혀 다른 세계 안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심지어는 목소리까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물론 영성의 깊이에 들어간 사람은 근본적인 생각이 다른 데 있으니까 표정이나 말투가 유별날 수가 있긴 하지만, 그런 외형적인 차이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더구나 무당이나 점쟁이들처럼 초월적인 힘의 도움으로 이 세상의 삶을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인간을 살리는 영성(靈性)이 아니라 인간을 숙명적인 힘에 몰아넣는 어두운 마성(魔性)에 불과합니다.

둘째, 많은 경우에 기독교의 영성이 죄의식과 단단히 묶여져 있습니다. 죄의식이 깊을수록 회개를 통한 영적 경험도 깊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영성 훈련을 하는 곳에서는 기독교인의 죄의식이 매우 강조됩니다. 물론 인간을 죄에 물든 실존으로 인식하고 그 죄의식으로부터의 해방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면 이것은 기독교적인 면에서 볼 때도 매우 귀중한 신앙적 체험입니다만, 기독교 신앙은 이런 죄의식을 그 본질로 삼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서론에 한번 지적된 것처럼 이미 이런 문제는 니체나 프로이트나 마르크스에 의해서 충분히 분석된 바 있습니다. 니체는 무신론을 통해서 인간의 죄의식을 제거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인간 해방이라고 보았으며, 프로이트는 종교를 죄의식의 집단 노이로제라고 보았습

니다. 어쨌든 교회에 신자들을 죄의식 빠져서 늘 불안하게 살게 한다면 그것은 창조와 해방과 자유를 선포하는 성서의 선포에서 너무나 거리가 멀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물론 예수님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그것은 우리의 의식이나 잠재의식에 있는 죄의식을 각성시키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근본적으로 변해야 한다는 명령입니다. 생명의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가 임박했으니 땅의 가치가 아니라 하늘의 가치에 부합해서 살아가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 기독교인은 교회에 나와 앉았다 하면 눈물을 짜고, 심지어는 집단적인 히스테리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보았던 부흥회는 늘 그런 식이었습니다. 그것으로는 무지하게 슬픈 영화를 보면서 손수건이 흠뻑 젖을 정도로 울고 나면 가슴이 시원해지듯이 심리적인 카타르시스가 될 수 있겠죠. 이런 현상은 역으로 윤리적 만족감을 영성으로 오해하게 만드는 결과를 빚습니다.

영성은 마술이나 죄의식의 차원이 아니라 생명과 연관됩니다. 이 세상에 생명을 창조하고 유지하고 완성시키는 하나님의 영이 바로 성령이며 이 성령에 사로잡힘으로써 우리의 영성을 확대되고 심화됩니다. 우리의 주관적인, 심리적인 자기 발산이나 자기 고백이 아니라 우주를 창조하고 지금도 그 창조를 유지하고 미래에 그것을 완성하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통치하도록 나를 그분의 힘에 맡김으로써 우리의 영도 충만해집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건대, 기독교의 영성은 죄책감이 아니라 생명감에 사로잡히는 경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영과 함께 하기를 바란다고 축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 밖에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extra nos, in Christo)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에 근거해서 기독교인은 영적으로 살아갑니다. 기독교의 영성은 인간의 마음 속에서 어떤 훈련을 통해서 개발되는 능력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은총 속에 들어가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틱낫한이 운영하는 플럼빌리지나, 로제가 운영하는 떼제공동체의 영성훈련이 나름대로 큰 역할을 합니다만, 그것은 결국 정신분석의 차원에 머무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컨대 수영을 배우려는 사람이 물속에 들어가서 뒷발질이 팔 동작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물과 자기가 하나 되는 경험이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처럼 영성은 인간학적인 자기 개발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 활동에 대한 명쾌한 인식이며 동시에 그 영에게 자신을 온전히 위탁하는 신뢰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적 영성이 시작이며 목표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4장에 불과했지만 우주론적인 넓이와 깊이를 가진 빌립보서를 모두 마쳤습니다. 전체 표제를 <땅과 하늘>이라고 뽑았기 때문에 이런 구도에서

한 마디만 붙인다면 이렇습니다. 이 땅에 두발을 딛고 하늘을 바라봅시다. 땅이 역사라고 한다면 하늘은 그것의 초월입니다. 땅이 현재라고 한다면 하늘은 미래입니다. 땅이 예수의 십자가라면, 하늘은 부활입니다. 땅에서 살지만 하늘을 지향하고, 하늘을 지향하지만 땅에 충실함으로써 참된 생명에 참여한 이들이 바로 기독교인들입니다.